



이웃종교 스테이

# 삶터 속 근현대 역사순례

일시

2013. 8.23~25

장소

강화도, 정동, 경복궁

주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 목차

역사순례를 떠나기에 앞서 • 5

---

개신교 스테이 일정 • 10

---

주요 순례지 안내

1. 강화 • 13

성공회 강화읍성당, 성공회 온수리성당

2. 마포 • 14

양화진 외국인 묘역, 성 니콜라스 대성당

3. 정동 • 15

정동제일교회, 배제학당, 정동 이화박물관

구세군 중앙회관, 새문안교회

(구)러시아공사관, 경교장, 성공회대성당

4. 경복궁 • 16

집옥재, 건청궁

■ 순례지 소개

## 역사순례를 떠나기에 앞서

‘개신교’를 지칭하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어렴풋한 느낌은 있지만 본격적인 역사탐방을 떠나기에 앞서 간략히 정리해 볼까요?

그리스도교? 기독교?  
개신교? 신교?  
Protestant, 改新教

간략히 예수(Jesus)를 구원자 혹은 메시아로 믿는 종교를 그리스도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그대로 부르기도 하지만 구원자라는 의미의 ‘Christ’를 붙여서 Jesus Christ,

즉 예수 그리스도(그리스말로는 Iesüs Christus)로 부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Christ의 음을 그대로 옮기 말이며 중국 사람들은 基督으로 표기하였습니다. 그리스도교나 기독교나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언어습관이라는 것이 무서워서 같은 그리스도교인 가톨릭교는 천주교로, 개신교는 기독교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일치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교’라고 하자라고 암묵적으로 합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혹은 신교라는 말은 뜻 그대로는 ‘개혁한 새로운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Protestant’라는 말은 ‘항거, 항변하는 사람들’ 정도로 이해될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자체가 매우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양하게 일어난 운동이었기에 항거와 항변의 의미보다는 중세교회로부터 개혁했다는 의미가 더 커졌습니다.

이번 순례 동안에는 편의상 ‘개신교’로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 2 이웃종교인들과 만나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의 하나가 ‘기독교는 왜 교파가 그렇게 많은가?’입니다.

사실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도 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개신교의 경우 통일성보다 다양성이 두드러져 나타나는데다, 정말 많은 전통이 있어서 교파주의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신교는 시대적으로 인류문명이 가장 크게 변동하던 시기에 탄생함으로 그 시대의 상황, 그 지역의 특성 등이 많은 영향을 줌으로 다양한 교파의 탄생은 필연적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적 상황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은 개신교 교파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신교는 시대와 지역의 과제를 고스란히 자신의 소명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조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1) 그리스도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천주교, 개신교가 다수이지만 정교회(正敎會, The Orthodoxy Church)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도 원래의 발상지는 아시아 대륙입니다만, 점차 유럽으로 확대되어 갔습니다.

대략 4~5세기 동안에 그리스도교의 기본적 교리, 즉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교리를 정의하였으며, 지역별로 대단위의 교구를 설정하였습니다. 이 교구들은 로마, 콘스탄티노폴리스, 안티오키아,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입니다. 지역적으로 로마를 제외하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후에 수위권 다툼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교의 첫 번째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로마교구와 나머지 교구의 분열이 그리스도교의 첫 번째 분열입니다.

1054년의 분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교는 크게 동방교회, 서방교회의 두 가지 전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서방교회	동방교회
가톨릭교회	그리스정교회 루마니아정교회 불가리아정교회 세르비아정교회 러시아정교회 아르메니아교회 등

(2) 두번째의 대분열은 서방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인류의 역사상 유럽의 중세는 매우 독특한 시기입니다. 종교와 국가권력이 구분되지 않던 중세유럽은 근대의 어머니라 할 수 있습니다. 세속권력의 확대와 무역, 자본 축적 등으로 인한 신흥계급의 발원은 새로운 사조를 탄생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인문주의입니다. 믿음만으로 설명되던 것이 질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새로운 것들이 많이 탄생한 시기입니다.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은 새시대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천주교 사제였던 루터는 자신이 속한 교회에 필요한 95개조의 개혁항목을 내걸었습니다. 분열을 원하지 않았지만 결과는 분열이 되어버린 이 사건을 종교개혁이라 부릅니다.

당시에는 종교개혁 이외에도 시대의 흐름을 바꿔놓은 인문주의자들이 많이 나타났으며, 사회적 상황 안에서 농민혁명 등 사회적 변화의 폭이 컸던 시기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칼뱅 같은 개혁가들은 교회와 사회의 개혁을 동시에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은 후대에 개혁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영국에서의 종교개혁으로 성공회(聖公會, The Anglican Church)가 탄생하였고 이후 산업혁명기를 거치면서 감리회, 구세군 등의 전통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서방교회		동방교회
로마가톨릭교회		그리스정교회 루마니아정교회 불가리아정교회 세르비아정교회 러시아정교회 아르메니아교회 등
로마가톨릭	개신교	
	루터회 개혁교회 성공회 감리회 재세례파 등	

앞서 언급했듯이 개신교는 그 시대와 지역적 상황을 선교와 개혁의 과제로 설정함으로 다양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개신교의 전통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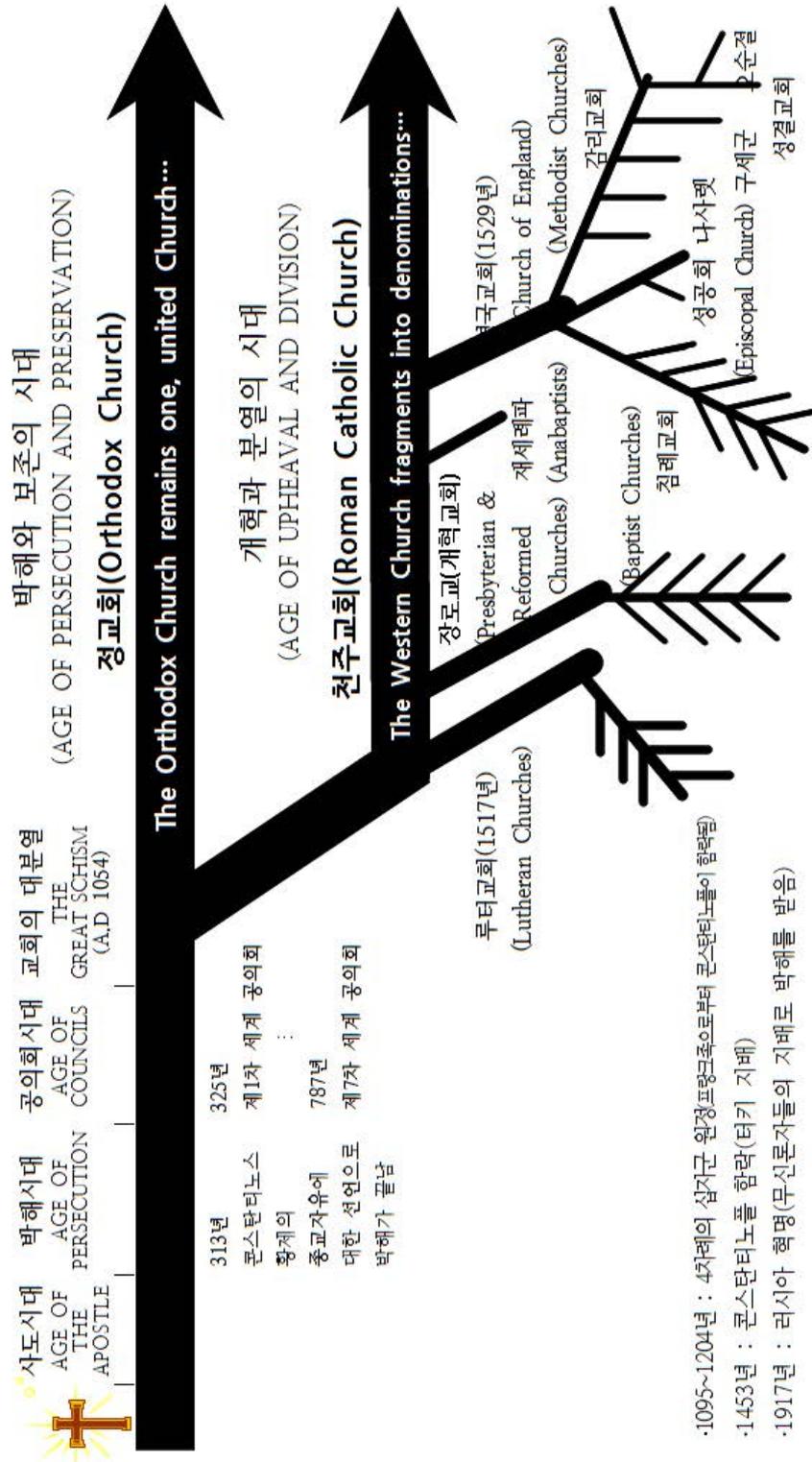
#### 왜 우리는 역사탐방을 떠나는 걸까요?

한국의 그리스도교는 천주교 230여년, 개신교 13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안정기라면 개신교는 아직 토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천주교가 상대적으로 많은 박해를 받았고 신앙전통이 성자와 성지의 개념이 뚜렷하지만, 한국에 들어온 개신교는 종교적 은둔과 수도 생활 보다는 인간사의 가운데서 활동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즉 개신교의 영성이 발휘되었던 공간이 삶의 한가운데였기에 그들의 삶의 공간도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웃종교 스테이가 휴식의 의미도 있지만 이웃종교를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기에 개신교 스테이는 긴 여정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도표로 보는 간략한 교회사

(A Timeline of Church History)



-1095~1204년 : 4차령의 십자군 원정(프랑크족으로부터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됨)  
 -1453년 : 콘스탄티노플 함락(터키 지배)  
 -1917년 : 러시아 혁명(무신론자들의 지배로 박해를 받음)

\*이 도표는 한국정교회에서 제공하였습니다.

# 개신교 스테이 일정

	1일차(8월 23일)	2일차(8월 24일)	3일차(8월 25일)
7:00 -8:00		아침을 여는 숨	아침을 여는 숨
8:00 -9:00	연지동 집결 및 인원체크	아침식사	아침식사
9:00 -10:00	8:30 강화도 출발	이동	짐정리와 이동
10:00 -11:00	<u>개신교 문화순례</u> 1. 성공회 강화읍 성당 2. 온수리 성공회 성당	<u>개신교 문화순례</u> 1. 정동제일교회 2. 배재학당 3. 정동 이화박물관 4. 구세군 중앙회관	9:30-11:00 강의 “한국 근현대사와 개신교” (서정민 목사)
11:00 -12:00			<u>개신교 문화순례</u> 경복궁 (집옥재, 건청궁)
12:00 -13:00	점심식사		
13:00 -14:00	이동	점심식사	점심식사
14:00 -15:00	<u>개신교 문화순례</u> 3. 양화진 외국인 묘지	<u>개신교 문화순례</u> 5. 새문안교회 6. (구)러시아공사관 7. 경교장 8. 성공회대성당	
15:00 -16:00	4. 성 니콜라스 주교좌 대성당		
16:00 -17:00			
17:00 -18:00	숙소로 이동&방배정	숙소로 이동&休	
18:00 -19:00	저녁식사	저녁식사	다시, 각자의 삶의 자리로
19:00 -20:00	KCRP 및 이웃종교화합주간 소개 및 참가자 자기소개	강의와 나눔 “개신교 영성 이해” (김경재 목사)	
20:00- 21:00			
21:00- 22:00	자유시간	느낌나누기	
22:00	꿈나라로	꿈나라로	

## 섬기는 사람

---

1. 전체 인솔: 김태현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일치협력국장)  
서범규 간사
2. 순례 인솔: 이치만 목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3. 강 의:
  - (1) 김태성 교무(KCRP, 사무차장)  
“한국종교인평화회의와 이웃종교화합주간 소개”
  - (2) 김경재 목사(한신대학교, 명예교수)  
“개신교 영성 이해”
  - (3) 서정민 목사(일본 메이지학원대학, 교수)  
“한국근현대사와 개신교”
4. 아침예배: 김태현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일치협력국장)
5. 동행 취재: 김동민 PD(CBS) -24일



## 강화도 지도



## 강화도 순례 코스

1. 집결지
2. 성공회 강화읍성당 (78쪽)
3. 성공회 온수리성당 (81쪽)

### \*함께 살펴볼 이야기

강화읍성당과 온수리성당의 건축 이야기

초기 선교역사와 조선인들의 복음수용에 관련된 이야기

감리교의 선교정책 이야기



## 양화진, 마포 순례 코스

1. 양화진 외국인 묘역 (17쪽)
2. 한국정교회 성 니콜라스 대성당 (40쪽)

### \*함께 살펴볼 이야기

이방인의 묘지에 얽힌 낯설지만 익숙한 이야기

그리스도교는 정교회, 천주교, 개신교의 신앙공동체 그리고 에큐메니칼 운동  
낯선 이야기를 만남의 기쁨으로 바꿔보기

## 정동지역 지도



## 정동 지역 순례 코스

1. 정동제일교회 (124쪽)
2. 배재학당 (127쪽)
3. 정동 이화박물관 (138쪽)
4. 구세군 중앙회관 (100쪽)
5. 새문안교회 (86쪽)
6. (구)러시아공사관 (113쪽)
7. 경교장
8. 성공회대성당 (55쪽)

### \*함께 살펴볼 이야기

- 조선 말기 아픈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 당시의 개신교 역할 살펴보기
- 역사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를 맞춰보기



## 경복궁 순례 코스

1. 집옥재 (150, 162쪽)
2. 건청궁 (162쪽)

### \*함께 살펴볼 이야기

고종황제의 고뇌에 대하여 이해하기

푸른 눈의 이방인과 낯설은 복음이 이웃이 되어가는 과정 이해하기

마음이 통하는 친구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기

# 순례지 소개

---

## ■ 양화진 외국인 묘지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내려 당산철교 노선을 따라 한강 쪽을 향해 걷다보면 낯선 이국적 풍경의 공동묘지를 맞이하게 된다. 이곳에는 삶의 환희와 기쁨보다는 죽음의 엄숙함과 경건함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다. 더구나 인근에 절두산 순교성지와 잇닿아 있어 한국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역사적인 두 공간이 공존하고 있는 의미 있는 땅이기도 하다.

### 1. 신·구교가 마주보고 선 삶과 죽음의 성지

절두산은 조선시대 한강을 건너던 양화(揚花)나루터 옆에 있었던 언덕으로 개화기 때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된 곳이다. 사실 이곳은 한강변의 명승지로 그 풍경이 뛰어나서 문인들의 발길이 잦았고, 중국 사신들이 오면 빼놓지 않고 다녀갔을 만큼 경치가 아름다웠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리하여 선유도와 한강 풍경을 담기 위해 수많은 진경 산수화가들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단원 김홍도와 겸재 정선의 작품들 가운데 양화진과 절두산의 풍경이 여럿 발견된다. 근처에 위치한 망원정은 세조의 아들 월산대군이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세월을 보내던 곳이었으니 당대 최고의 풍광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선조 지리서인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절두산의 옛 이름이 가을두(加乙頭)라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한강으로 돌출한 봉우리의 모양이 누에의 머리 같기도 하고, 용의 머리 같기도 한 데서 잠두봉(蠶頭峰)·용두봉(龍頭峰)·가을두(加乙頭)라 불리기도 했다. 양화나루터는 서울에서 양천을 지나 강화도로 가는 중요한 길이었으며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또한 전국에서 세곡이 조운선(漕運船)에 실려 올라오는 항구로서 농산물의 유통을 담당하는 곳이기도 하였다. 또 잠두봉은 1866년(고종 3년) 병인양요 때 한강을 거슬러 온 프랑스함대에 대적하기 위해

방어기지로 사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곳은 병인년(1866년)에 이르러 흥선대원군의 선참후계(先斬後啓)의 명으로 시작된 천주교 박해로 수많은 신자들이 목이 잘리어 숨진 뒤 절두산(切頭山:머리가 잘림)이라는 지명을 얻게 되었다. 흥선대원군은 병인양요 이후 전국 각지에 척화비(斥和碑)를 세움과 동시에 1만여 명의 가톨릭(천주교) 신자들을 붙잡아 이곳에서 목을 잘라 처형하였다. 프랑스 함대가 선유도와 양화진 앞까지 와 함포사격을 하였기에 흥선대원군은 “불국 양이들에 의해 더럽혀진 땅을 그들이 전한 천주쟁이들의 피로 깨끗이 씻겠다.”면서 절두산을 처형장소로 택했던 것이다. 양화진과 절두산 일대는 마포의 중요한 길목이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왕래하였으나 수많은 목이 잘린 후 공포의 장소로 바뀌어 이후 황량하게 변모해 갔다. 1890년대에 양화진 언덕에 ‘외국인묘역’이 조성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역사와 잇닿아 있다.

이렇듯 역사의 흔적들을 그대로 간직한 절두산에 기념관을 세워 그 당시의 사회와 문화와 그 시대를 살던 선조들의 삶을 느낄 수 있는 많은 유물과 자료들을 보관, 전시하고 있다.

절두산 순교 기념관은 병인박해 100주년을 기념하여 1966년 3월에 착공하여 1967년 10월 낙성되었다. 기념관은 순교자기념성당, 박물관, 순교성인 28위의 유해를 안치한 경당(經堂:지하묘소) 등 셋으로 구분되어 있다. 순교자기념공원으로 꾸민 앞마당에는 김대건(金大建)·남종삼(南鍾三)의 동상, 순교자상, 일본에서 순교한 오타줄리아의 묘 등이 있다. 기념관의 설계는 산의 모양을 조금도 변형시키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공모하여 서울대 미대 교수인 이희태(李喜泰)씨의 설계가 채택되었다. 이 건축설계도는 순교정신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한국적인 토착성과 전통적인 고유미를 살리는 데 역점을 두어 설계된 것이다. 후에 이 설계도는 세계 건축 설계 콘테스트에 출품되어 은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절두산의 지세와 한강변을 활용하여 자연 속에서의 조화미를 얻은 본 기념관은 교회사적 뿐 아니라 문화사적으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바로 이곳 절두산 정상에서 북쪽을 바라보면 야트막하게 조성되어 있는 양화진 외국인 묘지공원이 보인다.

## 2. 양화진 외국인 묘지의 개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145-8/ 명칭은 서울외국인묘지공원으로 되어있다. 1893년 10월 24일에 개설이 허가 되었으며 면적은 13,224 제곱미터이다. 무덤은 500여개가 있으며, 최초의 매장 선교사는 존 헤론이다.

이곳에는 초대 선교사와 조국 근대화에 헌신한 구미 각국의 저명인사 500여명이 묻혀 있는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성금으로 선교기념관을 건립하여 그들의 선교정신과 숭고한 희생봉사의 업적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후세에 전승하기 위하여 1985년 1월 14일 재단법인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 제5차 총회에서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 한국기독교 선교회관을 건축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사업이 1985년 6월 28일 선교기념관 기공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며, 1986년 8월 20일 건조물 및 토목공사가 완료되고 9월 10일 조경 공사가 완공되었다. 지금은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에서 설립한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가 구내에 위치해 있으며, 묘원을 관리하고 있다.

## 3. 양화진 외인묘지의 설정 과정과 의미

앞서 살핀 듯이 절두산의 천주교 수난이래 양화진 일대는 공포의 땅이 되었다. 임오군란 때는 일본 공사 하나부사가 잡혀 죽을 뻔 했는데, 양화진으로 도망쳐 살 수 있었다. 또 1884년 10월 갑신정변을 주도한 김옥균의 시신이 1893년 4월 15일 다시 이곳 양화진으로 옮겨와 효수형(梟首刑)에 처해진 것만 보아도 양화진 일대는 여전히 공포의 땅이자 피하고 싶은 지역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나루터이자 인천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인 이곳은 오히려 선교사들에게는 좋은 땅으로 인식되었다. 언더우드, 밀러, 에비슨 등은 이곳의 언덕을 사서 여름 별장을 지은 적도 있었으니 말이다(언더우드 부인의 *Underwood of Korea*에 기록). 이러한 시각 때문인지 버려진 땅 양화진은 선교사들에게 매우 좋은 외곽지대로서 효용가치가 높았다.

양화진이라는 공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공존한다. 일본 요코하마의

외국인묘지와 더불어, 인천 조계지(현 자유공원일대)의 외인묘지, 그리고 양화진 묘지 등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의 영토를 침략하던 가장 첫 번째 방식의 산물이기도 하다. 일본 요코하마의 묘지 일대(양화진의 거의 1-20배 규모)도 배 안에서 사망한 미해군 사병을 묻기 위해 일본에 요구하여 얻어낸 땅이 점점 확대된 결과이다. 서구 제국들은 그런 식으로 식민지 대상국들의 땅을 잠식해 왔고, 가장 먼저 땅 한 뼘을 확보하던 전형적 방법론으로 묘지 협정을 벌였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사실, 양화진 묘역도 그런 의미에서 역사가들의 비판을 받는 땅이기도 하다. (양화진이 좀 각별하게 다가오는 것은 첫 번째 안장자가 선교사 해론이었고, 언더우드나 아펜젤러가 고종황제와 친밀하여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얻어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 곳은 선교사들만을 위해 얻은 땅이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비록 알렌(미국 공사)과 언더우드 등 선교사들이 주도하기는 했으나 그곳은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5개국 공사들의 공동명의로 청원되었다는 사실이다.

1893년 10월 24일에 해론을 시작으로 40년이 지난 1931년에 이르러 138기의 묘가 조성되었는데, 이를 국적별로 분류하면 미국이 71기, 영국이 29기, 러시아가 17기, 프랑스가 12기, 독일이 5기, 덴마크가 3기, 스웨덴이 1기, 중국이 1기 등이었다. 그 중에는 외국 선교사들도 있었지만, 외교관, 사업가, 언론인, 금광기술자 및 영국과 러시아의 군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이후 계속 매장자가 늘어났지만 현재는 총 187기의 묘지만이 남아 있는데, 그 중 선교사와 그 가족의 묘가 95기(약 50%)에 이르는 것이다. 교파별로는 장로교가 26기, 감리교가 20기, 이 밖에 YMCA, 구세군, 침례교, 안식교 등의 선교가가 14기 남아 있다.

이렇듯 양화진 외인묘지는 절두산과 달리, 여러 국적, 여러 직종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대중적 공간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 공간이기도 하다. 만일 우리가 프랑스나 영국, 혹은 미국의 식민지가 되었다면 매우 반감을 가질만한 공간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곳이다. 실제로 그곳에 묻힌 사람들 중에는 우리의 금광과 철광 등 자원을 수탈해간 기업인과 기술자들도 많이 묻혀있고, 제국주의의 야욕을 불태우던 외교관들도 묻혀 있다. 그런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곳은 '성지(聖地)'의 의미 뿐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가 응축된 역사적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곳에 묻힌 가장 많은 사람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이었음을 감안하면, 그만큼 한국 땅을 사랑한 사람들이 묻힌 아름다운 땅이라고 힘 주어 말할 수 있다.

역사는 매우 개별적이고 상황적이라 그 안에는 수많은 인물과 사건, 관점이 공존한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나 역사적 공간을 바라볼 때,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양화진 묘지는 그곳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성지'라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묻혀계신 한 분 한분의 묘가 그 개별적인 공간대로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인사드리듯 찾아뵙고, 그들의 인생에 대해 공부하고 그를 추념하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그 동안 양화진의 묘들을 교파별로 개별적 관리를 해온 한계도 바로 그러한데 있다.<sup>1)</sup> 지금은 100주년 기념교회가 그 관리를 책임지고 있어서 상황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여러 의미에서 양화진은 '성지'이면서도 동시에 역사 교육의 장이다. 그곳에는 수많은 근현대 서양인물들이 모여 있다. 그 안에는 오랜 동안 잊혀져 있던 분들이 많다. 다행이도 국가(서울시와 마포구청)가 그러한 의미를 깨달아 최근 유형문화재로 등록시키고 공원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전국민적인 교육적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합정역에서 당선철교로 이동하는 2호선 전철 구간은 절두산과 양화진 사이를 무지막지하게 가르고 있다. 그런데 처음 건설계획 당시 지하철 2호선은 양화진 외인묘지를 지나가도록 설계 되었었다. 사실 70년대 말, 80년대 초 외인묘지는 포크레인에 의해 완전히 훼손될 뻔 했다. 하지만 YMCA운동을 평생 하시며 한국교회사를 연구하신 오리(吾里) 전택부 선생께서 치열하게 탄원하여 도시계획을 바꾼 결과, 지하철이 바로 옆으로 옮겨진 것이다. 그런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양화진은 최근까지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왔다.

---

1) 지난 2007년에 하디의 딸 비석 위에 감리교가 새롭게 새운 <영적대부흥 기념비>처럼, 구세군은 구세군대로,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그렇게 개별적으로 관리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4. 양화진에 잠든 이들의 이야기

##### 한국 개신교 첫 번째 순직자 : 양화진의 배꼽자리

- 존 헤론 (John Heron, 제중원 첫 번째 파견의사)



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해야 할 때 한국은 피폐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리하여 선교사들은 선교사업과 더불어 문명화와 근대화 사역을 함께 수행해야 했다. 그리하여 선교사들은 의료와 교육을 병행해야 했는데 처음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로 내한한 알렌은 제중원을 설치하였다. 이곳에서 언더우드, 헤론, 감리교 의료선교사 겸 목사 **스크랜턴**이 일하였다. 처음에는 알렌이 와서 일하였으나 밀려오는 환자를 혼자서 치료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언더우드가 약국의 일을 도와주게 되었다. 1885년 5월에 내한한 **스크랜턴**과 함께 같은 해 6월 헤론이 가담하였다. 부족한 약품들, 의료 재료들로서는 감당하기 역부족이었다. 날씨가 더워지고 전염병은 창궐하였다. 한국인들은 위생관념이 희박하여서 물을 끓여먹지 않아서 온 가족과 동네가 몰사하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헤론은 내한한지 5년 만에 이질에 걸렸다. 그는 그곳에서 그렇게 순직했다. (이러한 제중원은 후에 미국의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의 실업가 세브란스가 1만 5천 달러를 희사하여 지금의 서울역 앞 대지를 구입하여 세브란스병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세브란스병원이 생겨났다.)

헤론 선교사는 조국이나, 자신의 가족보다 한국 사람들의 영혼을 더욱 사랑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의 묘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JOHN W. HERON, MD / who came to Korea IN 1885 /  
MISSIONARY PHYSICIAN / TO/ COURT LEGATIONS  
/ DERBYSHIRE ENG, 1856 / DIED/ SEOUL JULY,1890/  
The son of God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그는 1885년 한국에 의료선교사로 와서 1890년 7월 여름에 순직했다. 그리고 그 비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자신의 신앙을 묘비에 적어놓았다. 헤론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선교에 대한 일념으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지만 자신은 그렇게 죽어갔다. 한국의 개신교 선교는 이런 사명자들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헤론 선교사의 묘비와 부인의 재혼, 그리고 부인 사후의 합장 등에 관한 에피소드는 연세대학교 편을 참조 바람)

## 두 번째 순직자 - 제임스 홀(James Hall, 감리교 첫 번째 순직의사)

한국에 선교사로 떠나는 로제타 홀을 짝사랑 한 제임스 홀은 무작정 그녀를 따라 한국행을 결심한다. 이후 평양에서 청일전쟁 부상자들을 진료하다가 과로로 순직하였다. 존 헤론이 장로교 최초의 순직의사라면 제임스 홀은 감리교 최초의 순직 의료선교사이며, 이 두 사람 모두 병을 고치던 중 자신도 희생되었다. 그리고 양화진 묘지의 첫 번째 자리에 나란히 묻혀 있다.

그 부인(로제타 홀)은 끝까지 한국에 남아 평양 기호병원 설립 및 경성 여자의학교 설립(현 고대병원) 등 수많은 일을 하였으며, 한국의 맹인교육과 농아교육을 처음 시작했다. 아들(셔우드 홀)은 해주 구세군병원에서 활동하였고, 한국의 폐결핵 요양원을 처음으로 개설한 크리스마스 실 운동의 창시자이다.

“나는 아직도 한국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가 태어나서 자랐던 사랑하는 이 나라, 또한 내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누이 동생이 잠들어 있는 한국 땅에 묻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임스 홀의 아들 셔우드 홀이 1984년 한국을 찾아 양화진을 참배한 뒤 남긴 유언)

## 크리스마스 실(Seal) 이야기

한국에서 크리스마스 실을 처음 만든 셔우드 홀(Sherwood Hall)은 평양 최초로 의료선교를 실시했던 감리교 선교사 부부 윌리엄 제임스 홀(William James Hall)과 로제타 셔우드 홀(Rosetta Sherwood Hall) 부부의 아들로 서울에서 출생(1893)했다. 그는 질병으로 고통 받는 한국인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다 순직한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 홀의 숭고한 삶을 본받아, 자신도 그러한 섬김의 삶을 평생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모국인 캐나다에서 의학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셔우드 홀은 1925년부터 해주 구세병원에서 일하게 되었고, 한국인들을 위해 가장 시급한 질병문제가 ‘결핵’이라 판단하고, 1928년 해주 결핵요양원을 설립했다. 지금은 결핵이 흔하지 않지만, 1930년대부터 60년대까지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앓았던 고질적인 질병이었다. 그는 결핵환자의 치료 뿐 아니라 일반 사회를 대상으로 한 결핵퇴치운동도 적극 추진하게 되었는데, 크리스마스 실(Seal)도 그런 목적에서 발행되었다. 셔우드 홀은 1932년 이 실을 처음 발행하며 이 사업의 동기를 첫째, 한국 사람들에게 결핵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둘째, 만인을 결핵퇴치운동에 참여시키는 것, 즉 실 값을 싸게 하여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는 재정적 뒷받침이 시급한 결핵퇴치사업의 기금을 모으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홀 자신도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한국인들의 민족운동을 심정적으로 동조하고 있었기에 크리스마스 실을 제작하면서 그 도안에다 한국의 전통 건물과 풍습을 담아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1932년 처음 발행한 실은 서울 남대문 이미지로부터 시작해서 한국 전통 건물이나 풍경을 배경으로 한국 어린이들의 모습을 도안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이런 크리스마스 실이 일제 말기 우리 고유 풍습과 민속, 전통을 말살하려는 일제 총독부의 정책에 배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일제는 크리스마스 실 발행을 휘방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던 1940년 12월, 마지막으로 발행된 실에서 ‘서양 연호’인 ‘1940’을 쓰지 못하게 하여 ‘제9년’(Ninth Year)이라고 표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는 크리스마스 실이 아홉 번째로 발행되었다는 의

미였다. 이런 표기방식으로 구세요양원의 크리스마스 실은 마지막 순간까지 일본식 연호(年號)인 소화(昭和) 사용을 거부했다. 일제 시대 마지막 실을 전통 한옥 대문에서 한복을 입은 어린이들이 서 있는 모습으로 인쇄할 수 있었던 것만도 다행이었다. 결국 이후 크리스마스 실은 발행되지 못했고, 해방 후에 대한적십자사가 이어 받아 발행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제에 의해 마지막으로 발행되었던 한옥 문 아래의 두 아이의 그림은 1919년 3·1운동 직후 내한해 한국의 아름다운 풍물과 풍경, 인물들을 그림으로 담아낸 영국의 여류 판화가 엘리자베스 키스(Elizabeth Keith, 1887-1956)의 작품이었다. 그녀가 한국의 곳곳을 다니며 그렸던 한국인의 얼굴과 풍경들은 지금도 그 아름다움과 생동감이 살아있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최근 그녀의 그림을 소개하는 책들이 소개되어 90년 전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들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 반가운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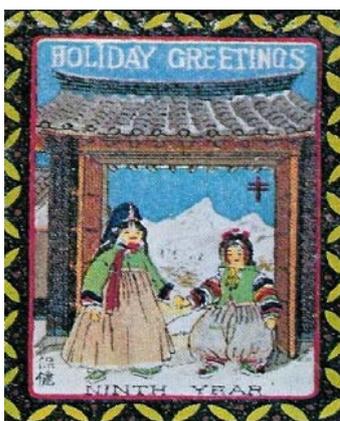
닥터 셔우드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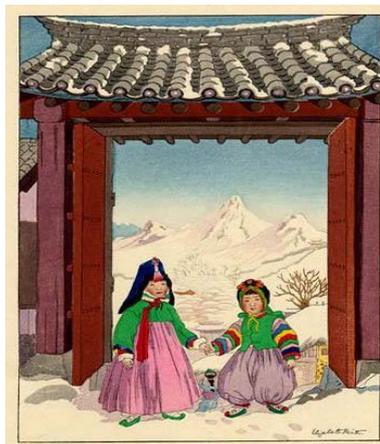
닥터 메리안 홀



1932-33  
Y.M.C.A. staff artist



Revised design by Elizabeth Keith



## 한국의 영원한 벗- 헐버트 박사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 H. B. 헐버트



헐버트(Hulbert, Homer Bezaleel, 1863~1949) 박사는 미국 버몬트주(州) 뉴헤이번 출생으로, 1884년 다트먼트대학을 졸업했다. 그리고 그해 유니온신학교에 들어갔다가 1886년(조선 고종 23) 소학교 교사로 초청을 받고 D.A. 벙커 등과 함께 내한(來韓), 육영공원(育英公院)에서 외국어를 가르쳤다. 1905년 을사조약 후 한국의 자주독립을 주장하여, 고종의 밀서를 휴대하고 미국에 돌아가 국무장관과 대통령을 면담하려 했으나 실패하였다. 1906년 다시 내한, 《한국평론 The Korea Review》을 통해 일본의 야심과 야만적 탄압행위를 폭로하는 한편, 이듬해 고종에게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보내도록 건의하였다. 그는 한국 대표보다 먼저 헤이그에 도착, 《회의시보 Courier de la Conférence》에 한국 대표단의 호소문을 실게 하는 등 한국의 국권회복운동에 적극 협력하였다. 1908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스프링필드에 정착하면서 한국에 관한 글을 썼고, 19년 3·1운동을 지지하는 글을 서재필(徐載弼)이 주관하는 잡지에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수립 후 1949년 국민으로 초대를 받고 내한하였으나, 병사하여 양화진(楊花津) 외국인 묘지에 묻혔다.

※한국 귀환 시 환영 인파에 휩쓸려 90세 노인이 과로 겸 환영인파에 떠밀려 쇼크를 받은 후, 며칠 만에 별세하고 말았다. 그의 비석 가운데 한글비문은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써주기로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1950년 6·25 전쟁 발발로 잊혀지고 말았다. 50년간 가운데 한글묘비명이 없이 방치되었던 헐버트 박사의 묘비는, 1999년 헐버트 박사 서거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친필을 작성해 줘, 안장 50년 만에 한국의 대통령으로부터 비문을 얻어 새길 수 있었다. 한국을 위해 평생을 바친 분에게 너무 소홀한 50년 세월이었다.

## 한국교회 대부흥 운동을 점화시킨 하디 선교사



신경하 감독회장(왼쪽에서 네번째) 등 감리교 관계자들이 24일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서 로버트 하디 선교사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 제막식을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구성찬 기자

하디 선교사는 미국 남 감리회의 첫 번째 의료선교사로서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1865년 6월 11일에 출생해 에비슨(O. R. Avison)과 같은 토론토의 과대학을 졸업했다(1890).

특정 교파의 배경 없이 부산에서 게일과 함께 활

동하던 그는 그 후 서울에 와 에비슨과 함께 제중원 의료선교와 세브란스 의전에서 의사 및 교수로 활동했다(1917-1918). 1898년에는 미국 남 감리회 선교사로 소속을 변경하고 의료 선교 활동은 원산에서 펼쳤다.

이후 일어난 1907년의 평양대부흥운동은 1903년 8월 원산에서 일어난 하디(R. A. Hardie, 1865-1949) 선교사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교만과 한국인들을 무시하고 불신했던 사실들’을 공개적으로 회개했다. 당시 선교사들은 양대인(洋大人)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한국인들은 선교사들을 죄도 없고 무엇이든 다 해결할 수 있는 초인적 존재로 인식하기도 했다. 그랬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굳이 한국인들 앞에서 자신의 결점을 노출시키거나 죄를 인정하는데 인색했다. 그러한 인식이 팽배하던 시절, 원산에서 사경회를 진행하던 하디 선교사는 자신이 눈앞의 청중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죄인임을 고백했던 것이다. 그러자 성도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다. 한 사람씩 선교사를 따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어느새 교회 안은 성령의 열기로 달아올랐다. 한 선교사의 진실된 죄 고백이 토착 신자들의 회개로 이어지고

신앙체험과 윤리적 갱신의 촉매제가 된 것이다. 이 날의 영적 각성은 ‘원산 대부흥’으로 일컬어지는 성령부흥운동의 불씨가 됐다. 지난 2006년 5월 24일에는 의미 있는 일이 있었다.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힌 하디 선교사의 두 딸 비석 뒤에 <영적대각성운동 기념비>가 세워진 것이다.<sup>2)</sup> 그 비석엔 이렇게 새겨져 있다.

감리교 선교사 하디는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의 위대한 불씨로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 이르기까지 한국 교회의 영적 대각성을 이끌어 낸 주역이다. 이제 100주년을 맞아 다시 영적 대각성의 불길을 사모하고 그가 이 땅에 남기고 간 사랑하는 두딸의 흔적을 기억하면서 이 비를 세워 역사에 뜻을 기리고자 한다.

(2006년 5월 24일 존 웨슬리 회심 268주년, 기독교대한감리회)

## 한국을 위해 투쟁한 언론인- 어니스트 베델

*"내가 한국을 위해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My fight for Korea is heaven ordained"*

영국 언론으로 한국명은 배설(裨說)이다. 1904년 《런던 데일리 뉴스》지 특파원으로 한국에 왔으며, 같은 해 7월 양기탁(梁起鐸) 등과 함께 서울에서 《대한매일신보》를 영문판 《코리아 데일리 뉴스》를 창간하여 사장이 되었다. 이 신문은 일본의 침략정책을 과감히 비판하여 국민의 의분을 북돋워 배일사상을 고취시켰으며 일본의 침략행위를 지상(紙上)에 폭로했다. 일본은 영국인으로서의 치외법을 이용하여 배일론(排日論)을 앞장서서 이끄는 이 신문을 억압하기 위해 영국정부에 외교공작을 펴 그의 국외추방을 꾀했다. 그 때문에 1907년 10월과 1908년 6월에 서울 주재 영국 총영사의 재판에 회부되어, 상하이(上海)에서 3주간 금고형을 받았고, 1909년 서울에서 죽었다.

---

2) 1893년생인 하디 선교사의 큰딸 메리는 출생한지 이튿날 숨졌고, 1903년 태어난 작은 딸 마거릿은 7세인 1909년에 하늘나라로 떠났다.

대한매일신문의 위력에 대해서, 안중근에게 저격되어 생을 마친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는 이렇게 말했다.

“이 이등(伊藤)의 백 마디 말보다 신문의 일필이 한국인을 감통케 하는 힘이 크다. 그 중에도 일개 외국인의 대한매일신보는 일본 시책을 반대하고 한국인을 선동함이 계속되고, 끊임이 없으니 통감으로서 가장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 7월 18일 서울 전동에서 창간되어 1905년 을사늑약을 전후한 일본의 야욕에 정면으로 포문을 열어 민족 사상을 고취시켰다. 민충정공을 찬양하고 송병준을 욕하는 등 과감하게 행동해 나갔다. 베델은 이 신문의 사장이었고, 우리가 기억하는 민족주의자들인 양기탁(梁起鐸), 박은식(朴殷植), 신채호(申采浩), 안창호(安昌浩), 장지연(張志淵) 등이 필진이었다. 이들은 당시에 이 활동지가 있었기에 자신들 애국의 마음을 널리 펼칠 수 있었던 것이다. 신문은 필진에 의해 전 국민의 가슴에 애국하는 마음을 일깨웠고, 필진은 이 신문에 의해 애국자로 커나갔다고 하겠다. 이 마음이야말로 자연스럽게 당시 국민들 사이에 커다란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 발행 부수가 당시로서는 경이로운 17,000부에 이르렀다.

그러면 이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 베델이 물러나자, 비서였던 영국인 만함은 곧 이장훈에게 일금 4만원에 이 신문사를 매도하고 우리나라를 떠나 버렸다. 또 이장훈이 신문을 인수한지 두 달이 지난 경술국치 이후부터는 이 신문은 대한(大韓)이란 글자를 떼어내고 《매일신보》라 칭하며 일본 총독부 기관지가 되어 버렸다. 꼭 5년 동안의 작업을 거꾸로 돌린 것이다. 그러므로 그 신문의 활동은 베델의 정신을 이었던 것이라고 하겠다. 허나 그 신문의 정신은 베델의 죽음으로 끝났다.

물론, 영국인 국적 때문에 일본의 검열을 피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던 이 항일 필봉을 일본은 간과할 수가 없었다. 일본은 영국과 동맹 관계에 있음을 기화로 하여 이 신문의 일부 논지를 국제적으로 문제 삼아 베델을 두 차례나 영사재판에 걸었다. 결국 그는 상해에서 3주간의 징역을 살면서 재판을 받았다. 그 후유증인지 베델은 재판 후 한국에

돌아온 뒤부터 심장병을 앓기 시작하여 1909년 5월 1일 37세의 나이로 순절했다. 당시 대한매일신보는 조의금을 광고로 걸었는데, 큰 호응이 있었으며, 《新韓民報》 135호(1909년 6월 2일 字)에는 논설로 그의 부음을 전하고, 사진을 곁들여 그를 깊이 애도하고 있다.

베델은 임종 순간에 대한매일신보 기자의 손을 잡고 “나는 죽으나, 신보(申報)는 영생케 하여 한국동포를 구하시오.”라고 했다. 그가 신문발행이 한국독립의 길임을 절실히 깨닫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베델보다 한 살 어렸으며 사재를 털어 신문사 운영을 도왔던 그의 부인도 그 죽음 앞에서 “나는 결단코 망부(亡夫)의 사업을 계속하리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부인은 석달 후 영국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왜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한국을 떠났을까? 이 신문이 일본 총독부의 기관지가 되고, 일제에 의해 한국이 병합되는 과정에서 아마 그들은 내외적 압박으로 한국에 살 수 없었을 지도 모른다.

※베델의 장례식은 장지연 등이 주도한 ‘사회장’으로 엄수되었는데, 이후 일본 총독부는 비석 뒤편의 베델의 공적을 모두 정으로 쪼아 없애 버렸다. 하지만 해방 뒤 그 내용을 담은 새로운 비석을 옆에 나란히 세워 두었다.

## 한국 여성신학 교육의 선구자, 채핀

미국의 여러 교회조차도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던 시기, 1931년 출범한 조선감리교회에서는 여자선교사들과 몇몇 신학교를 졸업한 여성 전도자들에게 ‘목사안수’를 주었다. 이것인 최초의 여성 목사 탄생의 순간이었다. 이 때 목사가 된 채부인 선교사는 이미 ‘협성여자신학교’를 창립하여 한국의 여성 전도자들을 육성하는 데 헌신하고 있었다.

1913년 채핀 부부는 행복한 신혼기에 딸 모텔과 함께 내한했다. 남편 빅터 채핀(채피득)은 내한 직후 언더우드를 도와 새문안교회와 연희전문학교 설립 업무를 도와 언더우드의 왕성한 활동을 조력했다. 하지만 남편의 열정적 삶은 이내 건강을 앓아갔고, 채피득 선교사는 내한한지 3년 만

에 갑작스런 죽음을 맞았다. 남편의 별세 직후 아내 채핀(채부인)은 남편이 뼈를 묻은 한국 땅을 평생 섬기기로 결심했다. 그해 그녀는 미감리회 여성교회에 청원해 앨벗슨(Millie. M. Albertson)이 막 시작한 감리교 ‘부인성경학원’ 교사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채핀은 부인성경학원에 지원생이 늘어나고 교사(校舍)가 비좁게 되자 1917년 봄, 서대문 밖 죽점정(충정로 3가 8번지)에 독자적인 건물을 마련하는 데 커다란 공을 세우며 건강악화로 귀국한 앨벗슨의 뒤를 이어 1918년 부인성경학원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1920년 봄, 남.북감리교회 여성교회가 연합여자신학교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결과, 그 해 11월 부인성경학원의 명칭을 "감리교 협성여자신학교"로 바꾸게 되었고, 채핀은 이 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이러한 채핀의 삶에 일대 혁명적 전환점이 찾아 왔다. 당시 미국교회에서도 여성에게는 안수를 주지 않는 가부장적 사회분위기였다. 그런데 1930년 남.북감리교회가 합동되면서 새롭게 선출된 양주삼 총리사가 전례가 없는 조치를 취했다. 바로 대한여성교사들 중 14명을 소집해 1931년 개성북부교회에서 양주삼 총리사의 집례로 목사안수식이 거행된 것이다. 이것은 한국 감리교뿐 아니라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여자 목사 안수식이었다. 채핀은 이전에 미국에서는 결코 경험해 보지 못한 여성으로서의 자존감과 지도력의 자신감 새롭게 얻을 수 있었다. 그것도 미국 사회보다도 더 가부장적인 한국에서 경험한 여성해방의 환희와 감격이었던 것이다.

같은 해 한국 최초로 남녀공학을 실시함으로써 통합된 ‘감리교신학교’의 부교장이 되었던 채핀은 이곳에서 발행하던 『신학세계』에 “여성에 대한 기독교의 태도”라는 글을 통해 성서속의 예수님이 여성을 어떻게 대하고 이해했는지를 소개하며, 교회 내 여성의 지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자들이 첫째로 사람이 되고 그 후에 남편과 아버지가 되는 것과 같이 저이는 먼저 사람이 되고 그 후에 안해(아내)도 되고 어머니도 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여자든지 만일 저이의 관계에 있어 범죄하면 남자가 같은 죄를 범할 때 취급하는 것과 같이

저이를 사람으로 취급할 것이다. 교회 안에 그릇된 오해와 비교육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분명히 기독교의 창립자인 기독교 자신의 여성에 대한 태도이었음을 밝히려는 것이 필자의 이 논문을 쓰는 목적이다. 우리가 위대한 선생들의 여성에 대한 태도를 잘 알면 잘 알수록 더욱 기독교의 여성에 대한 태도가 비할대 없음을 시인할 것이다. (채핀, “여성에 대한 기독교의 태도(속)” 『신학세계』 제16권 5호(1931,10), 110-111.)

채핀은 위의 글을 통해 여성이 ‘여성’이기 전에 ‘인간’임을 인식하고 남성과 더불어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대우 받는 것이 중요하며, 교회 안에 그릇된 오해와 가르침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의 가르침과 여성에 대한 그분의 태도를 규명하여 기존의 오해와 그릇된 가르침들을 불식시키고자 했다. 그리고 채핀은 위대한 선생들 즉,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등의 여성에 대한 태도들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기독교의 여성에 대한 태도가 그들과는 비할 바 없이 ‘해방적’이었음을 역설했다. 채핀은 이후로도 한국의 여성지도력 개발과 사회사업, 전도사업 등에 평생을 바치며 한국과 한국의 기독교여성을 위해 헌신했다.

### 한국 백정들의 아버지- 최초 제증원 의사 박서양을 키운 ‘무어 선교사’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가혹한 차별 대우를 받은 사람이 조선시대의 백정이다. 백정은 기와집에서 살지 못하게 하였고 비단 옷도 입지 못하게 하였으며, 공부도 못하게 하였고 항상 허리를 구부리고 다니게 했다. 이런 일을 안타깝게 여긴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양반과 상놈의 구분 없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면서 고종의 주치의인 의사 에비슨과 함께 백정들에게 전도했다. 이로 인해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바로 박성춘이다. 그는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왕에게 탄원하여 마침내 1895년 6월6일 백정 신분을 철폐하게 하였다. 그의 아들 박서양은 1908년 6월 세브란스 의과대학 제1회 졸업생 일곱명 중 한 사람이 되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일을 실천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하신 일을 이어서 해야 한다. 주의 영으로 더불어 내 자신이 먼저 자유인이 된 후에 악한 제도와 여러 가지 죄에 포로 되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해야 한다.

무어 선교사가 세운 ‘승동교회’는 현재도 인사동 한 가운데 위치해 있다. 이 교회는 양반들이 다 떠나고 백정과 기생들만 남아 ‘백정교회’라고 불리웠다. 승동교회 말고도 동막, 대현교회 등 25개 교회를 개척, 설립했으며, 언더우드가 설립했던 그리스도신문의 사장으로도 활동했다.

※무어 선교사의 비석은 유난히 파괴가 많이 되어 있다. 그 이유는 이곳이 6·25 전쟁 당시 UN군이 서울을 수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양화지구전투)였기 때문이다. 일제의 베델선교사 비석 훼손과 더불어 한국전쟁의 아픔까지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양화진 외국인 묘지이다.

## 에큐메니칼 커플 - 벙커와 애니 엘러스

육영공원 교사로 파견된 감리교의 벙커와 제중원 최초의 산부인과 의사로 장로교에서 파송된 애니 엘러스 여선교사는 태평양을 건너는 선상 한 가운데서 애정을 키웠다. 한국에 오자마자 이들은 한국 최초의 서양식 결혼식을 올렸고, 이후 각자가 속한 교단에서 평생을 헌신했다. 장로교와 감리교의 교파를 초월한 사랑이다.

벙커는 이후 배재학교 교장 역임, 성서공회 책임자 활동, 명성왕후 시해 직후 언더우드, 헐버트, 애비슨 등과 함께 고종을 보호했고, 이승만 등 독립운동가들의 석방운동을 주도했으며, 윤치호 선생이 작사한 애국가의 작곡 등 폭넓은 활동을 펼쳤다. 애니 엘러스는 제중원 산부인과 교수직을 언더우드 부인(Lillias Horton)에게 넘겨주고, 장로교 최초의 여학교인 ‘정신여학당’을 설립하여 교육사업에 열중한다. 이들은 현재 양화진에 합장되어 있다.

## 남감리교 여성교육의 선구자들 (배화학당)

1) 캠벨(1853-1920): 남편과 사별한 뒤 중국에서 10년 간 활동하다가 한국으로 넘어왔다. 배화학당 설립과 자교, 종교교회 등의 설립을 주도했다.



2) 캔드릭(1883-1908): 독신여성으로 한국에 온지 8개월 만에 개성에서 선교준비를 하다가 1908년 6월 19일 맹장염에 걸려 서울 세브란스에서 치료받던 중, 25세의 젊은 나이로 별세한 비운의 여선교사이다. 당시 의료혜택을 잘 받았다면 이후 훌륭한 선교사역을 펼쳤을 것이다. 그녀의 비문에는 “만일 내게 1천의 생명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모두 한국에 주겠노라”라고 써있다. 이 말은 그녀가 죽기 전 고향의 애플스 청년회에 보낸 편지 속에 있던 글이다.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자 모두들 충격에 휩싸였는데, 그녀의 편지 내용이 전해지면서 선교사로 자원한 청년이 20여명이 나왔고, 새로운 결단의 계기가 되었다. 이후 텍사스 지역에서는 해마다 헌금하여 한국의 선교사들을 후원했다. 캔드릭은 죽기 직전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회원들에게 가서 열명씩, 스무명씩, 오십명씩 한국으로 나오라고 알려주세요”라고 유언했다고 전한다.

"If I had a thousand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 R. 캔드릭

3) 랜들(1890-1925): 1918년부터 5년간 개성과 춘천에서 활동하였다. 1935년 다시 귀환하여 철원에서 선교활동을 펼치던 중 그녀 역시 캔드릭과 마찬가지로 급성 맹장으로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35세의 짧은 생을 마쳤다.

## 제암리 사건을 취재한 테일러/ 스코필드/ 언더우드 2세

"주님! 길고 긴 여행을 끝내고 이제 나는 안식을 얻었습니다."

- G. A. 테일러

알버트 테일러는 금광기술자 겸 신문기자로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의 비참한 정치현실과 3.1운동 등 독립운동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3.1운동 직후의 제암리 사건을 접하자, 세브란스에서 가르치던 스코필드 선교사, 그리고 연희전문에 있던 원한경(언더우드 2세)과 함께 재빨리 내려가 사진을 찍고, 해외 언론에 타전하였다. 특히 스코필드 등과 하세가와 총독을 찾아가 항의함으로써 추가적인 만행을 줄일 수 있었다.

그는 1919년 3월 1일에 자신의 아들 부르스 테일러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그 출생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3.1운동 취재에만 관심이 있을 정도로 한국에 관심이 많았다. 그의 생애는 지난 3.1절에 KBS 3.1절 특집 다큐멘터리 <아버지의 나라>로 제작되어 방영된 바 있다.

1971년까지 세브란스에 봉직한 스코필드 박사는 현재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계신다.

## 일본인의 참회와 한국사랑 - 소다 가이치 (1867-1962)

자신의 생명을 구한 한국인의 은혜에 보답하고 일본의 한국 병탄에 참회를 느껴 1905년 내한한 일본인 기독교사회사업가이다. 그는 가마쿠라 보육원(고아원)을 부인 우에노 다키코와 함께 운영하며 버려진 한국의 고아들을 위해 평생 헌신했다. 경성 감리교회의 전도자와 매서인으로 활동기도 했으며, 105인 사건 당시 석방운동에 앞장섰고, 77세에 원산교회 전도사로 취임기도 했는데, 8.15 해방 이후 귀국한 뒤에도 한국에서 일생을 바쳤다.

## 감리교 최초의 의료 선교사와 여성교육의 선구자- **스크랜턴** 모자

미국 예일대학 출신으로 뉴욕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클리블랜드**에서 개업을 하고 있던 **스크랜턴**이 감리교 의료선교사로 임명받자 평소 선교 사업에 뜻을 두고 있던 그의 어머니 **스크랜턴** 부인도 아들과 함께 일하기로 결심하고 1885년 6월20일 아펜젤러 목사와 함께 한국에 도착하였다. 며느리와 함께 정동에 도착한 **스크랜턴(M. F. Scranton)**대부인은 한 달 전에 먼저 들어와 기다리고 있던 아들(**W. B. Scranton**)집에 짐을 풀었다. 아들 **스크랜턴**은 이미 제중원에서 교파를 초월한 연합 선교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후 이 두 모자와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정동 북쪽에 '이화학당'을 정동 남쪽에는 '배재학당'을 정동 동쪽에는 '시병원'과 '보구여관'을 중심으로 활발한 근대 선교사역이 시작되었다.

**스크랜턴** 부인의 본명은 메리 프리처 벤튼이며 1832년 12월9일 매사추세츠 벨쳐타운에서 태어났으며 1853년 W. T. **스크랜턴**과 결혼하였고 1872년 사별하였다. 그녀는 외아들과 같이 다니며 선교를 하다가 52세의 나이로 한국에 왔으며 1909년 10월8일에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 그녀가 1886년 5월31일 한명으로 시작한 이화학당은 한국 최초의 여성 신교육의 뿌리이다. **스크랜턴** 부인은 학생들의 건강을 아들이 경영하는 시병원에서 보살피게 하다가 여의사인 메타하워를 초청하여 한국최초의 부인병원인 보구여관을 운영하였다. 이 보구여관은 명성왕후가 하사한 이름이며 나중에 동대문에 있는 이화여대 병원의 전신이 되었다.

##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의 가족묘

장로교와 감리교를 대표하는 초대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오후에 인천 제물포에 함께 도착했다. 그 두 사람은 처음 제중원(세브란스)을 기점으로 선교에큐메니즘의 정신을 구현해나간 장본인들이다. 감리교 **스크랜턴**의 제중원 참여는 바로 그러한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장.감연합의 정신은 이후 연희전문학교의 장.감연합설립(배재대학부와 경신대학부 연합)으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이후 성서번역사업, 근대출판사업, 신문언론활동, 고종만수성절 및



명성황후 추도예배 행사 등 수많은 연합활동을 펼쳤다.

그러던 중 1902년 아펜젤러가 목포의 '성서번역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인천에서 일본 오사카상선의 구마가와마루호를 탔다가 같은 해운회사 소속의 기소가와마루가 충돌하는 사고

로 침몰, 순직하고 만다. 이후 언더우드와 에비슨 등이 서울을 중심으로 힘겹게 제중원 발전과 연희전문학교의 설립에 박차를 가하는 등 에큐메니칼 정신을 펼쳤다. 하지만 평양지역 교파주의 선교사들의 견제로 인해 언더우드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1916년 연희전문학교 설립 1년 만에 별세하고 만다.

양화진에는 시신이 없는 채 빈 무덤으로 모셔진 아펜젤러의 묘소와 그 자식들, 그리고 언더우드 일가의 3대가 한자리에 모여 있다.

## 대(代) 이어 세브란스에서 봉사한 더글라스 에비슨의 묘

앞서 살핀 홀 가족의 의료선교 전통은 에비슨(Oliver R. Avison)에 의해서 이어졌다. 에비슨은 토론토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 약학대학과 의과대에서 강의하던 중, 언더우드의 선교홍보 강연과 만남에 자극되어 한국 선교를 결심해 1893년 부산에 도착했다. 그는 제중원 활동과 더불어 고종의 시의 역할



도 하였는데, 에비슨과 같은 고급 의료인이 제중원을 맡은 결과 여러 유능한 의사들이 추가적으로 확보되었고, 제중원의 기반이 든든해졌다. 그 결과 1904년 세브란스의 거액 기부가 성사되어 남대문에 현대식 병원과 의학교를 세워 한국 의료계에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그는 서양의학 서적들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하였고, 부인과 함께 42년간 선교사역을

펼쳤다. 캐나다로 돌아갈 때 그의 두 아들인 더글라스와 고든은 부모의 선교활동을 이어받아 조선에서 계속 봉사하였다. 특히 더글라스 에비슨은 O. R. 에비슨의 넷째 아들로 1893년 7월 22일에 출생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대를 졸업하고 1920년 북장로회 의료선교사로 돌아와 처음에는 선천 지방에서 활동하다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로 전임해와 스코필드 선교사 등과 함께 세브란스를 발전시키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소아과 교수, 부학장 및 **병원장** 등을 거치며 1947년까지 헌신하던 중 1952년 8월 4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별세하여 임시 안장하였다가 한국 땅에 묻히길 원한 그의 평소 소원을 생각해 1954년 화장하여 양화진에 그의 부인과 함께 안장해 왔다. 묘비문은 1953년 8월 4일에 세브란스 의과대학 동창회가 작성했다.

## 순결한 죽음- 영아 묘역

이곳에는 선교사들을 따라 왔다가 부모와 함께 순직한 가족들이 함께 있으며, 채 꽃피우지 못하고 부모도 함께 한국에 묻힌 아이들도 많다 이곳에 한국 복음의 선교를 위하여 숨진 사람들의 묘는 생각보다 화려하지 않다.



봉의 높이도 높지 않다. 마치 예수님께 책망 받던 바리새인들의 비유와 같이 평토장한 무덤 같아 보여 쓸쓸하다. 그러나 화려하지 않게 잠들어 있는 이들의 영혼은 아름답기만 하다. 이들의 휴식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이 땅에서의 안식이다.

눈에 띠는 묘는 ‘홀트아동복지회’를 설립한 ‘홀트 선교사’의 딸이 묻힌 비석이다. 홀트는 1956년 전쟁 직후의 상황에서 딸을 잃은 충격에 한국의 고아들을 미국과 영국 등에 입양시키는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은 지금도 많은 수의 영아를 외국에 입양시키고 있는데, 이제 국내 입양 등 새로운 전기가 필요하다.

## 기타 선교사와 그 가족들



남장로교 선교사인 레이놀즈의 두 아들, 경신학교 교장 등을 역임한 기포드 선교사, 유진벨 선교사의 부인 샬롯벨, 이화여전을 발전시킨 엘리스 레베카 아펜젤러(아펜젤러의 딸), 그리고 제3대 이화학당장을 지낸 페인 여선교사, 연동교회를 설립한 게일 선교사의 아들, 클락 선교사 가족, 밀러 선교사의 부인과 두 아들, 한국의 군목제도를 창시한 쇼 박사 부자, 송실학교 초대교장인 베어드, 목원대학 설립자인 스톡스(도익서) 목사, 한국 실내체육의 선구자이며 마라토너 손기정을 키워낸 반하트 등도 묻혀 있다.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 A. R. 아펜젤러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 A. K. 젠슨

## ■ 성 니콜라스 주교좌 대성당

### 1. 한국 정교회 역사<sup>3)</sup>

“하나이며 거룩하고 공변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정교회는 1900년에 한국에 전파되었다. 그해 1월에 러시아인 흐리산토스 세햇콥스키 수사 신부가 직장 때문에 한국에 와 있는 러시아 정교회 교인



들과 러시아에서 근무하던 중 정교회 교인이 된 한국 사람들의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서울에 도착했다. 1903년 흐리산토스 신부는 서울에 성당을 마련하여 이를 성 니콜라스 성당이라 명명하고 그곳에서 의욕적인 선교 사업을 시작했다. 정교회의 복음에 대한 권위 있는 가르침과 그 예배의 풍부함과 장엄함, 그리고 신비로운 분위기는 많은 한국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한국에 들어온 정교회는 그 첫 출발부터 끊임없는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흐리산토스 신부가 한국에 온 후에 발발한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전쟁에서 1904년 러시아가 패하자 일본은 한국에 있던 러시아 인들

에게 강제 출국 명령을 내렸다. 그리하여 흐리산토스 신부와 그의 러시아인 협력자들은 러시아로 돌아가야만 했으며 갖 형성된 한국 정교회의 작은 양떼는 목자를 잃은 고아가 되고 말았다.



러시아의 두 번째 선교사업은 빠벨 이바노프스키 수사 신부에 의해 다시 시작되었다. 그는 1906년부터 1912년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의 정교회에 새순이 돋아나도록

3) [http://www.orthodox.or.kr/html/include.php?inc=hin\\_01\\_05](http://www.orthodox.or.kr/html/include.php?inc=hin_01_05)

노력했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던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의 정교회 신자들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으며 혹독한 박해를 받았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1917년 혁명이 일어나 볼셰비키 정권이 수립되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된 러시아 교회는 더 이상 지원을 해 줄 수 없게 되었다고 한국의 정교회에 통보했다. 이제 한국의 정교회는 러시아로부터 지원도 끊기고 다른 지역의 정교회와의 대화 수단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생존을 위해 처절한 투쟁을 시작해야만 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당시 한국의 유일한 사제였던 알렉세이 김의한 신부가 북한에 납치된다. 또한 전쟁 중에 떨어진 포탄에 의해 서울 성당이 크게 파손되었다. 얼마 안 되던 신도들은 뿔뿔이 흩어져 피난을 가버리고 겨우



타오르기 시작한 한국 정교회의 작은 불꽃이 사그라질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기적이 일어났다. 하느님께서서는 한국 정교회 교인들의 희생과 흔들림 없는 믿음에 상을 내리시며 전쟁의 폐허 가운데에서 한국 정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다.

한국 전쟁에 참여한 그리스군의 종군 사제였던 안드레아스 할끼오쁠로스 수사 신부의 따뜻하고 지칠 줄 모르는 보살핌 덕분에 한국 신도들은 서울에 다시 모였고, 전쟁고아들은 보호를 받았으며 성당이 재건되었고 수백 명이 세례를 받았다. 한국을 떠나기에 앞서 안드레아스 신부는 한국 신도들 중에서 천거된 보리스 문이춘 신부를 1954년 1월 일본 도쿄의 주교부에서 사제 서품을 받도록 주선해 주었다.

한국에서의 정교회 부흥은 정말로 멀고도 험난한 길이었다. 보리스 문이춘 신부와 그의 협력자들의 초인적인 노력으로 한국 정교회의 “작은 양떼”는 유지되었으며, 한국 정부가 국가 재산으로 편입시키려 했던 교회의 재산도 지켜졌으며, 1968년에는 현재의 위치에 역시 니콜라스 성인에

게 바쳐진 비잔틴 양식의 웅장한 성당이 건립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정교회는 교회 조직상 아무 곳에도 속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하여 한국의 정교회는 많은 기도와 심사숙고 끝에 1956년 성탄절에 소집된 신도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세계 총대주교청 산하로 들어갈 것을 결의하고 세계 총대주교청에 허락을 구하였다. 세계 총대주교청은 이 요구를 받아들여 한국 정교회를 자신의 관할 하에 두었다.

이후 한국의 정교회는 세계 총대주교청의 산하 기관인 뉴질랜드 대교구에 속해서, 1975년부터 수사 대신부로 한국에서 대주교 대래 직분을 맡아오다가 1993년 보좌 주교로 승품된 소티리오스 트람바스 주교의 보필을 받는 뉴질랜드의 디오니시오스 대주교의 사목을 받고 있다가, 2004년 4월 20일에 세계 총대주교청이 한국에 대교구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여 소티리오스 트람바스 주교를 초대 대교구장으로 선출하자 같은 해 6월 20일에 소티리오스 트람바스 대주교의 착좌식을 거행하였다.

## ■ 연세대학교

흔히 연세대학교는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가 설립한 학교이기 때문에 장로교 계통의 교육기관인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연세대학교는 설립초기부터 교파를 초월한 에큐메니칼 정신으로 설립된 기독교 교육기관이다. 그러므로 한국기독교의 특정교파를 대변하는 다른 기독교계 학교들과는 달리 연세대학교가 지닌 초교파적 대표성은 남다른 것이다. 이제 연세대학교의 역사적 의미와 유적의 다양한 면면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 '연세'라는 이름과, 연세대학교의 역사적 의미

'연세'라는 이름은 언더우드가 설립한 연희전문학교(延禧專門學校, 1915년 설립)와 알렌 선교사가 구한국 정부와 관민합작으로 설립한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이자 의학교인 제중원(濟衆院, 1885년 설립, 후에 세브란스의과대학)이 각자 발전해 오다가 6.25 전쟁이후 재건과정에서 두 학교가 통합함으로써, 연희대학교의 '연'(延)과 세브란스의학교의 '세'(世)를 합하여 1957년 '연세대학교(延世大學校)'가 성립되었다. 백낙준 박사는 이 두 학교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연세'라는 이름을 통해 이 대학이 앞으로 '세계를 향해 도약하고 뻗어나가고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대학'이 되길 바라는 뜻을 담았다고 한다.

연세대학교의 '연세'라는 이름을 들어 한국에서 연세(나이)가 가장 많은 대학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곤 한다. 사실 연세가 가장 많은 고등교육기관을 들자면 서울 명륜동에 위치한 성균관대학교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근대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을 그 기준으로 상정한다면 연세대학교가 가장 먼저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세브란스의학교의 연원에서 찾을 수 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연희전문학교(Chosen Christian College)를 설립할 때가 1915년이니, 이미 평양의 숭실학교(1897년 설립)나 이화학당 대학부(1887년 설립),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학교, 1905년 설립)가 세워진 이후이다. 의외로 연희전문학교의 설립은 다른 근대 교육기관들에 비해 한참 뒤쳐진 역사를 지닌 것이다. 그런데 해방이후 연희대학과 세브란스의과대학이 통합하면서 이 학교의 연원이 제중원(세브란스의대의 전신)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 것이다. 연세대학교의 한국 최초의 근대교육기관이라는 영예는 바로 세브란스의과대학의 연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 한국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

세브란스의과대학은 1884년 갑신정변으로 자상을 입고 쓰러진 명성왕

후의 조카 민영익을 당시 미공사관 공의로 내한해 있던 북장로회 소속 선교사 알렌이 한국 최초의 외과수술을 단행하고, 그를 구사일생으로 살려낸 것이 계기가 되었다. 조카의 회복을 기뻐한 고종과 명성왕후가 포상을 하고자 했을 때 알렌은 한국 사회에 진보한 서양의술을 교육하고 베풀 수 있는 병원과 의학교의 설립을 요청했고, 이에 고종이 윤허하여 왕실과 선교부가 합작으로 설립한 것이 한국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인 광혜원(廣惠院, 1885)이었다. 광혜원은 얼마 되지 않아 제중원(濟衆院)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1894년에 동학혁명이나 청일전쟁, 갑오개혁 등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일제의 침탈이 노골화되는 시점에 구한국 정부는 제중원의 경영권을 미북장로회로 이관했다. 그리고 이후 제중원은 미 남북감리교와 남북장로교, 캐나다장로교 등의 다양한 교파들의 연합의료기관으로서 발전하여 세브란스의학교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세브란스의학교’라는 명칭은 남대문에 새롭게 조성된 캠퍼스와 의료시설, 의료진의 구축하는 있어서 미국의 기업가 세브란스가 막대한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의 후원과 기부정신을 기념해 개칭한 것이었다.



제중원이 한국의 대표적인 근대식 의료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견인한 인물은 다름 아닌 연희전문학교를 설립한 언더우드였다. 그는 ‘제중원’이 운영의 어려움에 처하자 그 명맥의 유지를 위해 직접 미국과 캐나다로 교수요원을 초빙하기 위해 떠났다. 그의 노력으로 토론토 의과대학의 교수였던 에비슨(O. R. Avison)을 감동시킬 수 있었고 그를 제중원의 교장으로 초빙해 올 수 있었다. 이후에 초교파적인 기독교연합 병원인 ‘세브란스 병원’과 ‘세브란스 의학교’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헌신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이곳이 명실상부 한국 최고의 기독교 의료사업 및 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이바지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언더우드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애비슨이, 이후 언더우드 소천 직후부터 18년 동안이나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의 교장을 겸직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 연세대와 서울대의 역사전쟁

조선조정으로부터 그 경영권이 선교사부로 넘어간 이후, 제중원이 ‘세브란스병원’과 ‘세브란스의학교’로 명칭을 바꾸었음에도, 널리 ‘제중원’ 혹은 ‘제중원병원’으로 불리었다는 사실은 이 병원이 광혜원과 제중원의 역사성을 계승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당시의 여러 공문서나 언론자료, 선교사들의 기록들을 통해서도 세브란스병원이 과거의 ‘제중원’이 발전하여 이루어진 기관임을 사료를 통해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제중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관민합작으로 설립된 서양식 의료기관인 점을 내세워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모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러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역사 갈등은 현재까지도 첨예하게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는 서울대학교 측의 역사왜곡인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서울대학교는 대한제국 말기 통감부의 이토 히로부미가 주도해 설립한 대한의원(1907)을 그 연원을 삼고 있으며, 제중원과 대한의원의 사이에는 역사적 단절과 간극이 존재한다. 대한의원은 설립 된지 수 년 내에 ‘총독부의원’으로 개칭되었고, 이는 후에 일제가 설립한 경성의학전문학교와 경성제국대학 의과대학의 전신이 되었다. 물론 지금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바로 이 경성제국대학 의과대학을 승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전개하고 있는 ‘제중원의 서울대 모체설’과 같은 역사왜곡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과거 일제침탈과 일제교육정책의 결과로서 이어져 온 서울대 의과대학의 역사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중원’의 역사성을 온전히 계승하고 항일과 구국운동의 기지 역할을 감당했던 세브란스의학교

의 역사를 흠쳐가려는 의도가 숨은 것이다. 역사왜곡은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교과서문제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 점을 이러한 역사 분쟁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무튼 세브란스의학교는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서양의술의 도입뿐 아니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회봉사, 일제강점기를 전후해 민족운동의 보루로서 역사적 소명을 다했던 한국기독교와 근현대사의 소중한 유산이 아닐 수 없다. 원래 세브란스 의학교는 서울역 맞은편 남대문 인근에 위치했는데, 6.25 전쟁을 통해 서울이 피폭되는 과정에서 캠퍼스의 상당부분이 파괴되고 유실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후 신촌의 연희대학과 통합함으로써 캠퍼스를 지금의 위치로 이전하게 되었다.

## 교파주의의 극복과 에큐메니칼 정신

그렇다고 해서 연희전문학교의 설립배경과 과정, 그 설립의 역사적 의미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말할 수는 없다. 비록 평양의 송실이나 서울의 배재, 보성보다는 그 설립 시기가 뒤쳐져 있었지만, 이는 당시의 정치, 사회, 종교적 현실이 배경으로 깔려 있다.

언더우드도 원래 내한직후부터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대학설립을 꿈꿔왔다. 언더우드의 선교편지나 보고서를 보면 그가 선교초기부터 대학설립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품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sup>4)</sup> 언더우드는 선교 초기, 조선의 국왕 고종에게 친서를 보내 대학설립의 허가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 1888년 9월 8일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청원하였지만 결국 불허를 통지받고 말았다. 이렇게 꾸준한 노력 끝에 언더우드의 대학설립 구상은 명성왕후의 지원 속에 거의 다 성사된 바 있었지만,<sup>5)</sup> 갑작스런 을미사변(1895)으로 명성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그동안 준비되었던 대학설립 계획이 한꺼번에 무산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언더우

---

4) Lillias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1983, 이만열, 『언더우드 - 한국에 온 첫 선교사』 (서울: 기독교문사, 1990), 55

5) Lillias H. Underwood, *Fifteen Years among the Top-Konts*, 119.

드는 자신이 설립한 경신학교를 육성하면서 이를 대학으로 발전시킬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갔다.

언더우드의 연희전문학교(Chosen Christian College)<sup>6)</sup> 설립 계획은, 이내 마펏과 평양지부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선교사들(남장로교, 호주 장로교, 북장로교 선교사 다수)로부터 오해와 반대에 봉착해야 했다. 반면 언더우드의 지지자들(북장로교 서울선교지부, 캐나다 장로교, 남북감리교 등)은 소수에 불과했다.

보수적인 서북지역의 장로교 선교사들은 언더우드가 서울에 대학을 세움으로써 평양의 숭실학교를 죽이려 한다는 비판을 가하면서 언더우드의 대학설립 의지를 꺾으려고 했다. 이러한 반대 속에서도 언더우드는 서울에 교파를 초월한 연합기독교대학의 설립 필요성을 공감하는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의 지지 속에서 1915년 연희전문학교를 설립할 수 있었다. 이는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교파주의를 극복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로마서 8:28)는 뜻을 실천에 옮긴 것이었다.

언더우드의 기독교연합대학 설립의 노력은 1911년부터 서울주재 북장로회 및 남북 감리교회의 세 학교가 연합하는 형태로 그 초석을 이루고 있었다. 1912년 미국 북감리교대회에서는 한국에 초교파적인 기독교 고등교육기관을 설치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미국 각 교파의 연합교육위원회의 찬동을 얻었으나, 대학설립의 위치문제로 논란을 거듭하며 지루한 논쟁이 지속되었다.<sup>7)</sup> 그리고 마침내 1914년, 북장로교의 경신학교와 북감리교의 배재학당 내에 각각 임시대학과를 설치하여 연합대학 학생들은 자기 모교의 대학부를 찾아가 등록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1915년 이 두 대학부가 통합하여 설립된 연희전문학교의 ‘예비 대학부(College Preparatory Class)’였다. 결국 1915년 3월 5일에는 정동과 연지동의 두

---

6) 언더우드는 이 학교의 처음 이름이었던 ‘조선기독교대학’의 이름을 지을 때도 당시 일반적으로 혼용되던 영어 표기인 ‘Choson’과 ‘Chosun’을 거부하고, “선택된”이란 뜻의 ‘Chosen’을 사용해 “Chosen Christian College”라고 표기했다. 즉 연희대학교와 그 안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깊은 메시지를 그의 설립정신 안에 담아 내고자 했던 것이다.

7) 장로교 선교사들은 서울 연동의 경신학교에, 감리교회 선교사들은 정동의 배재학당에 대학부를 두자고 하여 이 연합대학 설치하는 한 동안 논란을 지속하였다. 결국 대학교육으로서의 연합교육은 1906년에 경신과 배재가 연합교육을 성사시키지 못한 이후로 또 다시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임시대학부의 통합조직을 완성하였고, 4월 24일에는 미북장로교, 남.북감리교, 캐나다 장로교와 연합하여 그 중립지대라 말할 수 있는 종로의 중앙기독교청년회관(YMCA)에서 명상부한 대학으로 출범하게 되었다.<sup>8)</sup>

평양의 '송실전문학교'는 처음에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으로 시작하였지만, 뒤에 감리교가 이탈하게 되고, 뒤이어 미 남장로교와 호주장로교가 가세하면서 결국 장로교대학으로 그 성격이 굳어졌다. 초창기 에큐메니칼 기독교연합대학(Union College)으로 시작되었던 역사적 의미가 빛을 바랜 것이다. 그러나 연희전문학교<sup>9)</sup>는 감리교와 캐나다 장로교, 그리고 미 북장로교가 연합으로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말 그대로 에큐메니칼 연합대학이 되었다. 이는 언더우드의 에큐메니칼 정신의 실천이 잘 드러나는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언더우드의 여러 활동들이 대개가 초교파적 교회연합운동이었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나, 언더우드가 서울에 설립한 이 연합대학은 그의 에큐메니즘 실천의 마침표인 동시에 에큐메니즘 실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이정표이기도 했다. 이러한 그의 에큐메니칼 정신은 그가 브라운 박사에게 보냈던 편지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박사님의 보고서에 우리의 학교에서는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신 것을 보고서 무척 기뻐합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박사님과 동감합니다. 현재 온 나라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교육자로서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모든 대학들이 그 기점을 두게 될, 초교파적인 기독교 종합대학의 설립을 희망하였습니다.<sup>10)</sup>

## 종교와 민족의 한계를 극복한 열린교육의 산실

8) 연세 창립 80주년 기념 위원회, 『연세대학교사』 (연세대학교 1969), 277.

9) 이 학교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작고 후, 1917년 4월 7일에 총독부로부터 연희전문학교로 인가가 났다. 그리고 그해 9월에는 연희전문의 부지로 고양군 연희면에 19만 320평의 토지가 구입되었다.

10) H. G. Underwood's letter to Dr. Brown, July. 19, 1910.

언더우드는 엄격하게 기독교인들의 입학만을 허용하는 닫힌 자세를 넘어서서 비기독교인들까지도 배움의 기회를 얻고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들을 훈련받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대학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교파주의의 극복과 동시에 종교적인 배타주의까지도 불식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기독교 복음의 예언적이며 선구적인 가치들에 대한 자신감이기도 했다. 그리고 언더우드의 이러한 정신은 그의 아들 ‘원한경’이 연희전문학교 3대 교장으로 취임하면서 더욱 굳건하게 계승되고 있음을 확인 하게 된다.

“우리는 장로교도나 개신교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맡은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학교는 화합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는 우리 학교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명백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 서양인과 동양인이 화합했습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외국의 4대 교단으로부터, 조선의 장로교와 개신교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대륙으로부터 온 상품이든지 간에 이를 얻어, 훌륭한 건물 한 채를 짓기 위해 이를 합하고, 모든 지방에서 온 젊은이들을 입학시켜 그들에게 역사·문학, 그리고 그들과 다른 사람이 얻은 성과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문구를 세계 모든 국가의 사람들과 함께 세계의 모든 언어로 말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 모든 종파의 사람들을 하나의 교회에 모이게 하고, 이러한 자원, 사람들, 종교의 결합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학교의 목표입니다.<sup>11)</sup>

언더우드도 연희전문학교 설립문제로 완고한 ‘교파주의’와의 지루한 싸움을 감당해야 했다. 그러나 그가 설립하고자 한 대학은 평양의 숭실전문학교와 단순한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똑같은 성격의 소모적인

11) H.H. Underwood(원한경), 연희전문학교 교장 취임연설, KMF, 제30권 12호, 1934년 12월.

학교 설립이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서로의 부족한 영역들을 채워줌으로써 보다 양질의 기독교 고등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돕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위한 상보적 개념의 대학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을 지녔던 언더우드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는 한국의 흑독한 신분제도와 사회문화에 대해 가장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졌으며, 자신이 꿈꾸고 있던 대학



의 실용적이고 현대적인 가치들로 그것들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는 연희전문학교에서 특히 ‘상과’와 ‘수물과’를 가장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였다.<sup>12)</sup> 이것은 당시의 풍토 속에서 가히 파격적인 사건이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당시 민중들의 삶을 실제로 도와주는 것일 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보았던 파격적인 ‘개혁 작업’이었던 것이다. 상공업의 진흥과 그 사회적 기여를 통해 한민족의 희망찬 미래를 개척하고자 했던 언더우드의 연희전문학교 설립 정신은, 21세기를 맞이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이다.

따라서 언더우드의 연희전문 설립은 단순한 교파연합 사업의 차원

12) 언더우드는 1910년 자신이 창설한 경신학교의 제6대 교장으로 재취임하여 학교를 전면적으로 쇄신하였다. 1911년부터는 연희전문학교 설립의 토대작업으로써 실업교육의 구상을 실현시켜 한국최초의 수공업교육기관인 경신수공부(倣新手工部)를 설립했다. 이는 사실상 전문학교 공과대학의 교육을 시도한 사업이었으며, 1912년에 이르러 언더우드는 공과를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 확장키 위해 미국으로 귀국하여 토지구입과 건물 건립에 소요되는 모금운동을 벌였다. 1913년에는 공과 건물을 준공을 보아 직조과(織造科), 염색과(染色科), 자수과(刺繡科), 양말과(洋襪科), 재봉과(裁縫科), 죽물과(竹物科) 등의 분과를 설치했다. 언더우드는 경신수공부의 확장을 계기로 실업에 대한 전문적인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1914년에는 수공부 내에 공과전문학교를 개설하였다. 이후에는 상공업의 유기적인 교육을 강조한 언더우드의 뜻이 반영되어 상업과가 신설되었으며 그 산하에 본과와 속성과를 두어 종합적인 실업교육의 장이 되었다.(1919) 따라서 경신수공(상)과의 설치운영은 이듬해 설립된 연희전문학교 상과와 수물과 전통의 중요한 모체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하영, 『경신80년약사』, (서울, 경신학교, 1966), 123 ~ 130.; 고춘섭, 『경신사』, (서울, 경신사편찬위, 1991), 270-280, 참조.

을 벗어나 당시 피폐했던 한국과 **한국인들을** 위한 사회와 민족 갱신의 또 다른 작업이기도 했다.

## 연희전문학교와 국학전통

기독교대학을 세우고자 했던 언더우드에게는 두 가지 원대한 목표가 있었다. 첫째는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전통을 지닌 한국민족이 근대화 과정의 시행착오로 인해 일제의 침략 하에 들게 된 시대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에게 근대적 고등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고 유효한 투자라는 이상이었다.

둘째는 한국인들의 문화 전통 위에 기독교적 가치관을 덧입혀 세계적이면서도 또한 한국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대학 교육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생각이었다. 이는 ‘기독교’와 ‘한국’이라는 두 축이 언더우드의 대학설립 목표의 양대 기둥이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기독교는 다른 어떤 선교지역에서보다 훨씬 더 강력한 민족적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었다. 민족의 수난기에 전래되었다는 특성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러한 민족의 고난에 동참했던 언더우드를 비롯한 선교사들의 노력 때문이기도 했다. 언더우드는 한국의 기독교가 한국의 문화와 전통과 그 혼에 결합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를 대학설립의 목표로 설정했다. 한국 최초의 한영사전을 집필했고, 성서를 한글로 번역해야 한다고 가장 강력히 주장했던 한글학자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였다. 그는 험버트, 게일, 존스 등과 함께 한국의 종교와 문화,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갖고



활발한 한국학 연구 성과들을 내어 놓았다. 이러한 언더우드 의 관심은 이 후 연희전문학교의 학풍으로 계승되어 일제가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말살 하고 황국신민화 정책을 강요하던 민족 수난의 시기에 주시경, 최현배, 김윤경 등의 한글학자들과 정인보, 홍이섭 등을 통해 국학전통을 지켜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었다. 우리의 얼과 정신이 담긴 말과 글, 우리 역사 와 전통에 대한 연구를 서양인 선교사가 세운 연희전문학교에서 지켜내 고 발전시켰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중요한 역사적 한 측면 이 아닐 수 없다.

## 연세 역사의 뜰

연세대학교 정문으로 들어오면 오른쪽으로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이 보이고, 왼쪽으로는 공학원이 보인다. 그리고 백양로를 따라 올라오면 학교의 중심부에 연세대학교의 상징물인 한글탑과 독수리상, 그리고 이한 열 동산이 보인다. 이한열 동산 뒤쪽으로 아담한 솟을대문에 ‘연세 역사 의 뜰’이라는 현판이 붙은 문이 보인다. 바로 이곳은 지난 1985년 연세대 학교 100주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연세대학교 역사를 기념하는 공간이다.



이곳에는 조선 왕릉에서나 볼 수 있는 정(丁)자 각이 보인다. 그 이유 는 이 자리가 영조의 후궁 영빈이씨(사도세자의 어머니, 정조의 할머니) 의 묘가 있는 수경원(綏慶園) 자리였기 때문이다. 1920년대 연희전문학교 캠퍼스가 이곳에 들어선 이후에도 수경원은 이 자리를 꾸준히 지켜오다

가, 연세대학교의 캠퍼스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결국 1968년 서오릉으로 이장했다. 옛 수경원 묘가 위치했던 곳에는 루스채플이라는 교목실 예배당이 들어서 있다. 그리고 아래 정자각 옆에다가 과거 창덕여고 자리(현재의 헌법재판소,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해 있다가 창덕여고가 강남으로 이주하면서 철거되어 버린 옛 광혜원 건물을 지난 1985년에 복원해 놓았다. 이 건물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가보다는** 초기 제중원의 원형을 가늠해 보고 당시의 병원공간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자각 주변으로는 흥미 있는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6.25 전쟁 당시 UN고문단 자격으로 부산에서 피난민 구호사업을 벌이다가 별세한 언더우드 2세(원한경)의 묘비가 있다. 이는 별세 직후 부산 UN묘지에 묻혀 있던 원한경 박사의 유해를 휴전 이후에 서울 양화진으로 이장하면서 그 묘비를 이곳에 가져다 놓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일제가 태평양전쟁 당시 언더우드 동상을 철거하고, 언더우드 동상 자리에 세워 놓았던 흥아유신기념비(興亞維新記念碑)를 해방 직후에 연희전문 학생들이 철거하여 이곳으로 옮겨 놓았다. 이 탑의 표면에 새겨진 ‘흥아유신기념비’라는 글자가 정으로 쪼아진 것을 보면, 당시 학생들의 반일감정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또 정자각과 광혜원 사이 모퉁이에는, 언더우드 선교사 가족이 1927년 이전까지 거주했던 남대문 밖 복숭아골 저택의 머릿돌이 놓여 있다. 이 건물은 6.25때 피폭되었는데, 당시 건물 잔해 더미에서 원두우(元杜尤)라는 이름이 새겨진 머릿돌만 수습해 연세대학교 캠퍼스로 옮겨 놓은 것이다.

연세 역사의 뜰에서 주목할 만한 최근 발견된 유물 하나가 있다. 바로 헤론 묘비이다. 지난 2008년에 처음 그 존재를 확인했는데, 연세대 박물관 직원으로부터 연세대 용재관 뒤뜰에서 낫선 비석이 발견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필자가 직접 가 보았더니, 허리가 반쯤 파손된 헤론 선교사의 묘비가 세워져 있었다. 이 비석에는 헤론부인의 묘비명도 함께 새겨져 있는데, 헤론이 먼저 죽고 부인이 나중에 합장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헤론 묘비가 왜 연세대 용재관 뒤에 있었는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헤론(John W. Heron)은 알렌의 뒤를 이어 제중원의 2대 원장을 맡아

한국 근대의학교육과 질병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다 본인도 이질에 감염되어 1890년 7월 26일 순직했다. 해론의 죽음은 내한 선교사들 중에서 최초의 순직이자 죽음이었기에 이제 막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던 젊은 의료선교사의 죽음에 당시 외국인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아야 했다. 폭염의 여름에 순직한 해론은 장지를 찾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가 고종의 배려로 7월 29일 양화진에 묻혔다. 이후 양화진에는 내한 선교사들을 비롯한 다양한 국적의 재한외국인들의 공동묘지가 조성 되었다. 해론의 묘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적혀 있다.

이런 특별한 인물의 묘비가 연세대학교에 또 하나 있다는 사실은 놀라움과 함께 의문을 동시에 갖도록 했다. 필자는 지금까지 양화진에 있는 해론의 묘비가 양화진에 세워진 첫 묘비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그와 유사한 형태의 더 넓고 닳은 허름한 해론의 묘비가 연세대 구내에서 발견된 것이다. 필자는 이 두 개의 묘비의 숨은 비밀에 대해 추적해 보았고, 결국 답을 찾았다.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고 연합군이 서울을 수복하는 과정에 인민군과 가장 격렬한 전투를 벌인 곳이 바로 양화진이 위치한 양화지구와 연세대가 위치한 연희지구였다. 그래서 이곳 양화진 외인묘지는 서울 수복당시 격전지로서 지금도 당시의 탄흔과 파괴된 비석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런데, 서울 수복당시 해론의 묘비가 다른 비석들 보다 훨씬 많이 파손되었던 것이다. 양화진 최초의 안장자이자 내한선교사 최초의 순직자인 해론의 묘비를 그렇게 허리부분이 1/2이나 파손된 채 유지할 수는 없었던 것 같다. 아직 기록은 찾지 못했지만, 여러 뜻있는 이들이 힘을 모아 해론의 묘비를 새로 건립하고, 파손된 묘비는 버릴 수도 없고 해서 연세대학교 구내에 옮겨다 놓았던 것이다.

이렇게 방치되었던 해론 묘비가 최근 발견되어 ‘연세 역사의 뜰’, 광혜원 건물 뒤편에 옮겨 세워져 있다. 여담이지만, 당시 해론이 사망한 후 해론 부인은 언더우드와 절친했던 게일의 부인으로 재혼하게 되었다. 그런데, 나중에 해론 부인이 별세하자 게일은 부인을 해론 곁에 합장하고 해론의 묘비에 그녀의 이름을 함께 새겨 넣었다. 지금도 양화진 외인묘지에 가면 게일의 무덤이 해론 부부 묘 가까이에 있다. 서양인들의 독특한

사랑과 남녀관계, 유연하고 개방적인 연애관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다.

복원된 광혜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초기 연세대학교 설립에 기여했던 알렌, 애비슨, 세브란스, 언더우드 선교사와 그의 형 존 T. 언더우드에 대한 기록과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언더우드가 성서를 번역할 때 사용했던 성서교정본이나 고종으로 하사 받은 부채, 연희전문학교 설립당시 막대한 재정지원을 해 주었던 언더우드타자기 등이 전시되어 있다.

## 언더우드 동상의 비밀

언더우드 선교사는 32년간의 한국선교 기간 동안에 너무도 열정적으로 선교 사업에 매진한 결과 그토록 강건하던 건강을 잃고 말았다. 결국 1915년 연희전문학교를 설립한 직후 이듬해인 1916년에 휴양 차 도미했다가 결국 뉴욕인근에서 별세했다.

결국 한국에서 임종하지도, 장례를 치르지도 못한 아쉬움이었을까. 언더우드 서세(逝世) 10주년을 맞아, 1926년 7월 29일에 언더우드 동상을 연세대학교 교정에 건립하게 되었다. 당시 위당 정인보 선생이나 외솔 최현배 선생 같은 한국인 교직원



들로 구성된 '우애회'의 발의로 기금이 모였다고 하니,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한 한국인들의 그리움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건립된 언더우드 동상에 첫 번째 시련이 찾아 왔다. 1942년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수행하면서 언더우드 동상을 철거하고 이를 전쟁 물자로 공출해 간 것이다. 그리고 언더우드 동상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흥아유신기념비(興亞維新記念碑)를 세워 일제의 황국신민화 정책과 대동아공영권의 이념을 학생들에 강요했다. 그러나 일제의 이러한 만행은 1945년 해방을 맞으며 끝이 났다. 학생들은 해방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흥아유신기념비에 달려가 이를 쓰러뜨렸다. 현재 쓰러진 흥아유신기

넙비는 '연세 역사의 뜰'(옛 수경원 정자각 뒤뜰)에 전시되어 있다.

그 후 1948년 10월 16일 이승만, 김구, 김규식, 원한경 박사(언더우드 2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두 번째 언더우드 동상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통해 남북 분단이 가속화되는 정세를 우려하던 김구 선생이 축사를 통해 향후 우리 민족이 서로 간에 총을 겨누고 피를 흘리는 비극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고 경고했다 한다. 이러한 김구 선생의 예언은 이후 언더우드 부인(원한경 부인)의 좌익청년들로 부터의 피살, 여운형, 김구 선생 등의 암살 등의 여러 비극으로 치달더니 결국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김일성은 미제국주의와의 전쟁을 천명하며 연희전문학교를 서울의 중요 기지로 사용했다. 그리고 미제국주의 주구의 상징이라며 언더우드 동상을 파괴했다. 하지만 이내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연희지구 전투가 연희전문학교를 중심으로 격렬하게 전개 되면서 언더우드 동상의 기반석도 총탄자국으로 얼룩졌다. 정인본 선생이 쓴 비문 동판도 수많은 총탄 자국에 나뒹굴어 있었는데, 당시 학교 직원으로 있던 동문이 그 동판의 소중함을 알고 자신만 아는 곳에 숨겨 두었다가 전쟁이 끝나자 그것을 공개해 손상된 부분을 땀질로 보수하여 재부착하였다. 지금도 정인보 선생의 비문에는 6.25의 상흔이 곳곳에 남아 있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언더우드 동상은 휴전 후 1955년 4월에 세 번째로 건립된 것이다. 전후 경제 상황이 열악하였던 이유로 기존의 동상보다 훨씬 작은 규모로 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구한말 내한하여 평생을 한국의 격변기와 함께 하며 고난 받는 한국인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었던 언더우드는 훗날 동상이 되어서도 이렇듯 격동의 한국사의 여러 장면들 마다 또 그 역사의 현장을 함께하며 수난과 아픔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다.

## 연세대학교 올드캠퍼스존(Old Campus Zone)

언더우드 동상을 **중심으로 해서** 담쟁이넝쿨이 가득 매운 고풍스런 석조건물들이 둘러싸고 있다. 언더우드 동상의 오른쪽에 위치한 건물은 연세대학교의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건물인 스팀슨관(Stimson館)이이

다. 1920년에 준공된 스티imson관은 사적 제275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연희전문학교 캠퍼스에 세워진 최초의 석조건물이다.

언더우드의 큰형인 존 토마스 언더우드(John Tomas Underwood)는 10만 달러를, L.A.의 찰스 스티imson(Charles S. M. Stimson)은 대학 설립용 자금으로 25,000달러를 학교에 기부하였다. 언더우드는 미국에 돌아가서 항구적인 교사 건립용 기부금 모금을 했는데, 스티imson에게서 위 기부금을 얻은 후 세상을 떠났으며, 후임 교장인 애비슨(O. R. Avison)이 이 기부금을 받아 스티imson관을 건립했다.

캠퍼스 마스터플랜과 교사동 설계는 미국 건축가인 헨리 머피(Henry Killian Murphy)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머피는 1877년에 미국 코네티컷주 뉴 헤븐에서 태어나 1899년에 예일 대학교 건축과를 졸업하였다. 그 후 뉴욕에서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1906년에 독립하였다. 1908년에 다나 2세와 함께 머피·다나 건축사무소를 개업하였고, 1920년부터는 머피·마가길·함린사무소를 경영하였으며 1924년부터는 단독 건축사무소를 운영하였다. 그는 1913년 12월부터 일본·중국·필리핀·한국에서 건축 활동을 했으며, 주로 미션계 대학 건축을 설계했다. 그가 연희전문학교 캠퍼스와 교사동을 설계한 시점은 머피·다나건축사무소를 운영할 때로 추정된다. 이 건물의 명칭은 기부금을 낸 스티imson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건물의 공사 감독자는 학교의 화학과 교수인 밀러(E. H. Miller)였다. 건물은 1919년 4월에 착공하여 1920년 8월에 준공되었으며, 지상 2층, 반지하층으로 건축 면적은 상당히 큰 규모였다. 이 건물의 컨셉은 이후 연희전문학교 건물 전체의 모델이 되었는데, 문헌에 의하면 언더우드의 모교인 미국 뉴욕대학교 건물의 분위기를 모티브로 하였다고 한다. 경영학과 과학 등 첨단기술 학문의 요람이자 상징이었던 뉴욕대학은 당시에는 전무했던 상과와 수물과의 연세 전통을 형성한 중요한 한 뿌리였던 셈이다.

스티imson관의 맞은편에 있는 아펜젤러관(Appengeller館, 사적 277호)은, 1885년에 제물포항으로 언더우드와 함께 내한한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 H. G. 아펜젤러(Henry Gerhard Appenzeller, 1858년 ~ 1902년)를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되었다. 아펜젤러는 최초의 내한 감리교 선교사로서 배재학당(培材學堂)을 설립하고 성서번역과 문서선교 등 교육과 다양한 선

교 사업에 업적을 남겼다. 건물 공사비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 피츠필드시에 있는 제일감리교회(First Methodist Church)의 기부금으로 충당하였다고 하는데, 미국 감리교계에서 지원된 것이었다. 아펜젤러관은 이학관(理學館)으로 연희전문캠퍼스에서 두 번째로 건립된 석조 건물로, 1921년 10월에 착공되어 1924년 가을에 준공되었다. 당시 조선감리교연회 감독으로 내한했던 웰치(H. Welch)감독이 초석을 놓았다. 80년대부터 2005년까지 신과대학 건물로 사용되어 오다가 현재는 사회복지대학원 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설계자는 스팀슨관과 같은 헨리 머피(Henry Killian Murphy)이며, 공사 감독관은 화학과 교수인 밀러(E. H. Miller)였다. 이 건물은 지상 2층, 지하 1층, 건축면적 425㎡(128.56평)의 규모로, 맞은편에 있는 스팀슨관과 유사한 규모와 형태이다. 내부 공간은 엄격히 좌우대칭이며 중복도형(中複道形)이다. 정면 중앙의 출입구는 튜더 아치(Tudor arch)이다. 창 테두리들은 다듬은 화강석으로 마감하였다. 지붕은 박공지붕이며, 슬레이트 마감이다. 다만 정면 중앙 출입구는 1층 높이에 페디먼트(pediment)를 설치하였고, 정면 양측에 베이 윈도우(bay window) 형태의 매스를 붙였다.

언더우드관(Underwood館, 사적 276호)은 설립자 H. G. 언더우드를 기념하기 위해 명명된 건물이다. 이 건물은 학관(學館)으로 일명 문학관이라 했다. 연희캠퍼스에서 스팀슨관·아펜젤러관에 이어 3번째 석조 건물이다. 연희전문학교의 초대 교장인 애비슨과 언더우드의 아들인 H. H. 언더우드(Horace Horton Underwood)이 함께 초석을 놓았다. 이 건물의 설계자 또한 헨리 머피이며, 공사 감독관도 밀러였다. 이 건물은 스팀슨관이 준공되고 나서 1921년 10월에 착공하여, 1925년 6월에 준공하였는데, 지상 3층(중앙탑 5층), 건축면적 693.4㎡(209.63평) 규모였다. 이 건물은 초기 마스터플랜상의 중심축인 백양로의 종점에 위치하여, 그 좌우에 스팀슨관과 아펜젤러관이 같이 있어, 캠퍼스 내에서 시각적 정점(terminal vista)을 형성한다.



올드 캠퍼스 존(Old Campus Zone)의 중심을 이루는 위치에 언더우드 의 동상이 있고, 동상을 중심으로 조성된 정원은 하늘에서 보면 미국(米國)의 ‘米’(미)자 형으로 구획되었다는 설과 영국국기인 유니온 잭(Union Jack)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는 학교의 초대교장인 언더우드와 2대 교장이 애비슨 모두가 영국 출신의 미국, 캐나다 이민자였다는 공통점이 반영된 결과였는지도 모르겠다. 고향은 영국이었으나 새로운 신생 국가를 경험했던 영원한 나그네들이 학교 안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조성한 은밀한 흔적이었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이 공간에서 미국이나 영국의 국가상징들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스팀슨관과 아펜젤러관, 언더우드관 모두에서 이미 몰락한 국가상징인 태극 문양을 적극적으로 각인,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3.1운동 직후인 1920년에 세워진 연세대 스팀슨관(Stimson Hall)의 현관문에는 십자가와 태극문양이 조합된 형태의 창문이 디자인되어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 일제시대 당시 연희전문학교의 교장이었던 애비슨 선교사 부부가 스팀슨관의 태극문양 문 앞에서 찍은 사진이 지금도 확인된다. 그리고, 건물들의 중심부와 코너 곳곳에 태극문양이 새겨져 있다. 이는 한국의 전통과 민족성을 존중하고 연희전문학교가 한국의 얼과 정신을 계승하는 민족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도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건물들은 1950년에 6.25 전쟁으로 소실되어 내부와 지붕부가 크게 파괴되었으나, 전후 복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올드캠퍼스존의 아랫 쪽에는 1927년 뉴욕의 한인교포들이 성금을 모아 보내준 기금으로 세운 돌계단이 온전히 남아있다. 계단 중앙부에 석각되어 있는 “뉴욕의 겨레로부터 부쳐줌”이라는 문구는 나라 잃은 설움을 함께 극복해 보려던 해외 동포들의 의지를 느끼게 해준다.

언더우드관 뒤편으로는 6.25 전쟁 이후 건립된 연희관, 유억겸기념관, 성암관 등의 석조 건물들도 담쟁이로 둘러 싸여 방문자들을 반긴다. 사회과학대학으로 사용되는 연희관은 ‘연세’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역사에 묻히게 된 ‘연희대학’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명명되었고, 유억겸 기념관은 3.1운동 직후 연희전문에 부임하여 ‘법학’교육의 전통을 세운 유억겸 교수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세워진 이 건물들은 독특하게 ‘무궁화’ 문양이 곳곳에 새겨져 있다. 그러므로 언더우드 동

상 주변의 건물에는 태극문양, 뒤편에는 무궁화 문양이 어우러진 민족 사랑의 의지가 담긴 공간이 아닐 수 없다.

## 청송대와 1930년대 선교사 양관 단지

"오늘도 하늘은 더할 나위 없이 맑고, 우리 연전(延專) 일대를 덮은  
신록은 어제보다도 한층 더 깨끗하고 신선하고 생기 있는 듯하다."

- 이양하, 신록예찬 中

영문학자 이양하(李敷河: 연희전문학교 문과교수)가 쓴 '신록예찬'이라는 수필의 배경이 된 '청송대' 숲을 걸어보는 것도 추천하고 싶다. <성서조선>을 창간해 '조와(弔蛙)'라는 글로 일제에게 큰 고초를 당한 바 있는 김교신(金教臣)도 이



곳 청송대를 거닐며 그 아름다움을 극찬한 바 있다. 원래 이곳은 조선시대 당시 '들을 청(聽)에 송사 송(訟)을 써서 '억울한 사연을 듣는 곳'이라는 뜻의 '청송대(聽訟臺)'로 전해졌다고 한다. 하지만 훗날 '소나무의 소리를 듣는 언덕'이라는 뜻의 '청송대(聽松臺)'로 새롭게 명명되어 오늘에 이른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푸른 소나무'라는 뜻의 '청송(靑松)'을 연상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아마도 연세대 초대총장 백낙준 박사가 그 표현을 즐겨 사용한 때문이 아닐까?

내가 악필이 되어서 잘 쓰지 못하지만 내 가진 생각을 써 놓은 글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것이 동문회 사무실에 걸려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쓴 글은 이렇습니다. "무악제의 어린 솔은 날마다 자라고 있고, 연세의 노송은 영원히 푸르고 있다.(毋岳松日日長, 延世老松永世靑)" 노송은 나이로서 노송이 아니라 졸업생으로 연세의 노송들입니다. 이 노송은 늙은 줄을 모르고 영세에 늘 푸르고

있습니다. 노송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애국가 가사를 조금 바꿔 부르면 ‘청송대(靑松臺)의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이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이것이 연세의 청송정신(靑松精神)이요, 이 정신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회와 국가와 세계에 발휘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백낙준전집3』,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9, p.521.)

청송대 숲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한 때 원일한 박사(언더우드 3세)의 신흠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했던 ‘총장공관’, 그리고 원일한 박사가 마지막 생을 보낸 총장공관 건너편 석조 주택(구 선교사 양관), 현재 원한석 선생(언더우드 4세)이 거주하고 있는 선교사 양관 등 1930년대 건물 3동의 운치 있는 풍경을 엿볼 수 있다.

## 운동주 시비와 핀슨홀의 운동주 기념실



스팀슨관 뒤쪽으로 서 있는 한경관(교직원식당) 옆으로 빨간 녹물이 흐르는 청석으로 축조된 석조 건물이 보인다. 바로 연희전문학교 창립초기에 큰 역할을 했던 미 남감리교 총무 핀슨 박사를 기념하기 위해 명명된 핀슨홀(Pinson Hall)이다. 이 건물은 1922년에 학생기숙사로 준공되었다.

1938년 운동주가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한 이후, 그는 이곳 핀슨홀에서 생활하면서, 사색과 고뇌를 통해 시 쓰기에 전념했다. 운동주는 송몽규, 강처중과 핀슨홀 3층 맨 왼쪽 지붕 밑 방을 함께 쓰면서 학교생활을 시작했다. 현재 이 건물의 2층에는 당시 운동주와 관련된 자료들과 유물들을 전시하는 운동주 기념실을 꾸며놓았다. 이 기념실의 전시물들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만주 용정마을에서 가져온 운동주 생가 지붕의 막새기와이다. 막새기와 가운데에는 삼태극이 있고 주변으로 십자가와 무궁화가 함께 각인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또한 기독교 신앙(십자가)을 통한 민족 구원(삼태극, 무궁화)의 의지를 만주 용정의 기독교 신앙공동체에서 확고히 했던 결과였다. 운동주의 시와 문학은 바로 이러한 기독교신앙과 민족정신의 조화 속에서 탄생한 열매들이었다.

이런 연유로 운동주의 시비 또한 핀슨홀 앞뜰에 건립(1968년)되었으며 연세대학교 학생과 동문뿐만 아니라, 수많은 내.외국인이 시인의 자취를 찾기 위해 운동주 시비와 함께 운동주 기념실을 찾고 있다.

## 언더우드家 기념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관과 이과대를 돌아 생활과학대학(삼성관)에 도착하면 막다른 길 앞에 작은 돌다리 하나가 놓여있다. 그 다리를 건너면 울창한 플라타너스, 단풍나무, 이태리 포플러, 아카시아 숲속에 자리한 이국적 양관 하나를 마주하게 된다.



막다른 길, 더 이상 길이 없는 숲속 깊숙이 비밀의 정원이 숨겨져 있는 듯하다. 너른 잔디밭에는 간간히 새들이 노닐고, 한적하고 평온하기 그지없는 이곳은 바로 연희전문학교 교수와 3대 교장을 역임했던 언더우드 2세(원한경)의 저택이다.

원래 남대문 밖 복숭아골(세브란스병원 인근)에 거주해 왔던 언더우드 가족은 연희전문학교의 설립과 함께 다소 먼 출.퇴근길을 감수해야 했다. 당시만 해도 서울 중심부에서 신촌까지 오가는 것은 여러 모로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일이었다. 그래서 연희전문교수로 재직하던 원한경은 남대문의 저택을 포기하고 연희전문학교 바로 옆 연희동 언덕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미게 되었다. 이 건물은 연희전문학교가 어느 정도의 캠퍼스를 구비하고 안정기에 접어들었던 1927년에 준공되었다.

이 집에 언더우드 1세(원두우)가 거주한 적은 없다. 1916년에 별세한

언더우드 1세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동안 주로 정동과 남대문에서 거주했다. 언더우드 1세의 체취를 느끼고 싶어 방문한 이들에게는 다소 실망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언더우드 1세가 거주했던 정동사택 부지는 지금 예원학교 운동장이 되어 있고, 남대문밖 저택도 6.25때 완전 소실되어 흔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연희동에 있는 언더우드 가문의 세 번째 저택은 비록 1세가 거주한 바 없다는 아쉬움은 있겠지만, 언더우드 일가가 한국에서 활동한 119년의 역사 중에서 반세기에 해당하는 49년을 거주했다. 1927년에 원한경 가족이 입주했으며, 언더우드 3세(원일한)가 부인과 함께 거주하다가 부인 조안(Joan)여사 별세한 1976년까지 거주했다. 그리고 보면 언더우드 가문의 3대가 가장 오래 거주한 저택이라는 의미에서 이곳도 충분한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있다.

이 건물은 원래 2층과 다락방을 가진 나름 웅장한 저택이었는데,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이 주둔하면서 서울수복 당시 연합군의 폭격을 맞아 지붕이 모두 내려앉았다. 그래서 1950년대 후반에 1층만 리모델링을 하고 2층 부분은 다락으로 대체해 버렸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은 초창기의 언더우드 가족의 생활을 여실히 느껴볼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다만, 2층 다락방에 올라가보면 6.25 전쟁 당시 피폭된 흔적들이 벽 곳곳에 남아 있어, 전쟁의 상흔과 참상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이곳은 연희전문학교 교수였던 원한경과 그의 부인 와그너(Mrs. Ethel Van Wagoner Underwood)여사가 함께 거주하면서 연전 교수들의 회의 장소로, 영문학과 교수였던 와그너의 제자들이 야외수업으로 자주 활용되었다고 한다. 연전 영문과 재학 중이던 운동주도 바로 이 곳 마당 잔디밭에서 함께 영시를 읽고 시심을 키웠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곳은 한국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현장이기도 하다. 1949년 3월 17일, 남한 단독정부수립에 대한 불만을 품은 연희전문학교의 좌익 학생들이 난입하여 원한경 박사의 부인인 와그너 여사가 피살된 것이다. 이는 한미수교 이래, 한국인에 의해서 일어난 최초의 미국인 살해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충격은 당시 대단한 것이었다. 제자들에게 아내를 잃은 원한경 박사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갔고, 1년 후에 터진 6.25 전쟁 소식을 듣고 UN고문단 자격으로 부산에서 피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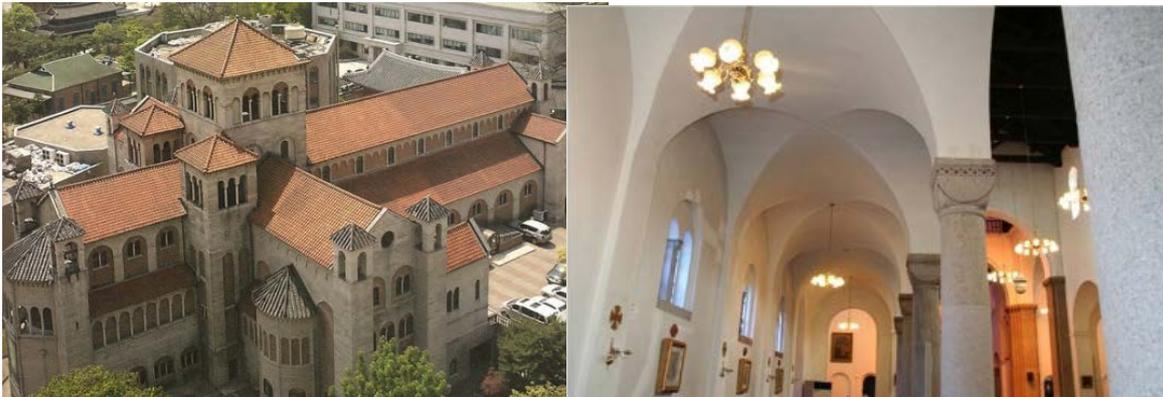
민 구호사업을 전개하다 본인도 과로사하고 말았다. 언더우드 2세 부부는 일제시대의 엄혹한 탄압과정 속에서도 교육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추방되는 시련을 겪었고, 결국 해방이후의 좌우분열시기와 6.25전쟁의 참화 속에서 안타깝게 생애를 마감해야 했다.

이곳은 현재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기념사업회에서 언더우드가문의 119년에 이르는 4대에 걸친 한국을 위한 헌신과 봉사를 기념하기 위해 ‘언더우드家 기념관’으로 명명하여 언더우드 1세부터 4세까지 각 세대별 역사와 활동을 세세히 엿 볼 수 있도록 각종 자료와 유물을 전시해 놓고 있다. 언더우드 가문의 삶의 체취와 그들의 한국에서의 헌신을 느끼기에 충분한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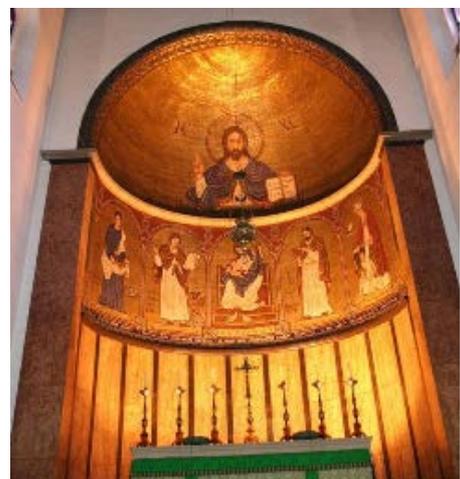
## ■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덕수궁과 서울시의회 건물 사이로 나 있는 좁은 골목길로 돌아 들어가면 뜻밖의 건축물에 압도되어 숨을 멎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웅장하면서도 아름다운 한국 최초의 로마네스크 건물,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로마네스크 건축이란 10세기 후반에서 12세기 중엽까지 유행한 건축양식으로, 고대 로마인(Roman)의 석조 건축과 닮은 모양(Esque)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붕에 거대한 아치 형태의 돔을 올리고, 그 무게를 견딜 수 있게 벽을 매우 두껍게 하고 창문은 최소화하거나 생략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후 건축 기술의 발달로 벽은 얇고 천장은 높게 만든 고딕양식과 비교하여 육중한 느낌이 들고, 중후한 멋이 느껴지는 건축양식이다.



성공회 대성당 내부에는 10년을 공들인 비잔틴 양식의 모자이크 성화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성인 및 예언자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수 놓여 있다. 또한 창문에는 한국의 격자무늬를 본 따 제작된 스테인드글라스가 바깥의 빛을 은은하게 전달해 주고 있으며, 몇몇 소탑의 지붕을 회색 조선기와로 올리고 지붕 처마를 서까래 형태로 돌출을 깎아 장식했다. 한마디로 서양 중세 시대의 건축미술과 한국의 전통의 미가 한데



어우러진 걸작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 세워진 최초의 로마네스크 건물인 성공회 대성당은 1926년 착공된 건물이지만, 처음 설계대로 완성되기까지는 70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바르셀로나에 100년 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Sagrada Familia) 성당이 있다면, 서울에는 성공회 대성당이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성공회 대성당의 완공 스토리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지지부진한 공사 스토리보다 더욱 극적이고 감동적이다. 70년만의 완공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미뤄두기로 하고, 우선 성공회가 한국에 들어와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성공회란?

성공회란 기독교(개신교)<sup>13)</sup> 교파 가운데 하나로 영국에서 시작된 교회로서 영국 국교회라고 불리기도 한다. 세계 성공회의 기원이 되는 영국 교회(The Church of England)는 16세기 유럽에 시작된 종교개혁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마르틴 루터 등의 대륙 종교개혁 사상이 일찍부터 전해져 영국 내에서도 개혁이 움트고 있었다. 특히 당시 영국을 지배하던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반대와 반성직자 운동이 이미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결국 영국 교회의 정치적 분립은 흔히 이야기되는 혼인무효(annulment)와 관련한 영국 왕 헨리 8세의 개인적 문제가 아닌, 당시 유럽의 국제 관계와 근대 왕정 국가의 탄생,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적인 영향으로 이뤄졌다. 1534년 영국 왕 헨리 8세는 수장령을 선포하여, 영국 교회의 독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때를 곧장 영국 교회의 성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후에 영국 교회는 다시 로마 가톨릭 교회로 복귀했

---

13) 개신교(改新敎)란 16세기에 루터, 츠빙글리, 칼빈 등이 종교개혁을 일으켜 로마가톨릭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기독교를 일컫는 말로,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Protestant)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로마가톨릭을 천주교로, 개신교를 기독교로 통칭하지만, 사실 영어에서 기독교(Christianity)란 가톨릭(Catholic)과 개신교(Protestant)를 모두 포괄하는 말이며, 프로테스탄트만을 일컬을 때는 개신교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다.

다가, 엘리자베스 1세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정착했기 때문이다.

유럽의 여러 종교개혁과 마찬가지로 영국의 종교개혁도 정치 상황과 신학 운동이 결합하여 일어났다. 신학에서는 초기에 마르틴 루터의 신학이 영향을 미쳤으며, 후기에는 칼뱅주의를 따르는 청교도의 세력이 성장했다. 그러나 영국 교회 종교개혁은 대륙의 사변적인 신학 논쟁보다는 교회의 예배 생활, 즉 전례를 통한 개혁이 중심을 이루었다. 이 전례 개혁은 토머스 크랜머 대주교가 이끌었고, 그 결과물이 공동 기도서(The Book of Common Prayer)이다. 공동 기도서는 성공회의 신앙생활, 예배 생활, 신학과 영성의 중요한 바탕이 된다.<sup>14)</sup>

영국 종교개혁의 흐름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한때 헨리 8세는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여 가톨릭으로 회귀하고자 하였으나, 1546년 건강악화로 사망하고 만다. 헨리 8세의 뒤를 이어 에드워드 6세가 왕위에 올랐으나, 9살에 불과하여 누군가 섭정을 해야 했고, 가톨릭 측의 섭정이 예상되었으나 개신교 측의 대응으로 에드워드의 삼촌 서머셋 공작이 섭정하게 되면서 국교회의 종교 개혁은 계속된다. 하지만 에드워드 6세가 15세의 어린 나이로 사망하게 되고, 추밀원(국왕 측근의 소수 귀족으로 구성된 정치적 자문기구)은 헨리 8세의 질녀를 즉위시키려 했으나 반란으로 메리 1세가 1553년 왕권을 획득하여 가톨릭을 다시 국교로 삼고 매서운 개신교 박해의 회오리를 몰고 왔다. 메리는 재위기간동안 3백 명이 넘는 개신교인(국교회)을 학살하여 ‘피의 메리(Bloody Mary)’라는 별명을 얻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1558년 강력한 가톨릭 정책을 추진하던 메리 1세가 그만 사망하고 만다. 이는 영국 가톨릭에게는 최악의 불행이었고, 개신교에게는 최고의 행운이 된 사건이었다. 메리 1세가 사망한 뒤, 온건한 개신교도인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하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수장법’을 복원하면서 국교회를 확립한다.<sup>15)</sup>

성공회 교회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첫째, 종교개혁을 통한 다른 개신교 교파들(장로교, 루터교 등)보다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측면이

---

14) 위키백과, 성공회 항목.

15) Peter Marshall, *The Impact of the English Reformation, 1500-1640* (New York: Distributed exclusively in the USA by St. Martin's Press, 1997) 참조하여 정리.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며, 둘째, 1603년 39개조로 정리 발표된 신학은 칼빈의 신학에 바탕을 둔 개신교적인 성향이 강했고, 셋째, 성직 위계 제도, 주교좌, 주교법정 등의 교회제도 및 성직복, 성찬 등의 예배 형식은 여전히 가톨릭과 같은 모습이었다. 결국 신학적으로는 개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제도적·형식적으로는 가톨릭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sup>16)</sup>

이렇게 국교회 안에 가톨릭적 요소가 많이 남아있게 되자, 개신교인들은 반감을 나타내기도 했으며, 특히 열광적 개신교도(청교도)들은 국교회를 정화시키고자 1572년 의회에 탄원을 내기도 하였다. 이후 가톨릭은 영국에서 5% 미만의 소수세력으로 전락하게 되며, 열광적 개신교도들(청교도)도 소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국민 대부분은 국교회를 받아들였다.<sup>17)</sup>

## 2. 성공회의 한국 선교

가톨릭적인 요소와 개신교적인 요소를 두루 갖게 된 국교회, 즉 성공회는 영국의 국교로 자리매김하여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17세기부터 해외 영연방 국가에서 살고 있는 영국인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1701년 마침내 성공회 산하에 해외복음전도협회(The Society for the Propagation of the Gospel, SPG)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점차 그 선교 대상을 외국인에게 확대하였다.<sup>18)</sup> 그리고 바로 이 해외복음전도협회를 통해 한국에도 성공회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된다.<sup>19)</sup>

---

16) Christopher Haigh, "The Reformation in England to 1603," R. Po-Chia Hsia, ed., *A Companion to the Reformation world* (Oxford: Blackwell Publishing, 2004), 135-149.

17) Christopher Haigh, "The Reformation in England to 1603," R. Po-Chia Hsia, ed., *A Companion to the Reformation world* (Oxford: Blackwell Publishing, 2004), 148.

18) SPG의 활동에 대해서는 Charles Frederick Pascoe의 *Two Hundred Years of the S. P. G.: An Historical Account of the Society for the Propagation of the Gospel in Foreign Parts, 1701-1900* (the Society's office, 1901)를 참고할 수 있다.

한국에 처음 성공회가 들어온 것은 1885년으로, 당시 중국 푸저우(福州)에서 활동하던 울프(J. R. Wolfe) 선교사가 우연히 일본에 들렀다가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알렌(Horace N. Allen) 박사를 만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알렌은 1884년 개신교 선교사로는 최초로 내한하여 활동한 장로교 선교사로, 의료선교에 헌신하여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세브란스병원의 전신)을 세우고 후에는 미국 공사관으로 자리를 옮겨 한미외교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었다. 알렌을 통해 고종이 선교를 유히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울프는 한국 선교를 결심하고 1885년 두 명의 중국인 전도사와 함께 부산에 정착하여 선교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보수적 유교의 영향이 강한 경상도 지역에서 새로운 신앙을 전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거기에 재정적 어려움이 겹쳐 결국 철수하고 만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에서 활동하는 성공회 선교사들이 본국에 지속적으로 한국 선교를 청원하면서, 결국 1889년 해외복음전도협회는 한국 선교를 결정하고 재정을 마련하여, 코프(Charles John Corfe, 고요한)를 한국 초대 주교로 서품하면서 한국 선교가 시작되었다.<sup>20)</sup>

코프 주교는 영국해군에서 활동한 바 있었는데, 코프의 한국 선교가 결정되자 해군 동료들이 ‘해군병원기금(The Hospital Naval Fund)’이라는 단체를 마련하여 한국의 성공회 선교와 병원설립을 도와주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이 기금을 통해 한국에 의료선교를 시작하기 위해 전 군의관 외과 의사였던 와일즈(Julius Wiles)가 선교사로 자원하여 성공회 선교사로서는 가장 먼저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된다.<sup>21)</sup> 그리고 이후 코프 주교와

---

19) 19세기에 들어서면 영국은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 대국이 되는데, 인도, 중국,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순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였고, 인도에 408명, 중국에 30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었다. Bliss, *Encyclopaedia of Missions*, II, 620-624, James A. Field, Jr., “Near East Notes and Far East Queries,” John K. Fairbank, ed., *The Missionary Enterprise in China and America*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36-37의 표 참조.

20) Mark Napier Trollope, *The Church in Corea* (London: A. R. Mowbray & Co. Ltd, 1915), 29.

21) Mark Napier Trollope, *The Church in Corea* (London: A. R. Mowbray & Co. Ltd, 1915), 37

다른 선교사들이 차례로 내한하여 서울, 제물포(인천), 강화도를 중심으로 선교사업을 전개해 나갔다.

### 3. 정동의 대성당 건축

서울에서는 두 곳에 성공회 선교 대지가 마련되었다. 하나는 바로 현재 성공회 대성당이 들어서 있는 곳으로 영국대사관에 인접한 정동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낙동으로 현재 회현사거리 북서쪽에 해당하는 자리였다. 1890년 정동에는 한옥 건물에 십자가를 달아 성당을 세웠고, 낙동에는 선교사들의 사택과 선교본부가 들어섰다.<sup>22)</sup> 정동의 성당은 장림성당(The Church of Advent)으로 명명되었으며, 처음부터 한국에 있는 서양인, 한국인, 일본인을 위한 예배의 장소로 계획되어 성장해 나갔다. 그리고 정동의 대지는 이후 한국에 들어온 성베드로수녀회 소속 수녀들의 거처를 마련하고 또한 주교와 사제들의 공관을 건립하기 위해 근처 고옥을 구입함으로써 점차 확대되었고, 이후에는 장림성당 부속 건물에 여성 전용 병원인 성 베드로 병원이 들어서게 되어 성당과 함께 의료선교의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sup>23)</sup>

1900년대에 들어서 한국인 신자의 수가 점차 증가하게 되고 한국인 성직자들도 탄생하게 되면서, “서로 다른 민족(한국인, 일본인, 영국인)의 신자들이 서울에서 별도로 흩어져 작은 기도소를 지켜나가는 것을 지양하고 한 성당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동에 웅대한 대성당을 건축하는 논의가 시작되었다.<sup>24)</sup> 그리고 1910년 영국의 몽고메리(Montgomery) 주교가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약 5천 파운드의 예산으로 건축을 해 나가는 것이 발의되었다.<sup>25)</sup> 하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1차 세계 대전의 발발로 미뤄지다가 1920년대에 들어 한국 성공회의 3대 주교가

22) 이재정, 『대한성공회 백년사 (1890-1990)』 (서울: 대한성공회출판부, 1990), 38.

23) Mark Napier Trollope, *The Church in Korea* (London: A. R. Mowbray & Co. Ltd, 1915),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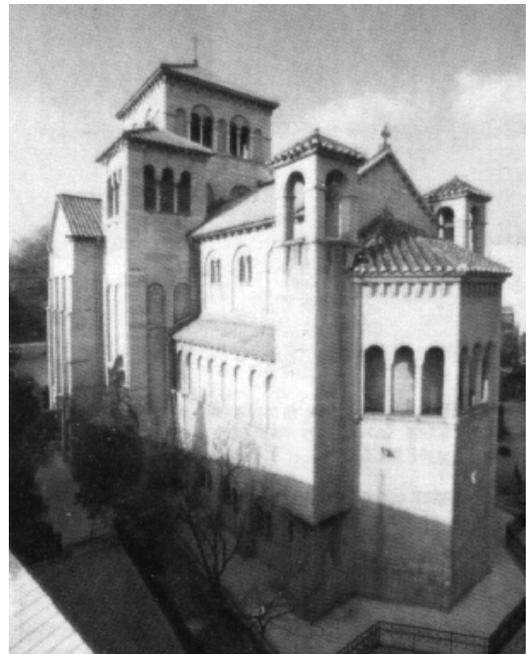
24) Constance Trollope, *Mark Napier Trollope* (London: SPCK, 1936), 63.

25) “Editorial Notes,” *The Morning Calm*, vol.22, no.128 (April, 1911), 38.

된 트롤로프(Mark Napier Trollope, 조마가)에 의해 시작되었다. 트롤로프 주교는 이미 1912년부터 기금을 마련하고 버밍햄 출신이자 영국 왕립 건축학회 회원이던 건축사 아서 디슨(Arthur Dixon)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교회를 설계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 첫째, 한국 교회 활동을 고무하고, 전국의 신자들에게 전도의 열의를 일으키고 용기를 줄 수 있는 하나의 유형의 중심체가 되어야 하고,
- 둘째, 어떤 민족이건 간에 서로 언어가 다르더라도 교회를 통해 하나의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하며,
- 셋째, 전국 교회의 하나의 규범이 되고 절차에 맞는 예전적인 예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하고,
- 넷째, 미래 교회 건축의 하나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sup>26)</sup>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을 방문하여 건축 대지를 검토한 디슨은 1917년 설계를 완성하였고, 1922년 9월 24일 일요일 마침내 정초식을 가질 수 있었다.<sup>27)</sup> 당시 한국에 들어와 있던 성공회 선교사들은 가톨릭 전례와 교부신학을 중시하는 19세기 ‘옥스퍼드 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디슨 역시 ‘옥스퍼드 출신’으로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당시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는 고딕양식의 건축이 유행하고 있었던 데 반해(예를 들어, 가톨릭의 명동성당은 전형적인 고딕양식의 건축물이다), 옥스퍼드 출신들은 좀 더 고전적인 로마네스크 양식을 선호하였고, 결국 서울의 성공회 대성당은 바로



26) Constance Trollope, Mark Napier Trollope, 64-65, 이재정, 『대한성공회 백년사』, 134-135에서 재인용.

27) “主教通信,” 「朝鮮聖公會月報」 no.59 (1922.11.28), 2-4, 이재정, 『대한성공회 백년사』, 136에서 재인용.

이런 영향 아래 로마네스크 양식이 도입되었다.<sup>28)</sup>

하지만 건축비 마련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로마네스크 양식의 경우 석조 건물을 골조로 하는데, 석조 건물의 경우 어떤 건축 양식보다도 돈이 더 들어간다. 결국 1926년 축성된 대성당은 트롤로프가 계획하고 덕슨이 설계한 원 도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로 축소되어 마무리되었다. 본래 대성당은 가로보다 세로의 길이가 긴 라틴 십자형으로 설계되었으나, 가로에 해당하는 양쪽 익랑이 생략되었고, 세로의 길이도 원안의 3분의 1밖에 지을 수 없어, 사실 십자형이라기보다는 거의 일자형에 가까운 형태가 되었다. 이렇게 미완성으로 건축을 마무리하면서 트롤로프는 새로 지은 성당을 ‘예비 대성당(Pro-Cathedral)’이라 이름 붙였지만, 그 아름다움에 있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다.<sup>29)</sup>

#### 4. 70년만의 완공 이야기

트롤로프의 이러한 못다 이룬 꿈은 7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한국인 사제와 교인들은 언젠가는 대성당을 완공시켜 트롤로프의 꿈을 실현하고자 염원하였다. 이에 1975년 서울교구가 성공회관을 건립할 때에도 증축되어 완공될 성당의 규모를 염두에 두고 그 만큼의 토지를 비워둔 채 지었다. 그리고 1993년 4월 대한성공회 관구가 설립되고 초대 관구장으로 김성수 주교가 취임한 것을 계기로 ‘서울주교좌성당’ 완공을 위한 건축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sup>30)</sup> 건축은 덕슨의 원 설계대로 완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국내에 남아있는 자료라고는 덕슨이 구상했던 대성당의 축소모형을 찍은 사진 4장뿐이었다. 설계를 맡은 건축사무소는 이 4장의 사진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더해 설계도면을 그려나갔다. 하지만 그렇게 설계를 해 나가던 중, 서울시는 대성당 건물을 서

28) 이덕주, 『개화와 선교의 요람: 정동이야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138.

29) 이재정, 『대한성공회 백년사 (1890-1990)』 (서울: 대한성공회출판부, 1990), 139-140.

30) 이덕주, 『개화와 선교의 요람: 정동이야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146.

울시 지방유형문화재 35호로 지정하였고, 문화재위원회는 “미완성인 형태로 문화재가 되었기 변형은 불가능하다. 설혹 미완성 건물이라 해도 그 사실을 증명할 원 설계도가 없는 한 증축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버렸다.<sup>31)</sup>

덕슨의 원 설계도가 없다면 증축은 불가능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그런데 이때 뜻밖의 손님이 대성당을 찾아와 놀라운 소식을 전해준다. 다음은 당시 서울대성당 건축위원장을 맡았던 최기준 회장의 회고이다.

참으로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성당 건축 계획이 발표되고 신자들의 헌금 봉헌이 진행되는 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문화재 당국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우리는 기도만 할 뿐이었지요. 그런데 1993년 7월 어느 주일날,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낯선 영국인 관광객이 찾아와 성당을 구경하기를 원했습니다. 미사가 끝난 뒤에 성당을 구경하라고 권유하였지만 시간이 없다며 잠깐만이라도 보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도서관에 이 성당 건축도면이 보관되어 있어서 서울 관광 중에 짬을 내 들렀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에 쫓겨 황급히 떠나면서 명함 한 장을 놓고 간 그 영국인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使者)였습니다.<sup>32)</sup>

기적 같은 일이었다. 원 설계도가 없어 증축의 길이 영영 막혀버리는가 단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영국의 조그만 도서관에 수 십 년간 잠들어 있던 설계도가 기적처럼 한국 성공회 앞에 나타난 것이다. 명함을 받아든 건축위원회 위원들은 곧바로 대표단을 꾸려 그 영국 신사가 근무하는 런던 교외에 위치한 렉싱턴 도서관으로 날아갔고, 그들은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사과상자 두 개 분량의 설계도면을 복사하여 가지고 들어왔다. 설계도를 확인한 문화재청은 증축을 허락하였고, 1994년 착공하여 2

---

31) 이덕주, 『개화와 선교의 요람: 정동이야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147.

32) 이덕주, 『개화와 선교의 요람: 정동이야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147에서 재인용.

년 만인 1996년 5월 2일, 70년 전 트롤로프 주교가 미완성으로 대성당을 축성한 바로 그날, 완공식을 가졌다. 70년이라는 시간차가 나는 옛 건물과 새 건물을 안정적으로 결합시키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1926년 기둥과 벽면은 강화산 화강암을 사용했지만, 더 이상 생산되지 않아 이와 가장 유사한 중국 청도산 화강암을 수입해 왔고, 벽돌은 경기도 화성 흙을 장작불로 구워 만들었다.<sup>33)</sup> 이런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성공회 대성당은 원안대로 라틴 십자형의 웅장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 5. 대성당 둘러보기

대성당은 밖에서만 바라봐도 마치 피렌체에 온 것 같은 착각을 가져다 줄 정도로 이국적이고 아름답지만, 성당 안에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아름다운 장식과 그림들이 많이 있다. 우선, 대성당 내부에 들어가면 기도자들을 위해 항상 열려 있는 지하 성당이 있다. 일단 그 곳에 내려가 보자. 지하 예배당 바닥을 보



면 가운데에 황금색 동판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밑에는 1926년 대성당 완공 후 4년 뒤인 1930년 숨진 트롤로프 주교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서울 사대문 안에 묘지를 쓸 수 없었다. 이에 개신교 선교사들 가운데 한국에서 순직한 사람들은 모두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매장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 일본과 영국의 긴밀한 관계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트롤로프 주교와 총독부의 가까운 관계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으나, 트롤로프는 사대문 안 대성당 안에 안장될

33) 이덕주, 『개화와 선교의 요람: 정동이야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150.

수 있었다. 지하성당의 제대와 십자가, 촛대, 성막등(Hanging Lamp)은 한국 2대 주교였던 터너 선교사를 기념하여 그의 영국 친구들이 보내온 것이다. 한편, 이제 본당으로 올라가 보자. 본당의 후진(성당의 동쪽 끝에 있는 반원형 부분)에는 10년에 걸쳐 완성된 아름다운 금빛 모자이크 성화를 볼 수 있는데, 이는 덕슨과의 협의 아래 조지 잭(George Jack)이 설계와 제작을 담당한 것이다. 조지 잭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성당의 성안드레 채플의 장식을 담당한 사람으로 이미 유럽에서 유명한 예술가였는데, 그는 5-12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유행했던 모자이크 형태, 특히 시실리의 몬레알과 세팔루에 있는 모자이크 전통을 따라 디자인하였다.<sup>34)</sup> 모자이크의 시공은 잭의 제자였던 조시(Josey)가 맡았는데, 그는 영국에서 특수 제작한 색유리 구슬을 사용하였다. 또한 주교좌는 덕슨이 직접 설계한 것이며, 화강암으로 쌓은 대제단은 영국과 스코틀랜드 대주교 14명이 기증한 것이다. 2톤이나 되는 성당의 종은 영국에서 익명을 요구한 교우가 기증하였는데, 이 종은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종 제작소였던 로오프·바로오에서 제작되었다.<sup>35)</sup> 한편, 본당의 서쪽 익랑에는 한국전쟁 때 전사한 영국과 아일랜드 군인들을 기념하는 소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위에 놓인 20cm 높이의 은자개 십자가는 본래 선교 초기 영국의 수녀가 가져온 것이었는데, 한국 전쟁 당시 부서진 채 버려진 것을 아일랜드 병사가 주워 본국에 가져가 복원하여 돌려준 것이다. 1641년 제작된 것으로 300년이 넘는 유물이다. 이렇게 성공회 대성당은 건물의 건축에서부터 예배당 내부의 실내 장식에 이르기까지 당시 영국과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축가와 예술가들이 참여하였고, 그 결과 아시아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름다운 중세 양식의 예배당이 완성되었다.

## 6. 성공회가 한국 현대사에서 접하는 위치

34) "The Cathedral of SS. Mary and Nicolas, Seoul," *The Morning Calm*, vol.36, no.183 (April, 1925), 24-25.

35) 이재정, 『대한성공회 백년사 (1890-1990)』 (서울: 대한성공회출판부, 1990), 139.

성공회 대성당은 이후 한국 현대사의 중심에 서 있었다. 비록 일제강점기 당시 영국과 일본과의 우호관계 때문에 성공회 선교사들은 민족주의 운동을 관망하는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지만, 한국 교인들은 달랐다. 3·1운동 당시 정동 성니콜라관에 기숙하며 경성제1고등보통학교를 다니던 홍순복은 파고다공원 독립운동에서 동원책을 맡았으며, 다른 성공회 기숙 학생들을 이끌고 독립기원 기도를 드리다 체포되었고, 충남 안중교회의 이택화의 경우도 상해 임시정부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군자금 모금 요원으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5년간 형무소에서 징역을 살았다. 병천 교회의 유치원도 병천의 3·1운동을 이끌기도 하였다.<sup>36)</sup> 또한 한국 전쟁 당시, 성공회 선교사들은 서울을 떠나지 못한 교인들과 함께하기 위해 함께 서울에 남았고, 결국 대한성공회 주교 쿠퍼(Alfred Cecil Cooper)를 비롯하여, 서울 대성당 주임사제 윤달용 신부, 이부비 수녀원장, 마리아 클라라 수녀, 힌트(C. Hunt) 총감사제, 그리고 인천에 있던 이원창, 조용호, 리(A. W. Lee) 신부가 등이 체포되어 쿠퍼 주교를 제외한 모든 신부, 수녀들이 사망하였다.

그리고 유신시대 말기인 1979년 9월에는 ‘선교 자유를 위한 기도회’가 열린 것을 시작으로, 이후 신군부 시대까지 10년 동안 대성당은 사국 기도회와 농성장소로 그 역사적 소임을 다 하였다. 특히 1987년 6월 10일 소위 ‘6월 민주항쟁’의 시발점으로 일컬어지는 ‘군부독재 타도와 민주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가 이곳 대성당에서 개최됨으로써 성공회 대성당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성지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대한성공회는 한국 민주화 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종교 단체의 하나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여담이지만 6·10 범국민대회 당시 성공회성당은 대회 3일전인 6월 7일부터 경찰병력이 총동원되어 봉쇄되어 있었다. 따라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의 상임위원들은 각자 연금, 미행 등을 따돌리고 성당으로 진입해야만 했다. 다음은 유시춘의 성당 진입 이야기이다.

순간적인 기지와 거짓말로 가까스로 형사들로부터 놓여난 그녀는

36) 이재정, 『대한성공회 백년사 (1890-1990)』 (서울: 대한성공회출판부, 1990), 144-146.

7일 밤을 친지집에서 자고 8일 새벽 성공회로 접근했다. 이미 철통 방어선이 겹겹으로 막아선 성당 앞에서 그녀는 성당 내의 주임신부 가족들은 출입이 가능하리라는 추측으로 박종기 신부의 아들과 전화로 각본을 짰다. 신부의 아들이 얼마 후에 성당 출입문에 나타나자 그녀는 안을 향해 소리쳤다. “미안해서 어떻게 해. 새벽기도시간에 늦었네.” 그러자 출입문 안쪽의 청년이 쪽문을 밀치고 나와 동동거리고 있는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면서 안으로 끌어들였다. “피아노 반주자가 지금 오면 어떡해요?” 막아선 전경들이 어어어 하는 사이 그녀는 짹짹 성당안으로 들어갔다. 청년과 유시춘은 마주보고 씨익 웃었다.<sup>37)</sup>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이야기하자면 세실레스토랑 역시 빼놓을 수 없다. 대성당 부속 건물 지하에 위치한 이곳의 이름은 성공회 주교였던 세실 쿠퍼(Alfred Cecil Cooper)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이곳은 80년대 중반부터 민주화운동



인사들에게 아지트나 다름없는 곳으로 시국 기자회견장이라는 명성을 얻어왔다. 시내 한복판에 있고 대중교통이 편리한데다 영국대사관 방향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뒷문이 있어 경찰이 들이닥칠 경우엔 도망치기도 좋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이곳에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의 집행부들이 머리를 맞대고 6·10 항쟁을 준비한 이후 이곳은 현대사에서 굵직 굵직한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등이 단골로 이루어져왔다. 지금은 고인이 된 노무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가 90년 11월 국가보안법 철폐와 노태우 정권의 퇴진을 요구했던 곳도 여기였으며, 고 김근태 의원이 93년 6월 5·18 광주민주화항쟁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했던 곳도 여기, 세실레스토랑이었다. 덕분에 “00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

3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월 항쟁을 기록하다 -3』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 6월민주화항쟁계승사업회 2007), 223.

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로 시작되는 문장은 사회면을 장식하는 대표적인 상투어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sup>38)</sup> 그러나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세실 레스토랑은 2009년 술한 민주화 운동사의 사연만 남겨놓고 문을 닫고 말아 진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밖으로 나와 눈길을 돌리면 뜰에 야트막하게 자리 잡고 있는 한옥 건물로 보인다. 이 한옥건물은 성가수녀원과 옛 주교관 건물 및 교구 사무실이다. 그 가운데 ‘영빈관’으로 불리는 교구 사무실은 옛날 덕수궁 소유로 왕실의 자제들을 가르치던 ‘수학원(修學院)’ 건물을 1920년대에 옮겨 지은 것이다.

대한성공회는 한국에 들어온 어느 다른 교단보다도 건축에 있어서만큼은 토착화를 시도하고자 했던 교단이었다. 1900년에 세워진 강화읍성당이나 1908년 설립된 온수리성당을 보면, 성공회는 초기에 한옥양식을 고집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후의 성공회 건축양식에도 영향을 미쳐, 대성당을 축조할 때도 일부에 한국 고전적 건축 양식을 가져다 기와와 서까래를 올렸다. 이것은 한국인이 예배를 드릴 장소는 마땅히 한국 땅에 걸맞고 한국인에게 익숙한 곳이어야 한다는 신학적 결단이었다. 토착화에 대한 이와 같은 애착은 결국 대한성공회가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 종교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한국 현대사에 적극 동참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하여 대한성공회는 지금, 약간은 이국적이지만 한국 풍경에 아름답게 잘 어울리며 자태를 뽐내고 있는 서울주교좌성당(대성당)처럼 한국 사회 안에 아름답게 어우러져 감칠맛 나는 종교의 향을 더하고 있다.

## 7. 절? 성당? 성공회 강화읍성당<sup>3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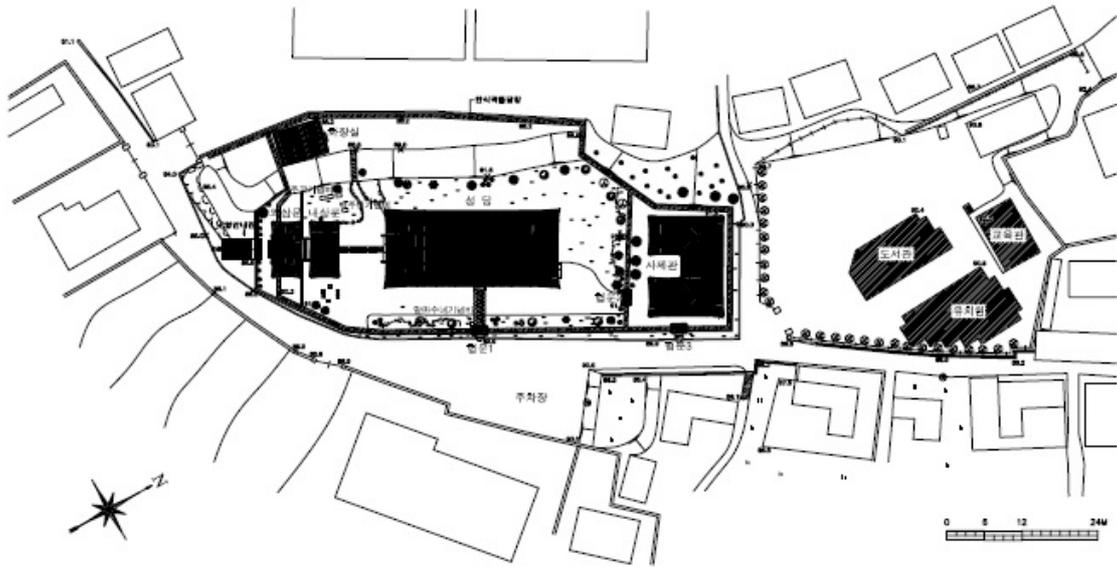
강화읍성당을 보려면 우선 먼발치에서 감상하는 것이 좋다. 건물 전체

---

38) “원성이 가장 먼저 터져나오는 곳 세실 레스토랑,” 「경향신문」 2008, 4, 16일자.

39) 본 챕터는 이덕주, 「눈물의 섬 강화이야기」(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35-53를 요약한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를 여러 각도에서 보면 이 성당이 배 모양으로 건축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앞쪽 계단과 외삼문, 내삼문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뱃머리에 해당되고, 뒤쪽 사제관이 고물, 성당건물이 배 허리에 해당된다. 이는 성당이 자리 잡은 곳이 섬이며, 주민들의 대부분이 어부라는 점에 착안한 것이기도 하지만 복음서에 등장하는 갈릴리 호수의 배를 상징화한 것이기도 하다.



이 성당의 부분부분을 뜯어보면 왜 이 성당이 ‘절 같은 교회’로 불리는지 더욱 잘 알 수 있다. 우선 건물의 배치부터 전통적인 불교 가람형태를 취하고 있는데다가 불교 사찰에서 사찰의 경계와 출입을 구분하는 삼문처럼 외삼문과 내삼문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3칸 솥을지붕으로 된 외삼문에는 홍살로 장식된 토담벽이 둘러 있고 내삼문에는 종각이 설치되어 있다. 이곳에는 1914년 영국에서 주조한 종이 걸려있었지만 일제 말기에 징발된 후로 돌아오지 못했고 지금 걸려있는 종은 1993년에 강화 성공회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주조된 조선종이다.

본당 건물 좌우로 고개를 둘러보면 왼편에는 쌍둥이 보리수나무가 눈에 들어온다. 이 역시 불교적 색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나무들은 성당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느 영국 선교사가 휴가차 본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인도에 들러 10년생 묘목을 가져와 심은 것이라 한다. 오른편에는 우리나라 시골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회화나무가 서있다. 보통 향교나 서원 혹은 서당 마당에 심겨져 있다고 해서 ‘선비 나무’로도 불리는 이 나무와 쌍둥이 보리수나무는 강화읍성당만

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전경이다.



본당 건물은 용마루 양쪽 끝에 붙은 십자가 구조물과 2층 지붕 처마 아래 붙은 ‘천주성전’의 한문 액자가 없다면 성당임을 알아채기 힘들다. 지붕의 겹처마 들보와 서까래 끝에는 연꽃과 십자가, 삼태극 무늬가 그려져

있어 동서양 종교문화의 조화를 보여준다. 정면 쪽 다섯 기둥의 주련에 선명한 연꽃무늬가 보이지만 다섯 폭에 쓰인 글자는 기독교의 신앙고백을 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성당 내부로 들어가면 중세 초기 유럽의 바실리카 양식을 따른 건축양식에서 바깥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내부를 텅 비우고 기둥과 지붕으로만 꾸민 단순한 내부 구조에 이중으로 구성된 지붕과 고창층은 바실리카 양식의 전형



적인 특징이다. 내부에 사용된 목재는 영국에서 직접 제작해 공수해 왔다는 참나무로 만든 아치형 문을 제외하면 트롤로프 주교가 직접 신의주까지 가서 구해온 백두산 적송이며 그 외에는 강화산 돌과 흙을 사용하였다. 회중석 뒤편에 있는 세레대 역시 강화도 건평산에서 캐온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다. 경복궁 중건 때 도편수를 했다는 일급 목수가 공사를 지휘했으며 인천에서 데려온 중국인 석수가 강화 돌을 다듬었고 강화 흙으로 기와를 구웠다고 한다.

내부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강화성당기인데 이 기는 1900년 11월 15일 성당 축성식 때 교인 행렬 선두에 섰던 것으로 영국 수녀와 강화 여

성들이 수를 놓아 만들었다. 자수의 모양을 보자면 칼 하나와 열쇠 두 개를 합쳐 ‘키리 십자가(✠)’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강화성당의 수호성인인 베드로(열쇠)<sup>40)</sup>와 바울(칼)<sup>41)</sup>을 상징한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열쇠의 꼬리는 만(卍)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 머리는 한반도의 대표적 청동기 유물인 사두령 방울을 본뜬 십자가 모양 손잡이로 되어 있어 그 독특한 모양새에서 다시 한 번 불교와 한국의 전통 문화, 그리고 기독교의 만남을 느낄 수 있다. 어부 출신 베드로와 율법학자 출신의 바울이 한 폭의 기 속에서 만나고 있는 것은 강화 성공회 교인들이 고기 잡고 농사짓는 평민들과 글 읽는 양반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 8. 강화 온수리성공회성당<sup>42)</sup>

1906년 트롤로프 주교에 의해 세워진 ‘광산 김씨 문중 교회’, 온수리 성당의 아름다움은 무엇보다도 소박함에 바탕하고 있다. 27칸의 일자형 전통한옥으로 지어진 이 성당은 지붕도 단층 팔작지붕으로 평범하여 지붕 용마루 양쪽 치미의 십자가 장식과 지붕 양쪽 끝 합각 벽면에 새긴 십자가 장식을 빼면 향교나 관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형태의 건물이다. 지붕에 장식도 없으며 단청도 칠하지 않았고 들보나 서까래에도 아무런 장식이 없다. 말 그대로 소박함이 묻어난다. 솟을대문의 형태를



40)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마태복음 16:19

41) “성령의 검을 … 가지라” 에베소서 6:17

42) 본 챕터는 이덕주, 「눈물의 섬 강화이야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61-73를 요약한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취하고 있는 성당 정문은 조선 시대 성곽의 망루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솥을지붕 아래 종을 매달고 사방으로 벽을 터서 종소리가 퍼져나가게 만든 종루로 일제시대 영국 해군이 기증한 종이 달려 있었으나 역시 일제 말기에 징발당해 사라지고 말았다.

성당 내부는 기본적으로 바실리카 양식을 따르고 있지만 측랑과 고창층, 후진 등의 양식은 생략되어 있다. 천장을 흰 회벽에 들보와 서까래를 그대로 드러나게 장식하여 전통한옥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가로 들보와 내림 기둥 모서리마다 당초문 무늬의 나무 조각판들을 붙여 토착적인 느낌을 준다. 종인방 들보들은 다듬지 않고 자연 그대로 굵은 나무들을 사용하여 소박한 멋을 더욱 느끼게 해주고 있다. 백두산의 소나무를 사용하고 경복궁을 지은 도목수와 인천의 중국인 석수의 힘을 빌려 건축한 강화읍성당과 달리 이곳은 교인 집 뒷산의 소나무를 이곳의 목수들이 다듬고 이곳 흙으로 구운 기와를 역시 이곳의 사람들이 올려 지은 집이기에 훨씬 토속적이라 할 수 있다.



## 성공회 서울 대성당 주변 근대 문화재 건물 소개

성공회 서울 대성당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건축물과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현장들로 둘러싸여 있다. 덕수궁과 부민관, 영국 대사관과 서울시 구청사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대성당을 보고 나오면서 바로 이웃에 위치한 건물들도 짚을 내어 둘러보는 건 어떨까?

## 1) 덕수궁

덕수궁의 건립은 최근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공주의 남자>의 시대 배경과 관련이 있다. 수양대군의 딸과 수양대군에 의해 목숨을 잃은 김종서의 아들 사이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그린 드라마. 드라마에서 수양대군(후에 세조)의 딸이자 주인공이었던



이세령을 기억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세령의 오빠이자 수양대군의 장남으로 수양대군이 왕에 등극한 뒤 자신의 뒤를 이을 세자로 책봉한 도원군(桃源君)도 기억하는가? 그러나 왕세자는 병약하여 드라마에서와 같이 20살도 못되어 사망하고 만다. 그러자 세조는 출궁해야 하는 세자빈 한씨와 두 손자를 위해 정동에 왕세자 사당인 '효정묘(孝靖廟)'와 함께 넓은 저택을 지어주었다. 후에 세조의 차남(예종)이 세자로 책봉되고 왕위를 물려받았으나 13개월 만에 죽자, 도원군의 두 아들 가운데 둘째(성종)가 다음 왕으로 추대되었다. 이에 성종은 어머니 한씨와 함께 궁으로 들어가고, 정동의 집은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의 사택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덕수궁의 시작이다. 덕수궁이 근대사 무대 정면에 등장한 것은 아관파천 후, 고종이 경복궁이 아니라 당시 행궁으로 사용되고 있던 경운궁(현 덕수궁)을 자신의 거처로 선택하면서 부터였다. 그리고 같은 해인 1897년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후부터 덕수궁은 명실상부한 대한제국의 정궁으로 사용되었고, 그 규모도 정궁에 걸맞게 점차 확장되었다.

## 2) 부민관 (현 서울시의회 건물)

일제 강점기 시기인 1935년 경성부(현 서울시)는 경성 시민들을 위해 대규모 극장인 부민관(府民館)을 건설하였다. 성공회 대성당 바로 옆에 설립된 경성부민관은 한국 최초의 근대식 다목적 공연장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에 1,800개의 관람석을 갖추고 있었고, 시계탑의 높이만 19미터



에 달하였다. 당시에는 연극, 음악, 무용, 영화 등 다양한 공연들을 비롯하여 강연장으로도 사용되었다. 그러던 중, 1945년 7월 24일 친일 어용 대회인 아세아민족분격대회(亞細亞民族憤激大會)가 열리자 부민관에서 거행되자,

항일 비밀결사인 대한애국청년단 단원이었던 유만수, 조문기 등이 다이너마이트 사제폭탄을 가져가 터뜨린 소위 ‘부민관 폭탄 의거’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부민관 의거는 해방 전 일제강점기에 행해진 마지막 의거로 꼽히고 있다.

### 3) 영국 대사관



1883년 조·영 우호통상조약이 체결되고 일 년 뒤인 1884년, 정동에 영국 총영사관이 설치되었다. 그 후 1892년 정동에 조지안 건축양식을 따른 영국 대사관 건물이 세워졌다. 18세기에서부터 19세기 초까지의 영국 후기 르네상스 시대에 유행한 조지안 건축양식은 고대 로마의 건축 이미지를 새롭게 해석한 팔라디오 양식을 따르는 스타일로, 특히 폼페이 유적에서 그 모티브를 따 온 것으로 유명하다. 현재는 영국 대사관저로 사용되고 있는 이 건물의 실내에는 영국적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고가구 및

명화들로 꾸며져 있다.

#### 4) 서울시 구 청사

1926년 경성부청(京城府廳)으로 건립된 건물로서, 일제강점기 근대 건축물의 대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건물은 구조 상 좌우 비대칭으로 세워졌는데, 건물 중앙에 탑을 세워 좌우 대칭으로 보이게끔



하였다. 극단적으로 단순화된 르네상스식 건축 양식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수수해 보이는 외관과 달리 내부는 현관에서부터 화려함을 자랑한다. 광복 후부터 서울시청 건물로 사용되었다.

## ■ 대한예수교장로회 새문안교회

종로에서 세종로 사거리를 지나 서대문 방향으로 가는 길 오른 편에 작은 규모는 아니지만, 웅장하지 않은 대신 단아하고 조금은 단순한 모양의 새문안교회가 있다. 예배당 입구 위편에 전형적인 한국식 문양인 아(亞)자 무늬 위에 하얀 색으로 십자가를



새겨 넣은 모습은 새문안교회가 대표적인 한국의 교회임을 일깨워준다. 또한 그 앞에는 새문안의 역사를 줄곧 함께 해오며 복음의 종소리를 울려왔음을 상징하는 교회 종이 기품 있게 서 있다. 서울에서는 최초로 세워진 새문안교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어머니 교회로서의 위상을 역사 속에 간직하고 있다. 이제 그러한 새문안교회가 설립되어 이 땅의 역사와 함께 해온 흔적을 좇아 시간 여행을 하려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새문안교회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옛 역사의 정취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서울에서 기독교가 남긴 구체적이고 뚜렷한 특별한 이정표 하나를 오늘을 살아가는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고 함께 나누고자 한다.

### 1. 새문안교회 설립의 의미

새문안교회의 설립이라는 역사적 사실 속에는 그 동안 한국이라는 무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모든 선교 활동의 결과가 농축되어 있다. 새문안교회는 서울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교회이다. 1887년 9월 27일이었다. 미국 북장로회 소속의 선교사 언더우가 1885년 4월 5일 한국에 도착한지 2년 반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당시 서울에서는 병원이나 학교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기독교의 선교가 허락되고 있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교회가 설립되기에는 다소 무리도 있었다.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수도 서울에는 외국인은 물론 타지에서

온 사람들도 도성 안에 새로 자리 잡기가 힘들 만큼 인구 밀도가 컸으며, 도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살던 터라 매우 배타적인 도시였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삼시간에 소문이 퍼지는 곳 이어서 무슨 일을 비밀리에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 서울에 선교사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을 비롯한 구미의 여러 나라들과 공식적인 조약을 맺어 외국 공사관들이 서울 정동에 설립된 이후였다. 새문안교회가 설립되기 이전에 서울에는 미국 북장로회의 알렌이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익을 서양 의술로 치료한 후 한국 정부와 함께 설립한 제중원이 운영되고 있었고, 미국 북감리회의 스크랜턴이 시병원을 설립하여 한국의 가난한 백성들을 치료하고 있었다.

또한 제중원 안에는 의학교를 함께 설립하였고, 별도의 고아원을 설립하여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며 근대식 교육을 시켰다. 스크랜턴의 어머니는 여자들을 위해 여학교를 설립하여 명성황후로부터 이화학당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고, 아펜젤러는 남자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여 고종 황제로부터 배재학당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다. 서울에서 선교사들이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활동은 조정은 물론 민간에서 칭송을 받는 일이었다.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선교사들은 자신감을 갖고 과감하게 선교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러한 기독교에 대한 한국인들의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침내 교회를 설립할 수 있었다. 그 이전에 한국인들은 참여하지 않고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만이 참여한 유니온 교회가 있었음도 물론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 북장로회에서는 새문안교회를 설립하였고, 곧 이어 미국 북감리회에서도 정동제일교회를 설립하였다. 새문안교회는 처음 언더우드와 정동 사택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14명의 한국인과 언

더우드 목사, 그리고 스코틀랜드 장로회 소속의 존 로스 목사가 함께 첫 예배를 드렸다. 이때의 상황을 언더우드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이곳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

립니다. 사업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 우리는 14명의 수세자로 이루어진 한국 최초의 기독교 교회를 조직했으며, 지난 주일에 한 명의 수세자를 추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sup>43)</sup>

그러니까 1887년 9월 27일 이전의 전반적인 선교 활동을 통해 세례를 받은 한국인들이 모두 14명이 참여하여 한국 최초의 조직교회를 서울에 설립하였다는 말이었다. 이 자리에서 두 명의 장로가 선출되었으나 정확하게 누구였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여기 참여한 한국인들은 노춘경, 서경조, 최명오, 정공빈 등을 포함한 소래 교인들과 의주 교인들, 그리고 서울의 교인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때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문안교회가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서 차지하는 남다른 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새문안교회 설립 당시의 정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북방선교루트’와 ‘남방선교루트’의 결합이라는 측면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새문안교회가 명실상부하게 한국을 대표하는 어머니 교회라는 가치와 위상을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 지니게 되었다.

새문안교회가 처음 예배를 드릴 때 참석했던 14명의 한국인 중에서 13명은 서상륜의 전도를 통해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었다. 서상륜은 의주 출신으로 한국과 중국의 국경지역인 고려문을 오가는 떠돌이 홍삼장사를 하고 있었다. 고려문에서는 스코틀랜드 장로회 선교사인 존 로스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특히 로스는 성서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용찬, 이성하, 김진기, 백홍준, 서상륜 등이 이 번역 사업에 참여하였고, 이들은 번역된 성서를 한국의 서북지역을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에 배포할 수 있었다. 이들은 한국 곳곳에서 성서를 보급하며 전도활동을 하여 서북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곳에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을 통칭하여 ‘북방선교루트’라고 한다.

---

43) “언더우드에게 보낸 편지, 1887년 9월 30일,” 『언더우드 자료집 I』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77.

그리고 한국이 미국과 수교를 한 뒤 미국 북장로회 해외선교본부는 공식적으로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에 처음으로 들어온 선교사는 알렌이었고, 곧 이어 언더우드도 내한하였다. 이들은 정동에 서울 선교지부를 개설하고 의료사업과 교육 사업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에 최초의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을 통칭하여 ‘남방선교루트’라고 한다.

새문안교회는 이러한 ‘북방선교루트’와 ‘남방선교루트’가 결합하여 성과를 이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새문안교회가 처음부터 지니고 있었던 이러한 특징은 이후 새문안교회의 정체성과 특징을 결정짓는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 늘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새문안교회를 과감하게 한국의 어머니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게 한 특징이었다. 비단 처음으로 세워졌기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 2. ‘새문안’의 뜻과 서울의 지역별 특징

새문안교회를 설립함으로써 미국 북장로회 서울 선교지부는 구체적으로 병원, 학교, 교회로 이어지는 삼각 선교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게 되었다. 하나의 선교지부 안에 각각 병원과 학교, 그리고 교회를 세움으로서 이 세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대하여 선교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상승작용을 만들어 내는 것이 당시 선교사들의 목표로 했던 일차적인 선교 방법이었다. 따라서 교회의 설립은 꼭 이뤄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새문안교회는 처음에는 정동교회로 불렸다. 언더우드의 사랑채가 정동에 있었기 때문이다. 교인들이 늘어나서 장소가 비좁게 되어 교회를 조금 떨어진 장소로 옮겼는데 그때부터 정동교회라는 말과 함께 서대문교회와 새문안교회, 한자어로는 신문내교회라고 불렸다. 그 이유는 서울 사람들이 새문이라고 불렀던 서대문 안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이었다.

당시 서울의 상황과 관련하여 이야기 하자면, 새문안교회를 설립한 이후 미국 북장로회에서는 서울의 동서남북, 그리고 중앙에 각각 교회를 설립하였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새문안교회는 서울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

었다. 설립된 순서대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선 새문안교회가 서울의 서쪽에, 승동교회가 서울의 중앙에, 연동교회가 서울의 동쪽에, 남대문교회가 서울의 남쪽에, 그리고 안동교회가 서울의 북쪽에 설립되었다.



당시 서울은 각 지역별로 신분별 거주지가 따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서울 안에서도 동서남북, 그리고 중앙에는 각각 별도로 특정 집단의 주거 구역이 존재하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 서울은 계층적으로 양반과 상민의 구별이 뚜렷하였고, 그에 따른 신분별 거주지가 따로 정해져 있었다. 따라서 서울 내에서도 북쪽에는 왕실을 비롯한 고위관료들의 주거지가 많았고, 남쪽에는 시전 상인들의 거주지가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동쪽에는 서울의 고급관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고, 서쪽은 시장

상인들의 거주지가 있었다. 중앙 지역에는 기술직 중인인 역관과 의관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이러한 서울의 신분별 거주지의 특성은 서울 선교지부가 동서남북 그리고 중앙에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던 실질적인 배경이었다. 서쪽에 세워진 새문안교회에는 그곳에 살던 상인들이 주축이 되었으며, 동쪽에 세워진 연동교회에는 동대문에서 종로로 이어지는 상가를 운영하던 상인들이 많았고, 특히 독립협회 사건으로 수감되었던 양반들이 대거 들어오게 되었다. 중앙에 설립된 승동교회에는 역시 일반상인들과 일부 양반들이 다니고 있었는데, 선교사 무어의 전도로 백정들이 출석하게 되었다. 백정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양반들이 크게 항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승동교회에 백정이나 하류층의 사람들이 늘어나자 이를 참지 못한 양반들이 따로 교회를 세워나갔는데 이 양반교회는 한국 선교부에 의해 해산되기도 하였다. 남쪽에 세워진 남대문교회는 세브란스 병원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세브란스 병원 관계자들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신앙을 갖게 된 사

람들, 그리고 시전상인들이 참여하는 교회였다. 북쪽에 세워진 안동교회는 처음부터 양반들을 중심으로 양반을 전도하기 위해 설립된 교회였다. 이와 같은 교회들은 물론 가장 먼저 설립된 새문안교회를 통해 설립되었다.

새문안교회의 전도 활동의 결과였다. 1891년 새문안교회는 곤당골에 예배처소를 돌보고 있었다. 이 교회는 승동교회의 전신이다. 곤당골 교회는 무어 선교사의 백정 전도로 유명하다. 무어는 박성춘이라는 백정을 전도하여 곤당골 교인으로 삼았으며 이후 백정들의 처우 개선과 인권 신장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백정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따로 예배처를 마련한 양반들이 흥문수골 교회를 세웠다. 이 두 교회가 1896년 가을에 다시 합하여 만든 교회가 승동교회이다.

그리고 1893년 언더우드가 미국에서 모금한 선교기금으로 남대문 상가 안에 예배처를 마련하였고, 이듬해에는 연못골에 예배처를 마련하였다. 남대문 교회와 연동 교회 또한 승동 교회와 마찬가지로 새문안교회의 전도 활동을 통해 설립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새문안교회는 서울 밖에도 많은 교회를 설립하는데 기여하였다. 이 시기는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 그리고 명성황후 시해사건이 차례로 일어나던 정치적으로 불안한 시기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기를 위하여 대거 교회를 찾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새문안교회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고, 또한 서울의 다른 지역을 비롯하여 근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전도활동을 통해 여러 교회를 설립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이 땅의 교회가 지니고 있는 또 다른 심오한 가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문안교회는 한국에 최초로 설립된 어머니 교회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한편 서울의 서쪽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 선교 사업의 측면에도 충실하였다. 새문안교회는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로 교육사업을 비롯하여 의료사업, 문서사업, 청년사업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새문안교회가 한국 기독교의 에큐메니즘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보여준다.

### 3. 새문안교회 발전과 건축양식의 변화

참고로 미리 언급하면, 새문안교회는 건축 양식과 위치에서 변화가 있었다. 첫째, 언더우드의 사랑방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남자는 사랑채에서, 그리고 여자는 안채에서 예배를 드렸다. 덕수궁 옆 러시아공사관 근처에 위치해 있던 이 교회는 곧 증축이 필요해지는 상황에서 신문로 대로변 피어선 빌딩이 있는 곳으로 위치를 옮겼다. 이때도 역시 단층의 한 옥으로 예배당을 건축하였고, 남녀의 구별을 위해 각각 다른 시간을 이용하여 예배를 드리거나 휘장을 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1910년 지금의 교회 위치에 벽돌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단층 양옥의 방식으로 건축된 이 예배당은 당시 세브란스병원과 YMCA 건물을 시공한 경력이 있는 중국인 건축기사 해리 장이 시공을 담당하였다. 새문안교회는 1949년이 되어서야 예배당을 2층으로 증축할 수 있었고, 전면에 첨탑을 설치함으로써 교회다운 외형을 갖추게 되었다. 지금의 새문안교회는 1972년 11월 26일에 준공된 신축 건물이었다.

새문안교회는 처음부터 순조롭게 발전해 나갔다. 188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언더우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오늘 있었던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귀하가 참석하여 주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를 보셨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예배실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찼고 약 50명의 한국인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한국어로 찬송 “여호와의 엄위한 보좌 앞에”를 불렀고, 이어 11명의 청년들이 일어나서 전 회중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결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심을 빌었습니다. 그들은 꿇어 앉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믿음에 대한 인을 받고 주님을 증거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진실로 장엄한 순간이었습니다.<sup>44)</sup>

그리고 이듬해 새문안교회는 세례교인 수가 100명에 이를 정도로 크게

---

44) “언더우드가 엘린우드에게 보낸 편지, 1888년 12월 23일,” 『언더우드 자료집 I』, 131-132.

성장하였다. 1889년 1월 초 언더우드가 미국 뉴욕에 있는 해외선교본부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이미 그 당시 새문안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이외에 1주일에 네 차례의 기도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새문안교회는 교회로서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어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언더우드와 결혼한 이후 신혼여행을 겸해 북부 지방으로 선교여행을 떠난 사이 한국 정부는 미국 공사 딘스모어에게 항의하여 새문안교회의 예배를 중지했던 사건도 있었다. 이후 기포드와 마펫, 그리고 빈튼, 게일, 밀러, 무어, 헐버트 등이 교대로 새문안교회를 돌보게 되었지만 큰 어려움 없이 새문안교회는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어려운 시기에도 새문안교회의 교인들 스스로가 헌신적인 노력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고자 했던 열심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무렵 새문안교회가 설립될 당시 세워진 두 장로가 징계를 받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마펫이 1892년 새문안교회에 처음 왔을 때 두 명의 장로가 징계를 받았는데 그 중 한사람은 출교까지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확인할 자료가 없지만 이 사건은 당시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를 매우 엄격하게 치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후 새문안교회는 1904년 송순명이 장로로 장립 받을 때까지 17년간 한국인 장로가 없었다.<sup>4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새문안교회는 조직을 재정비하고 서상륜과 홍정우 등 한국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맞았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새문안교회는 교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여선교사 워볼드가 남녀 학생들을 모아 가르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나중에 영신학교로 발전하였다. 또한 중학교 과정의 경신학교와 정신여학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는 새문안교회가 교인들의 헌금을 통해 여러 사업을 벌였다고 하기 보다는 해외선교본부에서 지원하는 기금을 가지고 전개한 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새문안교회가 교인들의 헌금을 통해 교회 사업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게 된 계기는 새문안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착되었다.

---

45) 윤경로, 『새문안교회100년사(1887-1987)』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새문안교회, 1995), 133.

새문안교회의 교인들이 증가하여 기존의 예배당이 비좁아진 상황에서 새 예배당 건축 문제는 매우 시급한 과제였다. 이 때 선교사들은 한국인 교회를 짓는데 선교부의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당 건축은 전적으로 한국인 교인들의 힘으로 이뤄져야 했다. 소위 ‘네비어스 선교 방법’이라고 하는 자립을 강조하는 선교 원칙이었다. 따라서 여기에는 한국인 교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었다. 이에 대해 선교사들은 이 일이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한 반면 새문안교회의 교인들은 오히려 예배당 신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를 위해 한국인으로 구성된 건축 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새문안교회의 교인들이 직접 공사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새로운 교회를 건축할 만큼 건축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기에는 다른 특별한 변수가 작용하였다. 1895년 여름 콜레라가 전국에 만연하였고, 서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다. 이 때 선교사들은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서대문 밖에 진료소를 마련하고 환자들을 데려다가 치료하였다. 에비슨과 웰즈가 진료소 책임을 맡았고, 언더우드 부부가 이 일에 적극 나섰다. 여기에 새문안교회 교인들이 진료소에 나와 간호와 구호 활동을 함께 벌였다.

정성을 다한 교인들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이 정부를 크게 감동시켜 조선 정부에서는 진료소 **운영비용** 이외에 새문안교회 교인들의 인건비도 지급해주게 되었는데 바로 이 인건비가 그대로 건축헌금이 되었다.

콜레라라는 천재를 겪은 후 그 가운데 교인들이 보여준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새문안 교인들이 눈 깜짝할 새 자신들이 예상했던 것 이상의 돈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어느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그들은 그 돈을 가지고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새 예배당을 짓는 일이라는 똑같은 생각을 하였다. 그들에겐 헌금보다 더 좋은 일이 없었으며 지금이야 말로 그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내가 알기로 그들 대부분은 기본 생계조차 꾸려나가기 어려운 사람들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어느 누구도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쓰려고 하지 않았다. 그 돈을 교회에 바침으로 그들이 생각했던 바 최상의 꿈을 실현한 셈이다. 그 결과 예배당은 속히 완성되었는데 가

장 아름다운 한옥식으로 좋은 기와를 사용하였고,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제일 좋은 것들로 꾸몄다.<sup>46)</sup>

이와 같이 이 예배당은 새문안교회 교인들 스스로가 자립적으로 마련한 첫 번째 예배당이었다. 이 예배당 헌당식은 1895년 크리스마스 직전에 성대하게 베풀어졌다. 이 예배당은 전통 한옥 양식을 위하여 기와로 지붕을 덮고 벽은 흙으로 발랐으며 창문도 종이로 바르는 등 전형적인 한옥교회였다. 건물 안은 장방형으로 강단에서부터 뒤쪽까지 남녀의 좌석을 구별하는 휘장이 쳐 있었다.

이 시기의 새문안교회는 많은 교인들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커다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새문안교회는 국왕의 탄신일을 기념하는 특별 예배가 있었다. 이러한 예배를 특별히 드리고자 했던 것은 새문안 교인들 스스로의 생각이었다. 이는 나라를 위한 기도회와 군중집회로 이어졌다. 이러한 행사를 새문안 교인들이 주도했던 것이다. 이후 고종 황제의 탄신일 축하예배는 연합예배의 형태로 바뀌어 계속적으로 전개되었다.

둘째, 새문안교회는 기상천외한 전도 방법을 창안하였다. 교인 가운데 상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새로운 형태의 전도 방법을 마련한 것이다. 교인이 상을 당하면 전교인이 합심하여 상여를 만들어 교인들이 상여를 직접 메고 장지를 향해 가면서 찬송가를 부르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인이 죽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축제를 벌였다.

이와 같이 충군애국적인 모습과 새로운 형태의 전도 방법을 통해 기독교라는 종교는 훌륭한 충성스런 종교이며 숭양할 만한 종교라고 상류층에게도 호감이 가는 종교로 인식시키는 한편 일반 서민들에게도 기독교가 결코 조상을 몰라보거나 전통적인 관습을 무조건 배격하거나 사람들을 쫓아내는 사술이 아닌 믿을 만한 종교임을 입증해 나갔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새문안교회에는 상류층 양반들은 물론 일반 상민들의 입교가 크게 증가하였다.<sup>47)</sup>

46) L. H. Underwood, 이만열 역, 『언더우드: 한국에 온 첫 선교사』 (서울: 기독교문사, 1990), 145.

47) 윤경로, 『새문안교회100년사(1887-1987)』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새문안교

이와 같이 새문안교회가 교인들의 힘으로 첫 번째 예배당을 신축한 직후 교인들이 크게 증가하여 새로운 예배당을 다시 건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신축부지에 대한 정부와의 협상으로 1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황제가 기거하는 궁궐과 너무 가까운 곳이어서 만백성이 우러러 보는 신성한 지역이기 때문에 교회의 건축을 불허한다는 명분이었다. 따라서 정동 선교지부 안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새문안교회는 우여곡절을 거쳐 더 좋은 부지를 얻게 되었다. 지금의 새문안교회가 서 있는 곳이다. 이곳은 예로부터 ‘밤길을 환하게 비추는 고개’라는 뜻의 아주개라고 불리던 곳이었다. 이곳에 당시 장안의 명물이 된 ‘벽돌 예배당’이 1910년 5월 22일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완공된 것이다.

#### 4. 새문안교회의 한국인 지도자

이러한 발전과 더불어 드디어 새문안교회에 한국인 장로가 장립되었다. 물론 새문안교회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 두 명의 한국인 장로를 세운바 있었지만, 1904년 10월 2일 송순명이 사실상 새문안교회의 첫 장로로 선출되었다. 그는 1874년 서울의



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조실부모한 후 고아로 떠돌다가 열 두 살 되던 1887년 언더우드에 의해 고아학교에 들어가 그곳에서 자랐다. 새문안의 창립되던 때 인연을 맺어 전 생애를 새문안과 함께 해 온 인물로 그는 전도에 남다른 헌신을 하였으며 특히 성서에 해박하였다. 초기 한국 교회에 공헌한 대표적인 권서의 한 사람이었으며, 도산 안창호를 전도한

---

회, 1995), 124.

사실로 유명하다. 그는 1957년 12월 3일 소천하여 교회장으로 망우리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또한 새문안교회에 첫 한국인 목사가 세워지게 되었다. 서상륜의 친동생인 서경조 목사였다. 서경조 목사는 한국 최초의 자립교회인 소래교회를 그의 고향 황해도 송천에 설립하였으며, 1907년 9월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7명의 중의 한 명이다. 이는 새문안교회가 서울의 서쪽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교회이지만, 한국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라는 사실과 이것이 앞서 말한 북방 선교루트와 남방 선교루트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성과였다는 사실에서 새문안교회가 지니고 있었던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인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에도 비중이 커졌다. 송순명 장로에 이려 두 번째 장로로 선임된 사람은 김규식이었다. 우사 김규식은 대표적인 민족 지도자이자 독립투사였다. 김규식이 새문안과 인연을 맺은 것은 그의 나이 여섯 살 되던 1887년이었다. 그 역시 언더우드의 손에 이끌려 언더우드 고아원에 입양되었다. 그는 일제 식민지 시기와 해방 공간에 활동했던 독립운동가이자, 해방 이후 민족분단을 막기 위해 좌우합작운동을 추진하며 철저한 민족주의 노선에 섰던 정치가의 한 분이었다.

또한 새문안교회를 대표하는 인물 가운데 서병호 장로가 있다. 그는 상해임시정부의 한 요인으로 활동한 독립운동가였다. 그는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최초로 유아세례를 받은 한국인으로 유명한 분이다. 새문안교회가 설립한 영신학교를 졸업하고 경신학교를 제1회로 졸업하였다. 1909년부터 언더우드의 요청으로 모교인 경신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며 새문안교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 5. 언더우드의 소천과 새문안교회

새문안교회가 자립하여 교인들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해 가는 동시에 나라와 민족이 당하는 고통에 앞서 참여하여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모교회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해나가는 시기에 새문안교회를 설립하였으며, 한국의 기독교 전반에 걸쳐 많은 역할을 한 언더우드가 소천하는 일이 발

생했다. 1916년 10월 12일의 일이었다. 33년 동안 한국에서 언더우드의 사역은 어디에나 찾아볼 수 있을 만큼 광범위한 것이었다.

그 당시 언더우드는 자신이 그토록 꿈꾸어왔던 서울의 기독교 대학을 설립한 직후였다. 지금 연세대학교 자리에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써왔으며, 새로 설립된 대학 운영을 위해 일본어의 구사가 필요하여 일본 동경에 일본어 공부를 하기 위해 갔다가 지병이 악화되었다. 그는 이전까지 차례로 세브란스 병원, 피어선기념성경학원, 연희전문학교를 설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반대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고, 언더우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처 건강을 돌보지 못했던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었다.

새문안교회는 언더우드의 서거 소식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이에 새문안교회는 곧바로 추도 위원회를 조직하여 추도예배를 드렸다. 30여 년간 담임목사로 섬겨왔던 언더우드의 죽음 앞에서 새문안 교인들의 슬픔과 애통함이 어떠했을 것인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후 새문안교회는 언더우드 정도의 지도력을 갖춘 목회자를 갖지 못하고 한동안 쇠퇴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20년 차재명 목사가 부임하였다. 그는 새문안교회에서 다년간 조사와 장로로 섬겼으며, 새문안교회의 지원을 받아 평양 장로회신학교를 수료하고 목사가 된 새문안이 키운 인물이었다. 차재명 목사는 평북 용천 출신으로 선천의 신성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하여 새문안교회의 조사로 일했다. 차재명 목사는 1941년까지 21년 동안 새문안교회의 담임목사로 한국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새문안 강단을 지켰다.

1927년 9월 21일 새문안교회 뜰에서 장로회 총회 주관으로 언더우드 기념비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이 기념비는 지금도 새문안교회의 앞뜰에서 언더우드와 새문안교회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증명하며 우뚝 솟아 있다. 그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사께서 서쪽에서 오셔서 하늘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구하시고  
교육에 온몸을 다 바치셨네. 복음을 처음으로 전파하시 온 누리에  
빛나는 귀감이 되시고 한껏 새 문화를 펴셨네. 진심을 다해 무지를  
타파하시니 이에 거룩한 뜰 공적을 기리는 도다. 이 땅에 펼쳐 보

이신 바 우매함을 일깨우시니 모두가 바울이라 칭하였네.

## 6. 오늘날의 새문안

새문안교회 안에는 언더우드 목사 기념비를 포함하여 김영주 목사 순교기념비가 마련되어 있고, 초기에 사용하던 종을 교회에서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전시하고 있다. 또한 새문안교회는 역사박물관을 개관하여 새문안교회와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살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마련하였다.

새문안교회가 처음 설립된 언더우드의 사랑채는 새문안교회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이 설립된 모태였다. 바로 이 언더우드 사랑채에서 1886년 5월 16일 한국정부의 호의 속에서 고아원이 시작되었다. 이 고아원은 학교의 형태로 발전하여 오늘의 경신학교로 이어지고 있으며, 경신학교 대학부로 이어져 연세대학교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언더우드 사랑채에서는 1887년 2월 7일 장로회와 감리회 선교사들이 한글성서의 번역을 위한 ‘성서번역 상임위원회’를 조직하였는데, 이는 오늘의 대한성서공회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1890년 6월 25일 초교파적인 문서 출판기관으로 ‘조선성교서회’를 여러 교단의 선교사들이 협력하여 설립하였는데, 이는 오늘의 대한기독교서회로 이어지고 있다.<sup>48)</sup> 이렇듯 역사적 상관관계를 함께 지니고 있었던 여러 연합기관들과 교육기관에 대해 새문안교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지금 새문안교회는 새로운 성전의 건축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에 들어가 있으니 머지않아 공사가 진행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의 모습으로 30여년을 지켜온 새문안교회의 모습은 또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역시 그 속에 깃들어 있는 새문안교회가 한국의 근현대 역사와 함께 해왔던 족적 뚜렷한 나름의 역사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후세에 남겨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48) 이덕주, 『개화와 선교의 요람 정동 이야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47-50.

## ■ 구세군제일영문

새문안 교회 길 건너 맞은편 언덕을 조금 오르면 구세군제일영문이 나타난다. 구세군제일영문은 2010년 7월 신축된 건물로 이전하기 이전까지 구세군대한본영이 자리하던 곳이기도 하다. 구세군대한본영은 국제적 기독교회인 구세군의 한국 총본부를 의미한다. 따라서



오랜 기간 구세군대한본영이 자리했던 여기에 한국 구세군만의 독특한 역사가 깃들여 있다. 구세군의 ‘국제선교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이 구세군의 정체성이 표현되어 있다.

“구세군은 국제주의적인 운동체로서 복음을 전하는 우주적 기독교 교회의 일원이다. 구세군의 메시지는 성서에 기초를 두고 있다. 구세군의 봉사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구세군의 선교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게 채워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구세군의 군대다운 색채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구세군은 역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교회인 것이다. 다만 그 형식과 조직, 그리고 외형적인 모습을 편의상, 그리고 역사를 통해 정해지는 특별한 방식을 따라 군대식으로 한 것뿐이다. 따라서 구세군에게 있어 핵심은 ‘복음’이지 ‘군대’가 아니다.

### 1. 구세군의 군대적 특징

구세군은 감리교 목사였던 윌리엄 부스와 그의 부인 캐서린 부스가 1865년 7월 2일 영국 동부 런던의 한 거리에서 가난한 민중들을 대상으

로 전도한 일에서 시작한다. 이는 굳게 닫혀 있었던 교회의 문을 세상을 향해 활짝 열고 거리로 나와 빈민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간 점을 특별하게 강조하는 것으로 구세군의 역사가 그와 같이 시작되고 있다는 측면에 유념해야 함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구세군은 감리교에서 나왔지만, 기존의 감리교보다 더욱 철저하게 웨슬리의 정신을 구현하려고 했던 실천적인 운동이었다.

구세군은 스스로가 영적 전쟁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강조한다. 구세군의 선교는 영적 투쟁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세속의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의 사회악과 대면하는 최전선에서 복음을 위한 공격적인 운동을 전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구세군은 영국군대를 모방하여 군대식 조직체계를 만들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구세군이 강조하는 영적 전쟁은 이 세상 자체를 이원론적으로 구분하여 영적인 세계와 세속적인 세계와의 관계 자체를 거부하는 기존의 다른 종교적 구분과는 전혀 다른 의미였다. 따라서 구세군은 언제나 이 땅의 문제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남다른 각오 속에서 도입한 것이 바로 구세군의 군대적인 특징이었다.

구세군의 군대식 행정조직은 국제본영(영국 런던), 군국 또는 준군국, 지방 또는 지역, 영문으로 구성되며, 국제본영에는 대장, 군국본영(각 나라)에는 사령관, 지방본영에는 지방장관, 영문에는 담임사관이 지휘자로서 통솔한다.

구세군에는 대장, 부장, 정령, 부정령, 참령, 정위, 부위의 일곱 계급으로 구분되는 직책이 있다. 구세군 사관학교를 졸업하면 사관으로 임명되고 이후 처음을 받는 계급은 부위이다. 정위로 진급한 이후 10년을 봉직하면 참령으로 승진하고, 부정령, 정령, 부장은 보직에 따라 주어진다. 단 대장은 부장과 2년 이상 군국 사령관을 역임한 정령 이상의 인사들이 추천을 받은 대상자에 대해 최고회의를 열어 선출한다. 대장은 구세군의 일인자로 구세군의 사관 및 구세군 사업 등을 감독한다.

또한 구세군에서는 구세군 병사로 입대된 자와 구세군 사관으로 임관된 자는 군복을 입게 되어있다. 군복을 입는 이유는 구세군의 조직적 통일성을 표현하는 동시에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구세군에는 모든 용어 역시 군대식 용어로 되어 있다. 병사서약식, 병사

입대, 병사, 사관후보생, 사관학생, 사관, 하사관, 정교, 탄약금(헌금), 전장훈련, 영문, 사령관 등의 용어가 그렇다.<sup>49)</sup>

이런 구세군의 군대적 특징들은 한국 개전 초기에 한국인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어내는 이유가 되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것들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구세군의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한국인 통역이 정확하게 그 뜻을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인들에게 전달된 내용은 ‘구세군이 한국을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구해주기 위해 왔으며 구세군에 오면 무기와 군복을 제공하고 순서대로 계급을 정해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구세군은 독립군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수많은 청장년의 한국인 남성들이 구세군에 관심을 크게 갖게 되었다. 그 다수가 ‘총 대신 성경을 주는’ 구세군을 떠났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구세군에 들어와서 영적 투쟁에 참여하였다. 초기 구세군이 한국에 와서 크게 성과를 거둔 것은 바로 이러한 구세군이 지니고 있었던 군대적 특징이 당시 한국 사회에서 또한 요구되고 있었던 전투적 의지를 끌어당기고 있었던 것이다.

## 2. 구세군의 한국 개전

이러한 군대 형태의 구세군의 개전은 1895년 먼저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한국 구세군은 일본 구세군의 영향을 받아 한국에서도 개전하게 되었다. 또한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의 세계선교 추진이라는 맥락 속에서 일본을 발판으로 한국과 중국에 선교를 개전하기로 계획했던 것이 구체적인 구세군 한국 개전의 동기가 되었다. 윌리엄 부스는 1907년 세계선교의 비전을 갖고 극동 순회 전도 길에 올랐다. 그는 4월에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하여 교토, 오사카, 나고야, 요코하마, 고베, 마에바시, 우수노미야, 센다이, 오카야마 등의 여러 도시와 대학교에서 약 40일 간의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러한 일본 순회 전도 과정에서 한국을 위한 선교 개전의 동기가 생

---

49) 김준철, 『한국 구세군 100년사 1908-2008』 (서울: 구세군출판부, 2008), 49-51.

겨났다. 윌리엄 부스의 일본 집회에는 일본에 유학 중인 조선인 학생들이 참석하였는데, 이들이 조선에 구세군 개전을 요청한 것이다. 윌리엄 부스는 조선인 학생들이 조선에서의 구세군 사업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에서의 구세군 사업 개전을 지시 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구세군 개전을 위한 사전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구세군 한국 개전의 타당성이 입증되어 한국 개척이 승인되었다. 이에 따라 허가두(許嘉斗, Robert Hoggard) 정령과 그의 부인이 구세군 개척 사관으로 임명되었다.<sup>50)</sup> 그러나 그 보고서의 내용은 그렇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허가두 정령 동 부인과 그들의 사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동반한 동관들도 구령의 전장을 찾을 것이며, 만약 그들이 추수할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구원의 씨앗을 뿌리는 준비는 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일이 너무도 힘들고 지쳐 조선에 있는 동안 결실을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열렬한 지원과 도움 그리고 기도가 있는 한 언젠가는 결실의 날이 꼭 다가올 것이다.’

[레일톤 부장의 보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8년 7월 영국의 크리스탈팰리스 공원에서 열린 구세군 창립 43주년대회에서 윌리엄 부스 대장은 허가두 정령과 부인을 강단에 세우고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허가두 정령 동부인이여, 그대들은 이 땅의 진실한 십자가 군병들이다. 그대들은 지금까지 즐기치게 일해 왔다. 그리고 밤낮으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구령의 열정을 불살라 왔다. 이제 우리는 그대들을 다시 밖으로 보내려고 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대들을 하나님께 바친다. 나는 그대들이 충성스럽게 이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나는 그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빈다. 많은 사람들의 영혼 구원이 그대들의 상급이 되기를 바란다.”<sup>51)</sup>

50) 허가두에 대해서는 김준철, 『허가두 생애와 사역』 (서울: 구세군출판부, 2007)을 참조.

이와 같은 출전식이 끝나고 허가두 정령 부부에게 태극기를 단 구세군기와 북을 수여한 후 그들을 조선으로 보냈다. 여기에서 눈여겨 볼 대목이 바로 태극기를 단 구세군기이다. 이것이 지금 현재 구세군 측에서 유물로 가지고 있는지 확인되지는 않지만, 구세군이 지닌 세계적인 특징이 과연 어떤 것이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다. 구세군은 앞서 보았듯이 대장을 중심으로 전세계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국제적인 단체이다. 이는 교황을 중심으로 전세계가 통일되어 있는 천주교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구세군이 지닌 각 군국에 대한 특별한 정감을 볼 수 있다. 당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 국제 외교계의 상식이었다. 물론 강제 병합 이전이기는 하였지만, 이미 통감부가 설치되어 실질적으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구세군 본부는 태극기를 단 구세군기를 한국 개전의 상징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부분에서 구세군의 군대적 특징과 세계적 보편성을 결코 한 지역 개개의 사건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허가두 정령 부부는 자녀 세 남매와 함께 조선 구세군 개척을 위한 항해에 나섰다. 1908년 8월 18일 영국 사우샘프턴 항을 출발하여 10월 1일 오전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곧바로 부산역에서 경부선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하였으며 10월 16일 함께 임명받은 선교팀과 합류하여 서울 서대문 평동 76번지에 자리를 잡았다. 구세군이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영적 전쟁을 치루기 위한 전진기지였다.

그러나 이미 조선에는 많은 교단에서 각자의 선교구역을 맡아 활발한 선교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따라서 허가두는 아직 복음이 닿지 않은 그리고 교통수단이 전혀 없는 시골 농촌 지역을 찾아다니며 ‘뽕마치’(순회 전도운동)를 전개하였다. 당시의 순회전도는 허가두 정령 동부인과 두세 명의 사관, 여덟에서 아홉 명의 조선인 사관학생들, 그리고 작은 브라스 밴드와 한 명의 일본인 사관 등으로 구성되었다. 짐꾼들은 지게에 그들이 먹을 식량과 그 밖의 물건들을 운반하였다.<sup>51)</sup>

---

51) The War Cry, 1917, No. 2145. (IHQ), 1. 김준철, 『한국 구세군 100년사 1908-2008』 (서울: 구세군출판부, 2008), 81-82에서 재인용.

당시 조선에서 구세군에 대한 기대와 참여는 폭발적이었다. 구세군이 조선에 개전을 펼친 지 8개월 만에 30개의 영문이 개척되었다. 이에 새 문 밖 평동 기지를 ‘구세군 총사령부’로 삼아 사무실을 건축하였다. 조선 구세군은 만국본영에게 더 많은 사관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한국인들을 사관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사업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1909년 3월 24일 임문상이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견습참위로 발령을 받아 강경으로 파견되었고, 5월 3일에는 송규식이 두 번째로 조선인 견습참위로 임명되어 대전으로 파송되었다. 그리고 5월 15일에는 이남주가 세 번째 견습참위로 임명되었고 이후 한국인 사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구세군의 한국 선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들을 위한 교육은 1909년 4월 20일 설립된 사관훈련반(The First Training Class)이었는데 1910년 10월 4일에는 21명의 사관학생이 경성 제1 영문에서 견습참위로 임관을 받았고 국내 전국 각지의 영문으로 파송되었다.<sup>52)</sup>

한편 조선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사용하며, 구세군의 가르침, 구세군주의, 구세군 방침과 경영에 대해 소개하고, 사관들이 갈 수 없는 곳까지 이러한 내용을 전하기 위해 「구세신문」을 창간하기도 하였다. 또한 1910년 2월 15일 경성 서대문 밖 평동에 학교로 쓸 양옥건물을 건축하여 사관양성을 위한 성경대학을 설립하였다. 이렇게 처음부터 구세군은 한국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며 점점 구체적인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었다.

1912년 8월 20일 구세군 창립자 윌리엄 부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장례식은 8월 29일 목요일에 거행되었는데, 조선에서는 종로 청년회관(YMCA)에서 추도회가 개최되었다. 총독부의 세키야 학무국장, 미국 영사관, 중국 영사관, 각 교회 선교사들이 참여하였고 감리교 대표로 윌리엄 머리 감독, 미주 교우 대표로 화이트 목사, 감리교 대표 버딕 목사, 장로교 대표로는 언더우드 목사가 추도사를 전하였다. 또한 이왕직 음악대의 연주가 있었다.

이와 같이 구세군의 한국 개전은 그 진취적인 군대적 특성이 당시 한국의 상황과 결합하여 많은 성공을 처음부터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구

52) 김준철, 『한국 구세군 100년사 1908-2008』 (서울: 구세군출판부, 2008), 88.

53) 김준철, 『한국 구세군 100년사 1908-2008』 (서울: 구세군출판부, 2008), 98.

세군은 이러한 자신들의 군대적 정체성을 전혀 배타적인 측면으로 전개해 나가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 개전 상황 속에서 구세군은 한국에서 함께 선교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다른 여러 교단들과 매우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구세군의 이러한 교파연합적 특징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구세군의 **구세군만의** 정체성이 더욱 분명하게 천명되고 있었다.

### 3. 구세군 한국 개전의 수난

초기 한국에 와서 선교활동을 전개하던 선교사들이 직면했던 가장 큰 위협은 바로 풍토병이었다. 특히 선교사의 자녀들이 이러한 위협에 더욱 크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로 인해 많은 선교사들이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사 직무를 단념하거나 선교지를 바꾸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많은 선교사들이 그러한 아픔을 가슴에 묻고 더욱 헌신적으로 선교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구세군 역시 이러한 수난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현재 양화진을 비롯한 전국에 조금씩 남아있는 선교사들의 묘원은 이러한 슬픔의 기억들을 간직하고 있다.

1912년 4월에는 스웨덴 사관으로 1911년 12월 24일 조선에 도착했던 푸릭(Jenny S. Frick) 참위가 급성 뇌염으로 순직하는 일이 있었다. 종종 ‘나는 비록 외국 여자이지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내 몸이 다하도록 주의 일에 종사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지는 그녀는 구세군으로는 처음으로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안장되었다.<sup>54)</sup>

1918년 12월 일본인 선교사관 이시지마 사관 동부인의 어린 두 자녀가 병에 걸려 한 명은 폐렴으로, 다른 한 명은 기관지염으로 악화되었다. 이듬해 1월 3일 저녁 6개월 된 아이가 먼저 하늘나라로 들어갔다. 그리고 5일 아침에는 두 살 된 아이마저 세상을 등졌다.

---

54) 김준철, 『한국 구세군 100년사 1908-2008』 (서울: 구세군출판부, 2008), 106.

“우리는 이제 그들의 몸을 땅에 묻습니다.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갈지니, 이제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그들을 다시 만날 것이라는 소망을 확신합니다.”

이시지마 사관 동 부인은 한국에 온 이후 모두 4명의 자녀를 먼저 땅에 묻어야 했다.<sup>55)</sup>

1920년 1월 12일 설보덕(薛寶德, Bramwell Sylvester) 부관 부인이 홍역에 걸리고 그녀의 세 자녀들도 같은 병에 걸렸는데 1월 19일 밤 9개월 된 아기 더글라스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22일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안장해야 했다. 병은 홍역이 아닌 천연두였고 이들은 즉시 세브란스 병원 보호병동에 입원하였지만 28일에는 4살 된 장남 고든이 병원에서 사망하고 말았다.<sup>56)</sup>

같은 해 2월 서기관장 이도식 부령이 병으로 사망하였다. 역시 천연두 때문이었다. 장례식 다음날 주일 이도식 부령 추모예배가 열렸는데 그 날은 이도식 부령 동부인의 11번째 결혼기념일이기도 하였다. 이도식 부령의 부인은 깊은 충격에 빠져 있었고, 무엇보다 배 속에 아이를 잉태하고 있었다. 그의 부인은 남은 어린 딸들과 함께 한국을 떠나 중국 북경으로 가버리고 말았다.<sup>57)</sup>

곧이어 허일 참모 정위의 부인이 오랜 병환을 이겨내지 못하고 평동 사관학교 구내에 있는 사택에서 사망하였다. 또한 고 부래지 사령관의 아들 링컨 프렌치가 한국에서 사역하는 도중에 건강이 악화되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었다. 1928년 봄 한국 구세군 제5대 사령관 두영서 참장이 건강 악화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 받았지만 끝내 6월 15일 승천하고 말았다. 양화진 제2묘역 28번에 안장된 그의 묘비에는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이렇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한국 개전에 참여

55) 김준철, 『한국 구세군 100년사 1908-2008』 (서울: 구세군출판부, 2008), 148-149.

56) 김준철, 『한국 구세군 100년사 1908-2008』 (서울: 구세군출판부, 2008), 154.

57) 김준철, 『한국 구세군 100년사 1908-2008』 (서울: 구세군출판부, 2008), 155.

하고 있었던 많은 구세군 관계자들의 **마음속에는** 더욱 목숨도 대신할 수 없는 값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싸우다 죽을 것을 다짐하였다. 이들이 다하지 못한 일들은 그들 스스로 나눠 맡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 무엇도 한국 개전을 멈추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을 더욱 강하게 재무장 시켰다.

#### 4. 한국 구세군 사관들의 외침, 1926년 구세군분규사건

1913년 1월 11일 구세군 사관을 양성하는 사관학교를 평동에 새로 건축되어 ‘윌리엄 부스 대장 기념학교’라는 이름을 붙였다. 1915년 1월 15일에는 경성 제1영의 낙성식이 있었으며 1916년 6월 1일에는 열흘 간 한국 구세군 최초의 군국총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허가두는 대장으로 승진하여 만국본영으로 전근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허가두를 대신하여 제2대 사령관으로 정령 부래지(George French)와 3대 사령관 참장 신태빈(William Steven)이 내한하였다.

1919년 조선의 3대 사령관으로 부임한 신태빈 참장은 인도에서 34년 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 그는 영국인들이 인도인 대하듯 조선인을 대했다. 식민지 사람 취급을 한 것이었다. 가령 그는 후생학원을 신축하고 변소를 짓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인도에는 변소가 없고 대변은 까마귀가 다 먹어 치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었다. 그는 조선의 문화 전반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채 인도에서의 경험을 강조함으로써 조선인 사관들의 많은 불만을 사고 있었다. 그러나 그를 뒤이어 부임한 배일수(Wiebe Palstra) 참장은 매우 서민적이었고 조선인들에게 ‘사랑의 인도자’라고 불릴 만큼 조선인들과 매우 친숙하고 융화적인 사람이었다. 특히 그는 조선인 사관들의 입장에서 많은 일을 처리하였다.

그러다 1926년 8월 갑자기 제5대 사령관으로 두영서(James Toft) 정령이 부임하게 되었는데 그는 신태빈 참장과 마찬가지로 인도에서 근무했던 선교사관이였다. 특히 그가 인도군국에서 행한 거만한 태도를 조선인들에게 보이는 것은 분노를 일으킬만했다. 일제하라는 참혹한 환경 속에서 그리고 특히 한국인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지니고 있지 않았던 한 사

령관 밑에서 한국인 구세군 사관들은 많은 불만을 품고 있었다. 두영서 정령은 조선인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조선인들 또한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10월 유구영문의 김덕준 부위가 진정서를 작성하여 조선인 사관들의 처우를 개선하다가 불온하다는 이유로 면직 당하자 조선인 사관들은 외국에서 온 사관들이 자신들을 식민지인으로 취급한다고 느끼게 되면서 더욱 큰 불만이 증폭되고 있었다. 이때 계획된 11월 2대 사령관 브람웰 부스 대장의 조선 방문은 조선인 구세군 사관들에게 하나의 새로운 돌파구였다. 이들은 진정서를 작성하여 마침 한국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 대장에게 전달하려 했다.

이 진정서의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살필 수 있다. 첫째는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요구였다. 조선인 사관들은 선교사들이 재정 내용을 공포하도록 요구하였고 선교자금 등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 밝히기를 요구하였다. 둘째는 차별대우의 폐지였다. 조선인 사관들에 대한 차별대우를 폐지하고 온정주의적인 취급을 중지하도록 요구하였다. 조선인 사관의 부당 파면, 조선인 사관 구타, 선교사의 한국인 구타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다. 셋째, 참정권을 요구하였다. 조선인 사관들에게 행정적 직위가 주어져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구세군의 조선 개전이 18년이 지났음에도 조선인 사관들이 무시당하고 있었다. 지방관은 물론이고 큰 영문까지 서양 사관들이 담임하였다. 30여명의 선교사들이 와 있었는데 그 중에는 자격 미달자도 있었다. 정치적으로 일본인의 억압을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종교적으로까지 억압을 받고 종교 사업에 대한 참정권까지 박탈당해야 하는 사실에 분노하였던 것이다. 넷째, 정화에 대한 요구였다. 선교사들의 성폭행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서 특별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섯째는 생활개선에 대한 요구였다. 조선인 사관의 기본 생활 수준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당시 조선인 사관들은 인간이하의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다.<sup>58)</sup>

이러한 내용의 진정서가 대장에게 보내지기까지 진통이 극심하였다. 선교사관들은 진정서를 전달하고자 하는 조선인사관들이 대장과 접촉할 수 없도록 했고, 11월 7일 서울 승동교회에서 열린 대장 전도집회 때 강대

58) <동아일보> 1926년 11월 11일자, <조선일보> 1926년 11월 11일자 참조

상에 올려놓은 진정서는 두영서 정령에 의해 압수되었다. 이에 기도를 맡은 권용준 사관이 영어로 기도하자 선교사관들이 북을 치며 찬송을 부르는 등 집회는 엉망이 되어 버렸고, 70여명의 한국인 사관들과 병사들은 서대문과 아현의 영에서 대장 면담을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안타깝게도 조선인 사관들의 모든 노력들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 부스대장은 일정보다 일찍 한국을 떠나면서 “군율대로 처리하라”고 두영서 정령에게 지시하였다. 이 사건으로 사관학교는 문을 닫았고 사관학생들은 해산 당했으며 조선인 사관들의 반 이상이 무더기로 면직되었을 뿐 아니라 5개의 영과 13개의 분영이 문을 닫았다. 면직된 사관들은 ‘조선구세군 개선연결대’를 조직하고 항의를 계속했지만 선교사관들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되면서 1926년 구세군 분규사건은 결국 비극적인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다.<sup>59)</sup>

이 사건은 한국 교회사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반선교사 운동이자 민족교회 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서양 사관들의 인종우월주의, 문화우월주의, 민족우월주의 등에서 나온 차별의 문제를 시정하려 한 사건이었으며, 한국 구세군의 운영에 소외된 한국인들의 민족주체적 자각에서 차별의 문제를 시정하고 참정권을 획득하여 한국 구세군을 한국인들이 지도하고 운영하는 한국 토착적 구세군으로 만들고자 하였던 민족교회 운동이었다. 다행히 후임으로 부임한 박준섭(Joseph Barr) 정령은 한국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노력하는 인물이었다.

## 5. 구세군의 이웃사랑

최초의 구세군 자선냄비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에서 조셉 맥피 정위의 사랑실천 전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전직 선장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항구를 방문하면서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그래서 항구의 불행한 사람 1000명을 위한 크리스마스 만찬회를 준비하였는데 당시는 극심한 경제 불황의 시기였기 때문에 자금 마련이 쉽지 않았다. 결

---

59) 김준철, 『한국 구세군 100년사 1908-2008』 (서울: 구세군출판부, 2008), 267.



국 그는 1891년 12월 선원들이 배에서 사용하는 ‘심슨포트’(simpson's pot)라고 불리는 큰 냄비를 가져다가 밖에 걸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냄비를 채우십시오’라고 호소하였다. 도선장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넣은 정성어린 작은 금액의 돈들이 모였고 그 돈으로 가난한 이웃들을 충분히 먹일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구세군은 자선냄비(Christmas Kettle)를 통해 불우한 이웃을 돕기 시작하여 오늘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조선에서는 1928년 12월 15일부터 31일까지 20개소에서 최초의 자선냄비를 시작하여 대한본영에서 가까운 건물에 급식소를 차리고 매일 백여 명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과 밥을 제공하였다. 지금도 구세군 자선냄비는 매년 연말 전국 각지에서 모금 활동을 전개하여 수많은 이웃들에게 특별한 그들의 관심과 사랑을 전달하고 있다. 한국 구세군의 이러한 자선 활동은 종교계를 뛰어 넘어 사회 각계에서 존경과 감동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6. 일제 말 한국 구세군의 수난

일제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강압적으로 전개되었던 신사참배가 교회에도 강요되고 있었다. 일제는 1938년 2월 ‘기독교에 대한 지도 대책’을 세우고 이에 따라 일선 경찰력을 동원하여 개개의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노회, 총회까지 압력을 가해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여기에 반대하는 아주 극소수의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구세군도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구세군 사관학교의 학생들은 신사참배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우상숭배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한 달 후 졸업 임관식을 갖고 견습참위가 되어 각각 임지로 파송되었다. 그러나 일제는 이들의 명단을 입수하여 전국적으로 회의 주동자와 불참항거 발언자를 색출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폭력적인 조사를 받았으며 구세군을 떠나게 되었다. 이러한 강압에 이기지 못한 구세군은 결국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정하였다.<sup>60)</sup>

1940년 가을에는 일제의 강압적인 조치로 구세군의 군대적 특징을 상실하였다. 이때부터 1945년 해방까지 일본연합교단인 '구세단'으로 개편되었다. 이는 영국의 만국본영으로부터 이탈하여 단절된 독립적인 별도의 조직이었다. 선언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들이 포함되었는데 하나같이 구세군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 조선 구세군을 조선 구세단이라고 칭한다.
2. 조선 구세단은 일본 구세단과 긴밀한 제휴 협력을 유지하여 활동한다.
3. 조선 구세단은 구세군 만국본영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4. 조선 구세단은 구세군 만국본영의 보조금을 사양하고 재정의 자금을 기한다.
5. 구세단은 군대식 호칭 및 계급을 쓰지 아니한다.
6. 순일본적인 지도이념 및 기구의 확립, 기타 혁신적 실천 요강의 세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이를 정한다.
7. 근래의 구세군 군령 및 군율 중 위의 혁신에 저촉되는 점은 조속히 개변할 것이다.

## 7. 구세군제일영문

구세군제일영문은 르네상스 양식의 한국 근대 건축물 중 하나로 2002년 3월 5일 서울특별시지정 기념물 제20호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친일기업인들의 모임인 '대정친목회'의 소유였던 땅에 세워진 이 건물은 브람웰 부스 탄생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영국 구세군 건물 클랩톤 콩그레스 홀(Clapton Congress Hall)을 모델로 하여 구세군사관학교의 용도로

---

60) 김준철, 『한국 구세군 100년사 1908-2008』 (서울: 구세군출판부, 2008), 345.

건립되었다. 건립 후 여러 차례에 걸친 내부 공사와 보수 공사가 진행되었고 1959년에 구세군 한국 개전 50주년 기념사업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증축하였다. 지금 현재 구세군사관학교는 1985년 과천으로 이주한 상태이다.

사관학교로 사용되던 시절에 1층은 교무실과 기숙사, 식당, 숙소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고, 2층은 예배실, 교실, 선교사 숙소로 이용되었다. 재미 있는 사실은 성별에 따라 기숙사, 교실, 식당까지 건물 남쪽 부분은 남자가 북쪽 부분은 여자가 사용했다는 것인데 당시 사관후보생들이 부부가 함께 들어왔던 것을 생각하면 군대식의 엄격한 규율이 작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사관후보생들은 부부가 함께 들어오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곳에서 1년 동안 교육받는데, 부부가 헤어져 지내야 했지요. 숙소와 교실은 물론 교무실과 식당까지 남녀로 나눠었습니다. 행여나 이곳에서 머무는 동안 부부 사이에 애가 생긴 것이 후에라도 알려지면 거기에 책벌이 따랐습니다. 여기에 머무는 1년은 금욕적인 수도생활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마다 남녀 학생이 함께 모이는 예배 시간이야말로 부부가 먼빛으로나마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지요.<sup>61)</sup>

현재는 구세군역사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011년 2월 리모델링하여 1층은 100주년기념관으로, 2층은 전시실로 이용하고 있다.

## ■ 구 러시아공사관

덕수궁 정동길을 걷다 보면 이화여고 맞은편에 옛 러시아공사관 탑이 보인다. 웅장한 외관을 자랑하던 옛 러시아공사관 건물은 모두 한국전쟁

---

61) 이덕주, 「개화와 선교의 요람 정동이야기」 (서울: 기독교서회, 2002), 169-170.

외중에서 파괴되었고, 이 탑만 남게 되었다. 지금 현재 한국과 러시아는 수교 관계에 있지만, 옛 공사관 자리는 러시아가 다시 소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한국이 지니고 있는 국제관계의 역사적 상황에 의한 것이라고 짐작할 따름이다. 그러나 이렇게 남은 옛 러시아공사관 탑은 한때 한국과 러시아가 아주 특별한 인연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역사적 순간을 웅변하듯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간략하게 살펴 옛 러시아공사관이 숨겨놓은 역사의 비밀을 조금이나마 들여다보고자 한다.

## 1. 러시아의 한국 진출과 옛 공사관의 모습

구한말 대한제국은 기존의 쇠국 정책을 폐기하고 일본을 비롯한 서구 각 제국과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조약을 통해 서울 정동을 중심으로 외국 공사관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들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대한 정책을 전개한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러시아였다.

한국을 장악하기 위한 여러 제국의 경쟁이 점점 심화되어 갈 무렵 청일전쟁으로 승기를 잡은 일본에게 가장 큰 우려이자 걸림돌이 되었던 나라 역시 러시아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왕을 궁궐에 억류한 채 한국의 국정을 장악하려고 했던 일제의 손에서 탈출하려다 실패한 ‘춘생문 사건’ 이후 고종의 ‘아관파천’은 한국과 러시아의 국제적 관계가 가장 극적으로 전개되는 순간이었다.

1884년 7월 7일 서울에서 칼 베베르와 외무대신 김병시 사이에 체결된 조러수호통상조약은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서의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출범시켰다. 베베르는 당시 북경의 러시아공사관 서기관이었다. 러시아공사관은 러시아의 대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하였다.<sup>62)</sup>

베베르는 조선에 도착하여 1885년 10월 14일 비준서를 교환하고 10월 23일 고종을 알현하는 것으로 주한 러시아 대리공사 겸 총영사로서의 임무를 시작하였다. 베베르는 조러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할 당시 미리 봐두었던 부지를 러시아공사관의 설립 장소로 선택하였다. 그 장소는 미국 공사관, 영국 공사관을 비롯한 다른 외국의 공사관 건물이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각국 공사들과의 긴밀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때문에 이곳에 눈독을 들이는 나라가 여럿 있었지만, 이미 베베르가 러시아공사관 설립 예정 부지로 조선 정부에 미리 신고해 두었기 때문에 손쉽게 그 장소를 차지할 수 있었다. 베베르는 이곳에 있던 한국의 전통 가옥을 임시 러시아공사관으로 사용하면서 공사관의 신축을 위해 애쓰고 있었다.

러시아공사관의 설계와 건축을 책임진 사람은 러시아인 건축기술자 사바틴이었다. 그는 1885년 인천에서 인천해관과 세창양행 사옥, 만국공원 등의 설계와 건축에 참여하였다. 1883년 제물포에 외국인 거류지가 조성되면서 각국 조계지가 설정되었는데 사바틴은 이 조계지를 측량에 나서 1888년 7월 2일 정밀한 조계지도인 ‘대조선인천제물포각국조계지도’를 완성하기도 하였다.

그는 1888년 8월 서울로 올라와 다양한 건축물을 설계하고 건축하였다. 대표적으로는 탑골공원 조성, 독립문 건축, 덕수궁 증명전 및 석조전, 덕수궁 정관현, 손탁호텔, 프랑스공사관 등을 설계하거나 건축하였다. 사바틴은 한국에서 20여년을 지내면서 각종 건축 사업에 종사하다가 러일 전쟁의 발발로 러시아로 귀국하였다.<sup>6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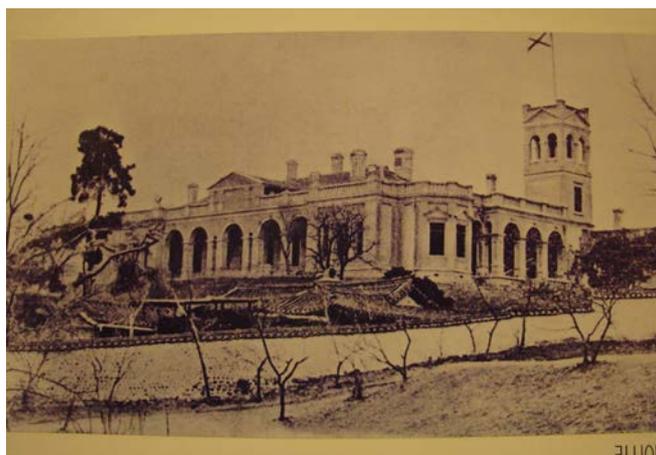
사바틴은 베베르의 요청으로 1885년부터 러시아공사관 설계에 착수하였다. 사바틴이 설계한 러시아공사관은 르네상스 풍의 2층 벽돌 건물로

---

62) 홍우호, “개항기 주한 러시아공사관의 설립과 활동,” 『개항기의 재한 외국공관 연구』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8), 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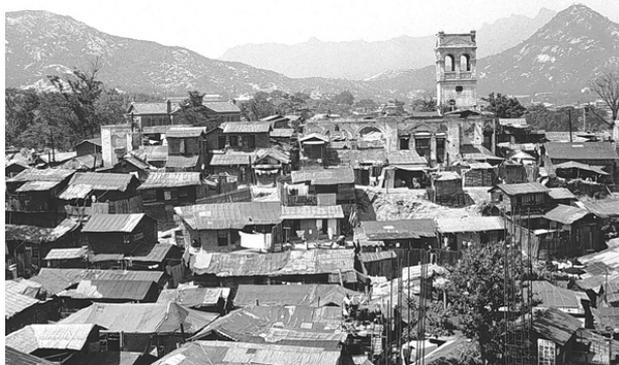
63) 홍우호, “개항기 주한 러시아공사관의 설립과 활동,” 『개항기의 재한 외국공관 연구』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8), 266.

덕수궁에서 바라보면 언덕 위에 중세 유럽의 웅장한 위엄을 보여주었다. 러시아공사관은 약 5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1895년 완공되었다. 이 건물은 해방 후 한때 소련 총영사관으로 사용되었다가 한국전쟁으로 파괴되어 3층 석탑만이 현재 남아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탑의 동북쪽으로 지하실이 있고 이곳에서 덕수궁까지 연결되는 통로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1981년 러시아공사관 유적 발굴 당시 발견되었다. 이 통로는 아관파천 당시 고종황제가 러시아공사관에서 동쪽의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하기 위해 뚫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sup>64)</sup>

1894년에 1월에서 1897년 3월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조선을 방문한 이 사벨라 L. 비숍 여사는 ‘러시아공사관은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고상한 고층 건물과 좋은 외관은 서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상이다’라고 하였다.<sup>65)</sup>



러시아공사관의 입구에는 개선문 형식의 정문이 있었고, ‘ㄱ’자 형태의 단층 건물과 3층짜리 탑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3층탑은** 전망대 역할을 하였다. 러시아공사관 탑은 1981년 재보수를 하였고 주변은 공원으로 조성하여 현재 시민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로 사용하고 있다.

64) 서울학연구소, 『서울의 문화유산 탐방기』 (서울: 숲과 나무, 1997), 289.

65) I. B. 비숍, 신복룡 역,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 (서울: 집문당, 2004), 47.

## 2. 아관파천

1896년 2월 2일 고종은 이범진을 통해 1896년 10월에 신임 주한 전권 공사로 임명된 슈페이에르에게 왕궁을 떠나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하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이 담긴 메모를 전달하였다.

“6월부터 배신자들의 집단이 나에게 집요하게 몰려들고 있었다. 최근에 외국 유행을 따르는 상투의 변화는 적극적인 민중시위를 촉발시키고 말았고 배신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나와 나의 아들을 살해할 수 있다. 나는 생명의 위협을 피하며 왕세자와 같이 왕궁을 떠나 러시아공사관에서 보호를 구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 위협을 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두 공사들은 나에게 보호와 수비를 맡아 줄 용의가 있다고 깊이 믿고 있다.”<sup>66)</sup>

이러한 러시아공사관에 대한 고종의 신뢰는 러시아가 처음부터 조선 정부에 신뢰를 심어주고자 했던 의도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즉 만약 조선의 자주와 독립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는 모든 면에서 협력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에 근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또한 외교에 능한 베베르와 베베르의 부인이 조선 궁중의 깊은 신뢰를 얻고 있었으며 조정에서 다수의 친러세력이 포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베베르가 조선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조선 정부의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베베르는 몸가짐과 언행에 유의하면서 조선의 국왕 및 대신들과 친분을 맺어 나갔고, 조선 정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명성왕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베베르 부인을 동원하였다. 그의 부인도 베베르 못지않게 천부적인 자질과 애정으로 외교관으로서의 역할 그 이상을 훌륭하게 수행하여 미국 공사의 부인과 함께 명성왕후와 매우 절친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

66) 박 벨라 보리소브나, “러시아 공사관에서의 375일”,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18호(1998, 2), 157-158.

고종 역시 베베르와 많은 문제를 의논하면서 베베르는 ‘단 한 번도 과인의 뜻을 저버린 적이 없다’고 하거나, ‘러시아 제국의 황제 폐하께 베베르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전해주기 바란다. 그는 짐과 조선에 선의를 갖고 있는 자로, 짐은 항상 그의 의견을 경청하노라’라고 말할 정도로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다.<sup>67)</sup>

이러한 상황은 청일전쟁의 승리로 동아시아 대륙으로 진출하겠다는 일본에게 걸림돌이었다. 일본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삼국간섭, 특히 명성왕후와 베베르의 결탁이 조선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큰 제약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일본은 외교적으로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베베르보다는 명성왕후를 제거하고자 하는 음모를 꾸몄다. 이 일을 위해 일본은 서울 주재 일본공사 이노우에 대신 미우라 고로(三浦梧樓)를 파견하였다. 그는 부임 37일 만에 명성왕후를 시해 사건을 진두지휘하였다.

러시아의 든든한 지지 세력이었던 명성왕후가 살해된 상황에서 고종은 조선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립할 수 있는 유일한 지지세력 그 자체였다. 1895년 10월 8일 을미사변을 겪으며 고종은 자신도 명성왕후처럼 언제 암살당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밤마다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래서 먼저 미국공사관으로 피신할 계획을 세웠는데, 사전에 발각됨으로써(춘생문 사건) ‘미관파천’ 시도는 결국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던 중 을미의병이 일어나 궁궐을 지키던 친위대 병력 대부분이 의병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춘천과 원주 지방으로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일로 경복궁에 대한 수비가 느슨해지자 고종은 탈출을 감행하였고, 신무문 앞에 대기 중이던 러시아 병사 50여 명의 호위를 받으며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하였다.

이렇듯 고종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베베르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당시의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였다. 1896년 2월 10일 러시아공사관의 보호를 구실로 인천에 정박 중이던 러시아 군함으로부터 포 1문과 러시아 수병 120명이 서울에 들어왔다. 이튿날 새벽 왕과 왕세자는 극비리에 궁녀의 가마에 타고 위장하여 경복궁 영추문을 빠져나와 오전

---

67) 홍웅호, “개항기 주한 러시아공사관의 설립과 활동,” 『개항기의 재한 외국공관 연구』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8), 273.

7시 경에 러시아 공사관에 도착하였다. 야관파천 직후 고종의 명령에 의하여 총리대신 김홍집과 농상공부 대신 정병하가 참형되었고, 내무대신 유길준을 비롯한 10여 명의 고관들이 일본 군영으로 도피한 뒤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탁지부 대신 어윤중은 도피 중에 백성들에게 살해되었고, 외무대신 김윤식은 제주도에 유배되었다. 이와 같이 친일 정권이 무너지자 그동안 은신 중이었던 친러, 친미파 인물이 대거 등용되어 내각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법무대신과 경무사를 겸임하게 된 이범진을 비롯하여 이완용, 이윤용, 박정양, 조병식, 윤용구, 이재정, 안경수, 권재형, 윤치호, 이상재, 고영희 등의 인사가 요직에 임명되었다. 친러 내각은 친일파를 국적으로 단죄하는 한편, 단발령의 실시를 보류하고, 의병을 화유하며 공세를 탕감하는 등 인심수습에 노력하였다. 그리고 갑오, 을미의 개혁사업을 폐지하였다.

야관파천으로 고종이 일본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러시아는 세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파천기간이 길어지면서 불만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베베르의 국왕에 대한 지나친 영향력 행사, 베베르의 옹호를 받고 있었던 대신의 전횡 등이 이러한 불만을 가중시켰다. 이에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국왕의 환궁을 요구하였으며 각지에서 환궁을 원하는 상소가 이어졌다. 고종의 야관 체류 자체가 주권국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고종은 주위의 상소와 러시아 측의 미온한 원조에 실망하여 환궁을 결정하였다. 고종은 1897년 2월 20일 러시아공사관을 떠나 경운궁으로 환궁하였다.<sup>68)</sup>

### 3. 러시아공사관에 대한 기억들

야관파천 당시 러시아공사관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긴 자료가 대략 두 가지 정도 있다. 하나는 미국 북장로회 소속의 의료 선교사이자 한국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제중원의 3대 원장, 그리고 고종의 주치의였던 애비

---

68) 홍용호, “개항기 주한 러시아공사관의 설립과 활동,” 『개항기의 재한 외국공관 연구』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8), 288-289.

슨이 러시아공사관을 직접 보고 기록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공사관 직원이었던 슈테인이 자신의 편지를 통해 남긴 것이다. 이 당시 러시아공사관에 들어온 경험이 있는 에비슨은 건물 내부의 모습을 이렇게 적었다.<sup>69)</sup>

르네상스식으로 장식한 넓은 만찬실은 고종이 거실로 사용하였는데 방의 벽은 꽃무늬 용단이 장식으로 걸려 있고, 천정 가운데는 일곱 가지의 촛불 상들리에가 달려 있어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동쪽 벽에는 소파 모양의 용상이 마련되었고, 그 앞에는 호피 한 장이 깔려 있었다. 그 용상 오른 쪽에 찻잔이 놓인 삼각 받침대, 왼쪽에 돌사자 조각, 그 뒤에 3층 조선장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거실 서쪽 벽에는 왕의 침대, 남쪽 벽에는 소파 세트가 있었다. 이 만찬실에 잇따른 작은 측실에는 왕의 시종을 드는 상궁들이 거처하였고 나머지 궁녀들은 거처하는 방이 없어 공사관 복도에 칸을 막아 지냈다. 그리고 공사관의 무도실에서는 정치를 논의하였다. 이 당시 무도실은 러시아 공사 베베르 부인이 수요일마다 외교관 부부를 초대하여 사교 댄스를 즐겼던 곳인데 아관파천 후에는 친러파의 이완용, 이윤용, 이범진 등의 친러파 대신들의 출입이 잦았다. 고종이 거실로 사용한 만찬실 창 밖에는 행인이 볼 수 있도록 대포 1문이 장치되어 있었고, 정문에서 현관에 이르는 길에는 100여 명의 러시아 수군과 해병대가 수비하였으며, 정문 밖에는 조선 군사가 착검한 채 길목을 지켰다. 한편 이 공사관 마당에서는 러시아 사관들이 조선 양반 자제들을 뽑아 훈련시켰으므로 고종은 러시아공사관에 머무는 동안 이들의 제식훈련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소일거리였다.

또한 당시 러시아공사관의 9등관이었던 슈텐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69) 박경룡, 『개화기 정치의 일변지 정동』 (서울: 상원사, 2008), 147에서 재인용.

왕은 왕궁에 없는 세간과 시설이 완벽한 공사관 안에 있는 아주 좋고 높은 방 2개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옆에 왕의 부역이 배치된 큰 응접실이 있었고 공사관의 마당을 가득 메운 한국 집들 안에 주요한 부서들의 사무실이 있었다. 거기에 각 대신들은 신고하기 위해 수변이 되고 그곳에도 일상적인 사무들이 행해지고 있다. 고종이 오기 전에 그의 방은 군대성 및 육군성과 전화로 연결시켰다. 공사관은 왕의 명령을 기다리는 대신, 환관들의 집회로 가득 찼다. 수병 80명은 높은 손님의 불가침을 지키고 있었으며 그가 매일 창문에서 우리의 용감한 수병들의 모범적인 대열 교련을 볼 수 있었는데 정문 앞의 관장이 대포로 과시하고 있고 공사관의 담을 따라 위병 보초를 배치하고 있었다. 또 무엇을 불행한 왕이 원할 수 있겠는가.<sup>70)</sup>

이러한 아관파천 당시 러시아공사관에 대한 묘사는 불행한 한 국가의 수장이 나라의 힘없음을 한탄하며 강한 군대를 염원하는 장면을 그리게 한다. 당시 한국이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가장 원했던 것은 아마도 열강들의 각축 속에서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었던 약한 한국에 강한 군대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어렴풋이 짐작해 볼 수 있다.

#### 4. 고종황제와 손탁

베베르와 함께 조선에 온 일행 가운데 앙투아네트 손탁이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베베르 처남의 처제였다. 손탁은 베베르의 추천으로 궁에서 서양 음식을 마련하여 외국인을 접대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녀는 고종에게 커피를 소개하였고, 명성왕후에게는 프랑스산 화장품을 제공해 왕실의 환심을 샀다. 손탁 역시 베베르와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가 앞장섰을 때 일정한 역할을 하였고, 을미사변 이후 독살의 위협을 느끼는 고종의 음식을 마련하기도

70) 박 벨라 보리소브나, “러시아 공사관에서의 375일”,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18호(1998, 2), 157-158.

하였다.

특히 손탁은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으로 파견했을 때 가까이에서 고종을 보필함으로써 더욱 탄탄한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 고종은 러시아공사관에 머무르면서 손탁과 베베르 등이 주선하는 연회에 참석한 각국 외교관들을 통해 국제정세를 읽을 수 있었다. 4개 국어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을 유럽인들에게 숙식으로 제공할 정도로 주한 외국인들에게는 대모 역할을 자처하는 손탁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고종은 1902년 10월 덕수궁 옆에 25개의 객실을 갖춘 2층짜리 호텔을 지어 손탁에게 운영을 맡겼다. 당시 외교문서에 ‘한성빈관’(漢城賓館)으로 표기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러시아인 사바틴이 설계한 서울 최초의 호텔인 손탁호텔이었다. 손탁호텔은 1909년 손탁이 프랑스로 떠나면서 매각되었으며, 이화학당에 팔려 기숙사와 교실 등으로 이용되다가 1923년 헐리고 말았다. 지금 그 자리에는 2005년 완공된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이 서 있다.



## 5. 러시아정교회

두 나라가 서로 공식적인 조약을 체결하고, 그 조항에 따라 외교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의미는 비단 정치적이 영역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외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했다. 여기에는 경제, 종교, 문화 등의 제반 요소들이 한꺼번에 복잡하게 얽혀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따라서 러시아공사관에는 러시아의 종교, 러시아의 문화가 같이 포함되어 있었다.

러시아와 조약이 체결되자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러시아의 외교관을 비롯하여 러시아 군인들, 그리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제공할 상인들과 그 밖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이 때 러시아 정교회도 함께 들어왔다. 한국 정교회는 지난 2000년 정교한국전래 백주년을 경축하였다. 1900년 2월 17일 서울 주재 러시아 공사관 부속 소성당에서 한국 땅에서는 최초로 러시아정교회의 성찬예배가 거행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예배는 러시아정교회 초대 한국선교회장을 역임한 대수도사제 흐리산토스 세헛콥스키에 의해 봉헌되었다.

한국에서 정교회의 출현은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 발전에 있어서 당연한 결과였다. 한국 선교 초기에 다수의 영세자들이 한국 북부지방인 황해도와 함경도 주민으로 주로 러시아와 상거래를 하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당시 러시아는 강대국으로 인식되었고 다수의 사람들이 러시아가 지니고 있는 힘을 이용하여 나라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거나 아니면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러시아정교회에 입교하려는 한국인들이 매우 많이 있었다. 이들의 선교활동은 러일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 5. 현재의 구러시아공사관

1904년 초에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다가 러일전쟁이 발발하였다. 이 해 2월에 인천 앞바다에서 러시아 군함 두 척이 일본 해군에 의해서 격침되는 등 러시아의 전세가 불리하여 패전하게 되자 러시아 공사와 그 부인을 비롯하여 러시아 군 80여 명은 일본군에 의해 무장해제 당한 후 인천항을 통해 러시아로 강제 송환되었다.

이에 공관 직원들은 이 건물을 폐쇄하고 프랑스 공사에게 관리를 맡긴 다음 출국하였다. 그 후 러시아와 일본의 국교가 재개되면서 이 건물은 다시 러시아 영사관으로 쓰였다. 8.15 광복 후에도 러시아공사관에는 한 동안 소련 국기가 게양되다가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로 1947년 6월 러시아의 리콜라이 영사는 추방되다시피 하여 38선을 넘어 북으로 갔다. 이 건물은 6.25 전쟁 때 화재를 입어, 1973년 르네상스식 건물의 탑 부분과 지하 2층만 남은 것을 1973년 서울시에서 보수하였다. 이 건물은 사적 253호로 지정되어 있다.<sup>71)</sup>

■ 기독교대한감리회 정동제일교회

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해갔지만  
덕수궁 돌담길엔 아직 남아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밑 정동길엔 아직 남아있어요  
눈덮힌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오월의 꽃향기가  
가슴깊이 그리워지면  
눈내린 광화문 네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밑 정동길엔 아직 남아있어요  
눈덮힌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오월의 꽃향기가  
가슴깊이 그리워지면  
눈내린 광화문 네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밑 정동길엔 아직 남아있어요  
눈덮힌 조그만 교회당

- 이문세, 〈광화문 연가〉

정동교회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노래다. 우리 모두 세월 따라 변해가

---

71) 박경룡, 『개화기 정치의 일번지 정동』 (서울: 상원사, 2008),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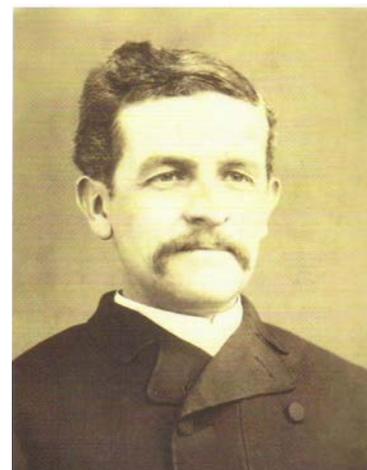
고 떠나가지만, 정동길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인 정동교회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다는 내용. 인간의 무상함을 보여주기 위해 100년 넘게 덕수궁 돌담길 한 자락을 그저 말없이 지키고 서 있는 아담한 빨간 벽돌 교회당을 골라 대비

시킨 것은 작사가의 서정성이 엿보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1897년 개신교 예배당으로는 한국 최초로 완공된 이후 100년이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이렇게 서정적인 가요의 주인공이 되는 날도 오는가 보다.

그 긴긴 시간만큼 정동교회는 숱한 역사적 굴곡과 부침을 겪어야 했고, 우리 민족과 함께 아파해야만 했다. 그 긴긴 시간만큼 정동교회는 한국의 변화를 고스란히 체험해야 했고, 말없이 사람들을 보듬어 안아야 했다. 수많은 인물들이 정동교회를 거쳐 갔고, 수많은 사건들이 정동교회에서 터져 나왔다. 어떤 때는 역사의 회오리 정 중앙에 버티고 섰으며, 어떤 때는 조용히 물러나와 노래 가사에서처럼 그저 말없이 서 있기도 했다. 정동교회는 덕수궁 돌담길의 아름다운 풍경이기도 했으며, 험릴 위기에 몰리기도 하는 힘없이 나이든 건물이기도 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동교회를 빼고는 한국 근현대사를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일들이 정동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사실과, 언덕 밑 정동길 교회당으로 지난 100여 년간 서 있었듯이 앞으로도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이다.

## 1. 설립자 아펜젤러 목사 이야기

정동교회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설립자인 아펜젤러(Henry Gerhard Appenzeller) 선교사가 한국에 도착한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한국에 개신교<sup>72)</sup> 선교사가 처음 들어와 선교활동을 시작한 것은 1884년 9월로, 중국에서 활동하던 장로교 의료선교사 알렌(Horace Newton Allen)이 서울로 파송되어 미국 공사관 소속 의사로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알렌은 특히 1884년 12월 갑신정변으로 부상당한 민영익(명성왕후의 조카)을 치료한 공로로 고종의 신임을 얻고 고종의 어의가 되었으며, 이듬해 1월 27일 조선 정부에 관민합작<sup>73)</sup> 형태의 서양식 병원을 설립할 것을 건의함으로써 광혜원(2주 후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꿈. 현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을 설립할 수 있었다.<sup>74)</sup> 고종은 1884년 미국 북감리회의 매클레이(Robert S. Maclay) 선교사가 한국을 방문하여 국왕에게 선교를 유히해 달라고 청원한 것에 대해, “병원사업과 교육사업에 한해서” 선교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한 바 있었다.<sup>75)</sup> 이에 알렌은 이처럼 제중원을 세우며 의료선교사로 활동했으며, 이후에 들어온 선교사들 역시 알렌 같은 의료선교사나 혹은 교육선교사의 신분을 가지고 내한하게 되었다.

알렌이 이렇게 홀로 한국에서 병원을 세우며 선교를 시작하였지만, 아직 목사 안수를 받은 선교사가 없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사업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감리교와 장로교 소속의 목회 선교사가 각각 한 명씩 임명되어 나란히 한국 땅을 밟았으니, 그들이 바로 감리교의 아펜젤러 선교사와 장로교의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선교사였다.

72) 개신교(改新敎)란 16세기에 루터, 츠빙글리, 칼빈 등이 종교개혁을 일으켜 로마가톨릭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기독교를 일컫는 말로,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Protestant)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로마가톨릭을 천주교로, 개신교를 기독교로 통칭하지만, 사실 영어에서 기독교(Christianity)란 가톨릭(Catholic)과 개신교(Protestant)를 모두 포괄하는 말이며, 프로테스탄트만을 일컬을 때는 개신교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다.

73) 제중원 운영에 있어서 조선정부가 갑신정변 당시 타살된 흥영식의 집을 병원의 건물로 내어주었고 시설비와 경상비를 담당하였으며, 인건비와 소모약품비, 결정적으로 의사의 파송은 미국 선교기관에서 담당하였다.

74) 제중원의 설립과 알렌의 선교에 대해서는 민경배의 『알렌의 宣敎와 近代韓美外交』(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2)와 서정민의 『제중원과 초기 한국 기독교』(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을 참고할 수 있다.

75) Robert S. Maclay, “Korea's Permit to Christianity,”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vol.19, no.4 (April 1896), 287-290.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교사의 신분으로 입국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온 직후 아펜젤러는 2명의 학생을 가르치며 배재학당을 시작하는 일로, 언더우드는 제중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후에 고아원(경신학교 및 연희대학의 전신)을 세우는 일로써 선교 사역에 착수하여야만 했다.

## 2. 배재학당



여기서 배재학당은 정동교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자매기관이었다. 정동교회의 초기 신자의 대부분이 배재학당 학생들이었기 때문이다. 아펜젤러와 거의 동시에 한국에 들어온

또 다른 감리교 선교사로는 스크랜턴(William B. Scranton)과 그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Mary Fletcher Scranton)이 있었는데, 스크랜턴은 현 정동교회 자리에 시병원(1886년)을 설립한 의료 선교사였고, 메리 스크랜턴은 그 옆에 이화학당(1886년)을 세운 교육 선교사였다. 이 가운데 스크랜턴은 내한 직후 제중원에서 잠시 일을 도왔는데, 그 때 2명의 한국인이 서양 의술을 배우러 제중원에 왔다가 스크랜턴을 만났다. 하지만 그들이 의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영어를 비롯한 근대적 교양학문이 우선 교육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스크랜턴은 그 2명의 학생(이점라와 고영필)을 아펜젤러에게 소개했고, 아펜젤러는 그 2명의 학생을 가지고 배재학당을 시작하였다.<sup>76)</sup> 점차 영어를 배우려는 학생이 몰려와 학교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했고, 1887년 2월 21일 고종으로부터 ‘배재학당(培材學堂)’이라는 칭호와 함께 현판을 하사받았다.<sup>77)</sup> 그리고 같은 해 5월 정동 외국인거주지

76) H. D. Appenzeller, “Fifty Years of Educational Work,” Charles A. Sauer, ed., *Within the Gate* (Seoul: Korea Methodist News Service, 1934), 84.

가운데 처음으로 서양식 건물이 들어섰으니, 이것이 최초의 배재학당 당사였다.<sup>78)</sup> 이렇게 시병원과 배재학당, 이화학당이 담을 마주하며 정동 길 한 자락에 모여 차례로 설립되었고, 자연스럽게 감리교 정동 선교구역이 만들어졌다. 이 가운데 시병원이 가난한 이들의 진료를 위하여 남대문으로 자리를 옮기고 그 자리에 정동교회가 들어선 후, 정동에는 정동교회를 중심으로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이 양 옆에 서서 한국 근대화를 이끄는 첨병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3. 정동예배당 건축



정동 아펜젤러의 사랑방에 한국인 예배 공동체가 모이기 시작한 것은 1885년 가을에서 1886년 봄 어간의 일이었다. 아직 전도활동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지만, 한국인들은 선교사들의 집으로 찾아와 새로운 종교에 관심을 보였고, 이 사이에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세례 받기를 청했다.<sup>79)</sup> 그리고

1887년 7월 24일 주일 오후, 배재학당의 학생이었던 박상중이 아펜젤러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한국 최초의 감리교 세례교인이 탄생하였다.<sup>80)</sup>

이렇게 배재와 이화학당 학생들, 학교 직원들 그리고 다른 한국인 구도자들이 점차 아펜젤러의 교회에 모여듦에 따라 아펜젤러는 남대문 한 칸의 한옥을 구입하여 본격적인 예배처를 마련하였고, 1887년 10월 9일 주

77) 아펜젤러, 1887년 2월 21일자 일기, 『헨리 G. 아펜젤러의 문건 II 일기: 자유와 빛으로』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정동제일교회, 1998), 34-35.

78) 아펜젤러, 『일기』, 1887년 5월 12일자.

79) Annual Report of the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886, 278.

80) 아펜젤러, 『일기』, 1887년 7월 24일자; 1887년 10월 11일자.

일 오후에 첫 예배를 드렸다. 예배처의 이름은 ‘벤엘’이었다.<sup>81)</sup>

이후 교회는 성장하였지만, 조선 정부의 갑작스런 전도 금지령으로 1888년 5월 벤엘 예배처는 폐쇄되고야 말고, 신자들은 남녀로 나뉘어 정동과 이화학당에 분산되어 따로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하지만 1894년, 조선 정부의 기독교 유희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와중에 한국 감리교 교인들과 선교사들은 흩어져 있는 남녀 교우들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 건축을 결의하였고, 이듬해 1월 선교 본부는 정동에 교회당을 건축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sup>82)</sup> 건축을 위해 선교본부, 미국 교회, 신학교, 한국 교인들이 성금을 보내왔고, 1895년 8월 7일 정동교회당 건축의 시작을 알리는 정초식이 거행되었다. 여기에는 법무대신 서광범, 외무협판 윤치호 등 정계의 주요관료들이 참석하였는데, 이를 보면 당시 기울어가는 국가의 운명 앞에서 서양의 교육과 서양의 종교가 희망을 가져다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그리고 미국을 통해 일본과 러시아 세력을 견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당시 조선 정부의 바람과 정치적 판단을 엿볼 수 있다.

아펜젤러는 교회당을 짓기 위해 미국 북감리회 본부에 설계도면을 요청하였고, 북감리교회에서 1894년 발간한 교회설계도 도면집 25번 도안을 선택하였다.<sup>83)</sup> 그리고 1897년 5월 9일 천 여 명의 회중이 운집한 가운데 헌당 예배를 드렸다.<sup>84)</sup>

라틴십자형 조지아 고딕양식으로 교회가 정동에 지어지자 이 ‘언덕 밑 서양식 건물’은 단연 장안의 명물이 되었다. 당시는 회색 기와나 초가지붕을 얹은 집이 전부였으므로 빨간 벽돌 건물과 종탑이 세워졌을 때 당연히 화제가 되고도 남았다. 이 건물을 보기 위해 구경꾼들이 줄을 이었다.<sup>85)</sup> 처음 보는 십자가 모양의 예배당 건물 자체는 물론, 남쪽 귀퉁이에 솟은 종탑은 이색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아펜젤러는 자신의 1897년 연례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 바 있었다.

81) 아펜젤러, 『일기』, 1887년 10월 11일자.

82) A. G. Appenzeller's letter to A. B. Leonard, 5 August, 1895.

83) A. B. Leonard's letter to Benj D. Price, 1026 Arch St. Philadelphia, PA, 18 Sept. 1895, 607.

84) 「조선그리스도인회보」, 1897년 5월 12일.

85) 『정동제일교회 구십년사』

교회당에 지붕을 올린 후 8개월 동안 고종황제를 비롯해 시골에서 온 농부들까지도 교회당의 구조에 대해 경이로움을 갖고 구경하러 왔다. 교인들과 외국인들도 감격에 겨워 교회당 주변을 맴돌았다.<sup>86)</sup>

헌당식 이후 몇 달에 걸쳐 특별집회가 개최되었고, 여기서는 부흥집회 뿐 아니라 기념 전람회, 빈민구제를 위한 헌금, 성탄등불축제, 청년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초기에는 예배당 중간에 커튼을 치고 남녀를 구분하여 예배를 드렸으며, 출입문도 남녀 따로 사용하였다.

#### 4. 정동교회와 민족운동

정동교회는 ‘한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 교회이다. 한국 최초의 개신교 예배당, 최초의 여성 세례, 최초의 기도회, 최초의 성탄절 예배, 최초의 주일학교, 최초의 조선어 설교, 최초의 서양식 결혼식, 그



리고 최초의 한국인 담임 목회.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최초’의 교회로서 정동교회는 한국 사회 안에서 민족에 대한 책임감을 그 어떤 교회보다도 강하게 짊어졌다는 것이다.

정동교회 안의 청년들은 3개의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데, 하나는 독립협회요, 하나는 배재학당 협성회요, 마지막 하나는 정동교회 애헤청년회였다. 여기서 독립협회는 사회정치단체였고, 협성회는 계몽단체였고, 애헤청년회는 신앙단체였는데,<sup>87)</sup> 정동교회 청년들은 이 세

86) H. G. Appenzeller, Personal Report, 1897.

87) 유동식, 『정동제일교회의 역사, 1885-1990』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정동

단체에 둘 이상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엽윗청년회 소속의 최병헌·양홍목·주시경·신흥우는 독립협회 출신이었고, 서재필과 윤치호는 독립협회와 협성회에 관여했다.

독립협회의 서재필은 아펜젤러 선교사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는데, 서재필은 정동교회 엽윗청년회 토론에 연사로 참여하여 청년들의 의식을 깨우치는 데 일조하였으며, 그가 1898년 12월 독립협회 해산령이 내려진 후 한국에서 추방당할 때 「독립신문」의 발행운영을 아펜젤러에게 위임하기도 하였다.<sup>88)</sup> 한편, 서재필이 추방당할 당시 다른 독립협회 지도자 대부분은 체포되어 투옥되었는데, 그러자 아펜젤러와 벙커(D. A. Bunker), 게일(J. S. Gale) 등의 선교사는 그들의 석방운동을 펴는 한편 감옥에 기독교 서적과 교양서적을 넣어주었다. 이에 투옥된 사람들 가운데 이승만, 신흥우, 이상재, 이원공, 유성준, 김정식, 홍재기, 안국선 등은 1903년 말 기독교로 개종하여, 소위 ‘옥중개종’ 신자들이 되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이승만은 1904년 출옥 후 아펜젤러 선교사가 있던 정동교회에 출석하게 된다.<sup>89)</sup>

1905년 11월 17일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게 되는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엽윗 청년회 회원들은 연합하여 ‘을사늑약’ 무효화 상소운동을 전개하였다. 여기에는 1902년 순직한 아펜젤러의 뒤를 이어 한국인 첫 담임 목회자가 된 최병헌 목사의 아들 최재학 및 여러 정동교회 청년회 회원들이 참가하였다. 회원들은 상동교회의 공옥학교 청년들과 함께 대안문(현 대한문)에 모이려 했으나 일본 경찰의 탄압으로 대신 종로로 나아가 대중 연설회를 개최하였다.<sup>90)</sup> 이 집회는 일본 헌병대에게 강제 해산 당하였고, 이후 엽윗 청년회는 지나친 정치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일 년 뒤인 1906년 감리교 연회에서 강제 해산 당한다.<sup>91)</sup>

---

제일교회, 1992), 102.

88) 오영교, 『정동제일교회125년사』 (서울: 정동삼문출판사, 2011), 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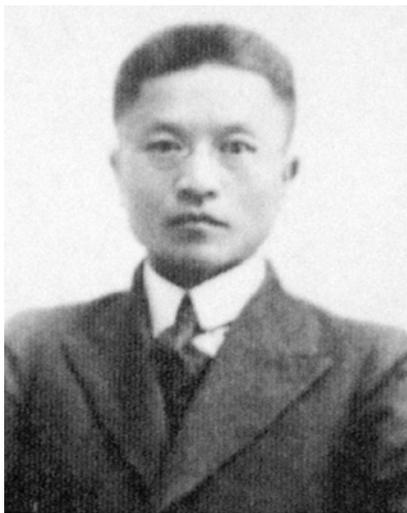
89) 1904년 모두 출옥된 뒤, 이들 옥중개종자들은 우선 모두 게일 선교사가 맡고 있던 연동교회로 갔다가 후에 이원공은 묘동교회로, 이상재는 윤치호, 신흥우와 함께 YMCA로, 유성준은 안국동 교회로, 김정식은 YMCA를 거쳐 일본 동경 한인YMCA 총무로 흩어지게 된다.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8), 243-244.

90) “義甚精確,” 「대한매일신보」 1905년 11월 15일자, 잡보.

91) W. B. Scranton, Missionary Report of the Second Annual Session of the

하지만 정동교회의 민족운동은 수그러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현순, 손정도, 이필주 등 정동교회 담임 목사들의 민족운동 참여와 박동완, 김진호, 강매 전도사의 3·1운동 참여로 극대화 되었다.

현순목사가 민족운동에 뛰어든 계기는 1903년 초기 한인 이민자 60명을 이끌고 전도사로 하와이에 가면서부터였다. 이민 노동자들은 낯선 언어와 풍토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고 있었는데, 이를 목도한 현순은 노동자들을 위한 자치조직을 만들고, ‘신민회’를 조직하여 교육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1907년 귀국한 현순은 목사안수를 받고 1914년 최병헌 목사 후임으로 정동교회에 부임하여 2년간 치리하며 주일학교 운동 등을 통한 교육운동을 이끌었다. 현순목사는 1915년 정동교회를 사임한 이후 본격적으로 민족운동에 앞장서기 시작했으며, 3·1운동 때에는 이승훈·함태영·이갑성·오기선·박희도 등과 함께 3·1운동 준비에 참여하고, 상해주재원(외교통신원)이란 직책을 받게 되었다.<sup>92)</sup> 그리고 곧 상해에 미리가 있으면서 국제정세와 파리강화회의에 관한 정보를 국내에 전하는 한편 독립청원서를 미국 대통령과 강화회의 대표에게 보내는 책임을 맡았다. 3·1운동 이후 그는 상해에서 임시정부 조직을 준비하고 독립임시사무소의 총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외무차장 등을 역임하며 임시정부 수립의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sup>93)</sup>



현순 목사의 뒤를 이어 정동교회 담임 목사로 온 사람은 바로 대표적인 기독교 민족운동가로 평가받고 있는 손정도 목사였다. 손정도 목사가 민족운동에 헌신하게 된 것은 그가 감리교의 중국 선교사로 파송 받아 1910년 북경으로 건너간 후, 그곳에서 비밀결사 단체 신민회 핵심인물인 안창호, 조성환 등을 만나면서부터였다. 이후 하얼빈으로 옮겨 만주 땅

Korea Mission Conference of the M.E.C., 1906, 322.

92) Soon Hyun, 『현순자사(My Autography)』 (Yonsei University Press, 2003), 291-292.

93) 오영교, 『정동제일교회125년사』 (서울: 정동삼문출판사, 2011), 260.

에서 한국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전도와 민족운동을 하던 그는 1912년 일본 정부가 날조한 일명 ‘가쓰라 암살음모사건’의 주모자로 체포되어 조선 총독부 경무부로 압송되어 왔다. 이미 1911년에 일본 정부는 한국 기독교계 민족 지도자를 탄압하기 위해 일명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사건(105인 사건)’을 날조하여 서북지역 기독교 인사 105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투옥시킨 바 있었는데, 일 년 뒤 두 번이나 일본 수상을 역임한 바 있던 가쓰라 타로가 일본 정부특사로 러시아로 가는 길에 하얼빈을 통과하였을 때, 하얼빈의 한국인들이 가쓰라를 암살하려 했다는 누명을 씌워 한국인들을 체포한 것이다.<sup>94)</sup> 이때 손정도는 북간도에 무관 학교를 세우고 독립운동의 기지를 마련하려 했다는 죄목이 첨가되었는데, 그러나 증거가 불충분해 일본 정부는 그를 ‘거주제한 1년’의 유배형을 내리고 전라남도 진도로 보냈다. 1913년 유배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손정도는 2년 뒤인 1915년에 정동교회 담임목사로 파송을 받게 된다. 손정도 목사가 정동교회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1906년 감리교 연회에서 강제 해산된 엡윗 청년회를 10년 만에 부활시킨 것이었다. 1911년 손정도는 안창호에게 편지를 보내, 기독교 청년회를 통해 민족주의 구국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바 있는데, 정동교회 담임을 맡게 되자마자 바로 실천에 들어갔고, 이것은 바로 배재학당과 이화학당 학생들의 힘을 한 곳에 결집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후 손정도 목사는 1918년 정동교회를 사임하고 상해로 건너가 1919년 4월 10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의정원이 결성될 때 초대 부의장에 선출되었으며, 이후 ‘군인 양성과 독립전쟁 비용 조달’을 위한 노병회(勞兵會)를 창설하여 노공부장으로 활약하기도 하였다.<sup>95)</sup>

1918년 사임한 손정도 목사의 뒤를 이어 정동교회 담임을 맡게 된 목사는 다름 아닌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사람인 이필주 목사였다. 이필주 목사 시절 정동교회에는 한국 최초의 파이프 오르간이 하란사 여사의

94) 최봉칙, “고 해석 손정도 목사 략전(二),” 『기독교 종교교육』, 1931, 64-65.

95) 이현희, “孫貞道 목사와 상해임시정부,” 「제1회 아펜젤러 학술강좌 자료집」 (서울: 정동제일교회 역사편찬위원회, 1999), 13-20.



노력 끝에 미국 교포들의 성금으로 설치되기도 하였다.<sup>96)</sup> 이필주 목사는 기독교 민족운동의 핵심체였던 상동교회 출신이었는데, 이때 친분을 쌓은 이상재, 최병헌, 최성모, 오화영, 신흥식, 박동완, 손정도, 현순 등과의 관계는 1919년 3·1운동으로 그대로 연결되었다. 그는 정동교회 목사관을 민족 대표와 학생대표들에게 3·1운동 모의장소로 제공했으며, 자신도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사람으로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2년간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부

터 1942년 사망할 때까지 그는 일제의 철저한 감시와 탄압 속에 생활해야만 했다.

정동교회는 3·1 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미국 윌슨 대통령과 파리평화회담에 송부하는 독립탄원서를 현순 목사와 전도사 김지환이 맡아 만주 안동에 있던 김병농 목사를 통해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국내의 각국 영사관에 독립선언서를 전달하는 일은 이필주 목사와 교인이었던 배재학교 교사 김진호가 맡았다. 또한 민족 대표 33인은 기독교 대표 16명, 천도교 대표 15명, 불교 대표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독교 대표 16명 가운데 정동교회 담임목사 이필주와 전도사 박동완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따라서 정동교회 교인들과 배재, 이화학당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3·1운동에 나섰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정동교회 교인이었던 배재학당 학생 중 수십 명이 체포되어 고문을 당했고, 이화학당 학생은 유관순을 비롯하여 수많은 학생들이 체포 뒤 고문을 당했다. 3·1운동 이후에도 정동교회 청년회는 파이프 오르간의 송풍기 속에서 독립신문을 제작하면서 민족운동을 이어갔다.

당시 3·1운동이 끝난 뒤, 1919년 6월 30일에 일제가 낸 통계에 따르면 3·1운동과 관련하여 투옥된 9,458명 가운데 기독교인은 2,087명으로 전체의 22%가 넘었다.<sup>97)</sup> 당시 기독교인은 한국 전체 인구 가운데 1.3%에

96) 하란사, “오근을 사노코,” 『신한민보』, 1917년 9월 20일자.

97) 이만열, “3·1운동과 한국기독교,”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 (서울: 지식산업사, 1991), 349-350.

불과하였는데, 체포된 것은 전체의 20%가 넘었던 것이다. 그리고 정동교회는 목사 이필주와 전도사 박동환, 정동교회의 “양대 기둥”과 같았던 김진호, 정득성, 그리고 교인 구성원이었던 배재, 이화학당의 교사, 학생들이 다수 체포되어 가면서 큰 어려움과 시련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일제의 탄압과 경계의 대상이 되어 정동교회는 점차 절제운동과 여성운동 등 계몽운동으로 눈을 돌려 헌신하게 된다.

정동교회에서는 배재, 이화학당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자주 진행되었는데, 특히 “여자 목사가 가하뇨?”라는 주제로, 윤치호(반대)와 양주삼(찬성) 두 팀으로 나뉘어 논쟁을 벌였던 일도 있다. 이 토론회를 지켜보던 이화, 정신, 배화의 여학도들의 총명한 눈빛들이 모아지지 않았다면, 1931년 감리교회에서 한국 최초의 여성목사를 배출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을지도 모를 일이다.<sup>98)</sup> 그리고 나도향, 전영택 등이 정동교회에서 작품 활동을 하며 후진을 양성했고 「창조」, 「백조」 등의 주요 문학동인지가 이곳을 중심으로 탄생했는가 하면, 정동교회가 소설의 주요 배경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1922년에는 한국 최초로 여름성경학교가 개설되는 등 선구적인 선교활동이 전개된 공간이 바로 이곳 정동교회였다.

## 5. 이승만과 대통령의 교회

1945년 광복 이후 정동교회는 대통령의 교회로 다시 한 번 주목을 받는다. 이승만은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부터 기독교를 나라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확신을 거듭 표명해 왔다. 그리고 이런 신념은 그의 정치행보에서도 드러나는데, 1949년 5월 27일 소집된 ‘국회의원 예비회의’에서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다음 이 회의에서 국회의원 선서문을 통과시키는데, 마지막 구절에 “충성과 노력을 다할 것을 이에 하나님과 순국선열과 3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sup>99)</sup>을 포함시켰고, 며칠 뒤인 31일 초대 국회를 개회할 때 임시의장으로 추대된 이승만은 회의 중에 감리교 목사이자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이윤영으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

98) 홍이표, “홍도사의 역사이야기(3).”

99) 「조선일보」, 1948년 5월 28일자.

후 한국 초대 정부를 수립하는데 기독교 인물을 대대적으로 영입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정동교회는 바로 이러한 ‘대통령의 교회’로 역사 속에서 다시 한 번 맹위를 떨치지만, 이는 정상적인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아니었으며 4.19혁명 이후 비정치화의 길을 택했다.

## 6. 헐릴 위기에 처한 정동예배당

한편, 1970년대에 접어들어 교인의 증가로 정동교회는 기존의 예배당 만으로는 교인들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정동교회는 예배당을 헐고 그 위에 더 크고 웅장한 새 예배당을 짓고자 계획하였고, 이를 위해 감리교 교단의 허락을 받고자 교단에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감리교 교단은 정동교회 중심으로 하는 소위 ‘정동파’와 대치되는 반대파가 장악을 한 상태였고, 반대파는 정동파가 하는 일에 비협조적으로 나와 예배당 신축 허가는 차일피일 미뤄지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 정동예배당의 문화재적 가치를 인식한 문화재청이 위기의식을 느껴 1977년 11월 22일 사적으로 등록해 버렸고, 결국 정동교회는 예배당을 헐고 싶어도 헐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당시 이러한 교단 내부의 갈등이 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다행으로, 이를 통해 100년 넘은 최초의 개신교 예배당, 즉 “언덕밑 정동길의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 7. 정동교회 둘러보기

현재의 정동교회는 1897년 세워진 문화재 예배당과 1979년 세워진 본당 그리고 사회교육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가정 먼저 둘러야 하는 곳은 다름 아닌 문화재예배당. 1897년 건축되었을 때는 라틴십자형 모습이었으나, 이후 증가하는 교인들을 수용하기 위해 1916년과 1926년에 두 차례에 걸쳐 증축하여 직사각형 모양의 예배당이 되었다. 아담한 규모이지만, 고딕양식답게 종탑과 동쪽 벽면 위에 원형 장미창을 내었고,

나머지 창문은 모두 아치형으로 하였다. 하지만 내부는 중세 고딕양식의 특징인 높고 화려한 부채꼴 둥근 천장이 없으며, 아치형 기둥도 세우지 않았다. 대신 후진 중앙에 강대상을 두고 그 아래 절제된 형태로 성찬 제단을 배치하여 18세기 영국 비국교도(청교도)들의 예배당 양식의 특징을 일부 갖추었다. 즉, 정동교회는 외부적으로는 중세 가톨릭 교회의 고딕양식을 취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개혁신교회 예배당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sup>100)</sup>

예배당 후진에는 전면이 거대한 타원형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다. 이것은 1918년 하란사 여사가 미국에서 모금활동을 해 설치한 본래 파이프 오르간이 한국전쟁 때 파괴된 이후, 1993년에 이르러 다시 설치한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파이프 오르간을 바라보고 있어도, 100년 전 저 뒤에 숨어 태극기를 그리고 독립운동을 모의했을 정동교인들의 모습은 아른거리는 것 같다. 또한 예배당이 처음 세워졌을 당시에는 예배당 가운데 커튼을 걸어 왼쪽에는 남자 교인들이, 오른쪽에는 여자 교인들이 앉았고, 뒤편 양 옆에 있는 문도 왼쪽은 남성전용, 오른쪽은 여성전용이었다. 당시의 이런 예배 풍경들을 상상하면서 예배당을 둘러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가 있을 것이다.

예배당 후진 강단 오른쪽에 있는 강대상은 이곳 문화재예배당 안에 있는 유일한 유물이다. 이것은 예배당이 처음 지어질 당시에 일본 나가사키에 있던 같은 감리교 계통의 가츠이(活水) 여학교 설립자 러셀(E. Russell)이 기증한 것으로, 강대 의자 세 개와 함께 일본에서 제작된 것이다. 놀린 형태의 육면체로 만들어진 강대상에는 꽃문양이 조각되어 있고, 전면에 한문으로 “전문전도(專務傳道)”와 “신망애(信望愛),” 즉 “온 힘을 다해 전도하라”는 말과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건물 종탑에 걸려있던 종은 1902년 성경 번역자회 모임에 참석하러 목포로 가던 도중 선박 추돌 사고로 사망한 아펜젤러 목사를 기념해 1907년 미국에서 제작된 종이었다. 아펜젤러의 뒤를 이어 정동교회 담임을 맡은 한국 최초의 신학자 최병헌 목사는 이 종의 이름을 “세상을 깨우는 종”이라는 의미의 ‘경세종(警世鐘)’이라 붙였다. 일제강점기 말기 공출되

100) 이덕주, 『개화와 선교의 요람, 정동이야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120.

어갈 뻔 했으나 다행히 살아남았고, 한국 전쟁 때에도 용케 폭격의 틈바구니 속에서 온전히 살아남아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예배당을 둘러봤다면, 사회교육관 5층에 자리한 ‘만곤 기독교 역사자료실’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여기에는 아펜젤러와 그의 아들 헨리 닷지 아펜젤러(배재학교 4대 교장), 딸 앨리스 아펜젤러(제6대 이화학당장, 초대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장)의 사진과 유품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눈여겨 볼만한 것은 아펜젤러 선교사가 선교여행을 다닐 때 사용한 휴대용 성찬기로서, 은으로 제작된 떡 상자, 포도주 잔, 주전자, 접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헨리 닷지 아펜젤러가 루스 노블과 결혼한 후의 삶을 찍은 동영상이나 사진도 엿볼 수 있다.

## ■ 이화학당

이화(梨花)는 배꽃이라는 뜻이다. 배나무 가지 위에서 작지만 순백의 아름다움을 당당하게 뽐내며 그 자태를 드러내는 배꽃을 보면, 아무지면서도 당당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배꽃은 대한제국 황실을 상징하는 꽃이었다. 대한제국 시기 건축된 황실의 건물에는 배꽃 문양이 건물 맨 위, 중앙에 찍혀졌고, 황실에서 발행한 문서에도 이 배꽃 문장(紋章)이 찍혀 황실의 권위를 드러냈다.

명성황후는 한국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에게 바로 그 황실의 꽃 이름을 하사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이화학당이다. 근대 여성교육의 선구자요, 여성운동의 구심체가 되었던 이화학당.



아름답고 가냘 퍼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보다 몇 배나 큰 과실을 맺고야 마는 배꽃처럼, 이화학당도 역사 속에서 단단한 열매를 맺고 또 맺었다.

## 1. 설립자 메리 스크랜턴 이야기



이화학당의 설립자는 메리 스크랜턴(Mary Fletcher Benton Scranton)이라는 미국에서 온 기독교 선교사였다. 스크랜턴은 1885년 감리교 선교사 가운데 하나로 한국에 들어와 1909년 사망하여 양회진 외국인 묘지에 안장

될 때까지, 24년간 한국의 여성 교육을 위해 힘썼다.

1885년은 한국에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장로교의 알렌(Horace N. Allen) 박사가 들어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는 시점이었다. 1884년 12월 있었던 갑신정변으로 시국은 뒤숭숭했고 정치도 불안정했다. 그런 가운데 메리 스크랜턴은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 박사와 함께 여성 선교사로서는 최초로 해외여성선교회(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의 파송을 받아 한국에 들어왔다.

19세기 후반 미국과 서구 국가에서 여성의 인권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 당시의 조선과 비교한다면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졌고, 사회생활도 가능했다. 하지만 법과 제도는 교육으로 높아진 여성들의 의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당시 선교사들의 부인은 '조력적인 선교사'로 간주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교회 안에서 투표권조차 없었다. 미국 사회 안에서 여성들이 투표권을 갖게 된

것이 1920년이요 영국은 1918년이니, 19세기에 그것도 보수적인 기독교 선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투표권을 갖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투표권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도 남성보다 낮았고, 사회적 존경도 남성들의 독차지였다. 대학을 나오고, 의대를 나와도 미국 사회 내에서는 언제나 2 등 국민이었다. 자존감을 찾기는 어려웠다. 이런 19세기 상황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기독교 여성들은 선교사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해외 선교지에 나가면 자신이 주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현지인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으며, 선교 개척자로서의 소명감과 성취감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야말로 일석 삼조였다. 자신의 능력을 제약 없이 펼칠 수 있었고, 힘들여 얻은 결과에 대해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감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사회적 제약을 스스로 타파하고자 외국행을 선택한 여성 선교사들. 메리 스크랜턴은 그 가운데 한국에 온 첫 번째 감리교 여성 선교사였다. 하지만 당시 52세였던 메리 스크랜턴이 선교사로 임명되어 파송되기는 쉽지 않았다. 여성을, 그것도 나이가 많은 여성을 해외 선교사로 보내는 것이 선교회로서는 내리기 힘든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메리 스크랜턴 자신도 52세나 되는 나이 때문에 공식적인 임명을 사양하였다. 하지만 해외여성선교회의 간곡한 청탁으로 스크랜턴은 첫 선교사 임명을 수락하였다.

메리 스크랜턴은 40세가 되던 해에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인 윌리엄 의사 부처와 함께 생활해왔고, 아들이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받도록 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바 있었다.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은 감리교 선교사로 아펜젤러와 함께 1885년 내한하였고 한국 초대 감리교 감리사를 맡아 한국에서 감리교회가 뿌리를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장로교에서 제중원을 세워 양반과 식자층을 중심으로 의료 활동을 진행해 나갈 때, 스크랜턴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병원이 필요함을 느끼고 남대문으로 자리를 옮겨 시병원을 세웠고,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선교본부가 친일적 선교정책을 내세우자 이에 반대하여 한국 선교사직에서 은퇴하여 독자적으로 의료 활동을 펼 인물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한국 사랑이 남달랐던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과 함께 메리 스크랜턴은 한국 선교사로 첫 발을 디디게 된다.

## 2. 이화학당의 설립과 첫 학생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도착해 바라본 여성의 삶은 비참했다. 여성 선교사들은 조선 여성들의 삶을 한마디로 “노예”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이상적인 유교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했고, 유교 이념뿐만 아니라 그 사회윤리의 보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유교사회에서는 음양의 원리에 따라 태어날 때부터 남녀를 구별된 존재로 보고 그에 따른 역할을 강조했다. ‘남존여비(男尊女卑)’, ‘양강음약(陽強陰弱)’ 등의 말은 말 그대로 여성들의 지위와 권한을 상징한다고 보았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으로서, 남자는 우주만물을 형성하는 근원이며, 여자는 그에 종속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이러한 불평등한 남녀관계는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는 동안 줄곧 교육을 통해 주입되었다. 조선사회는 일부 양반가의 사례를 제외하고 여성들에게 상징적 사고를 가능케 하는 문자 문화에 접하지 못하게 했다.<sup>101)</sup>

이처럼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는 여성들이 글을 배우고 책을 읽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글을 배우다는 것은 인지능력을 깨우친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인지능력을 깨우치는 것은 비판적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을 의미했다. 제도에 대한 비판적 사고는 곧 유교 윤리에서 ‘운명’의 이름으로 강요하고 있는 여성들 자신의 상황을 깨뜨릴 위험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한국 상황을 목도한 메리 스크랜턴은 이를 타개하고 한국 사회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여성 교육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서울에 도착한 직후인 1885년 8월에 감리교 선교부와 인접한 정동의 땅을 물색하여 해외여선교회에 그 땅을 여학교 교사(校舍)와 여성을 위한 진료소 부지로 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그 해 10월 23일 초가집 19채가 들어서 있던 토지 약 6,120평을 450달러에 구입하고 1886년 2월 큰 한옥 기와집 형태의 여학교 교사를 건축했다.<sup>102)</sup>

101) 이순구, “여성생활, 『조선시대상활사』 (서울: 역사비평사, 1996), 116-121.

102) 이화100년사편찬위원회, 『이화100년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4), 48.



메리 스크랜턴이 첫 학생을 얻어 수업을 시작한 것은 건축이 한창 진행 중이던 1886년 5월 어느 날이었다. 서울에 도착한 직후부터 여학생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성들의 교육을 꺼리는 봉건적 관습 때문에 학생 모집부터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마침내 바라던 첫 학생이 스크랜턴을 찾아왔는데, 첫 지원자는 기혼 여성으로서 가마를 타고 하인을 거느리고 정동으로 찾아왔다.<sup>103)</sup> 고관의 소실이었던 김부인은 영어를 배워 왕비의 통역이 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배우는 일에도 상당한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김부인은 병에 걸려 석달 만에 학교를 그만두고 만다.

김부인이 온 지 한 달쯤 된 6월 말, 10살쯤 된 꽃님이라는 소녀가 메리 스크랜턴을 찾아왔다. 가난한 어머니가 도저히 딸을 키울 수 없어 선교사에게 맡긴 것이다. 이렇게 꽃님은 이 학교의 첫 정규 학생이 되었다. 두 번째 정규 학생은 별단이로, 1886년 여름 서울에 콜레라가 유행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 성 밖에 버려지고 있던 시기, 윌리엄 스크랜턴의 사는 성 밖을 지나다 서대문 밖에 쓰러져 있는 여성과 어린 아이를 발견하여 자신의 감리교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였는데, 이때 발견된 어린아이가 바로 별단이었다. 이렇게 이화학당의 초기 학생들은 대부분 고아나 과부, 첩과 같은 소외계층이었다.<sup>104)</sup> 그리고 네 번째 학생이 김점동으로,

103) 이화100년사편찬위원회, 『이화100년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4), 50.

104) 이효재, “한국교회 여성100년사: 개관과 전망,” 『여성!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한국기독교 여성 100년사』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23-26.

바로 한국 최초의 여성 의학 박사가 되는 박에스터였다.

### 3. 보구여관과 박에스터



THE LATE MRS. ESTHER KIM PAK, M.D.  
KOREAN'S FIRST WOMAN DOCTOR.

1884년 장로교의 알렌 선교사가 내한한 이후 일 년 뒤인 1885년, 장로교는 제동(齊洞)에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을 설립하여 의료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감리교의 경우 윌리엄 스크랜턴이 1885년 내한한 이후 정동에 시병원(施病院)을 열어 환자들을 치료하였다. 하지만 당시 한국사회에서 한국여성이 서양남성 의사에게 나아가 진찰을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메리 스크랜턴은 서울에 여성과 어린이 전용 병원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미국 선교본부에 여의사 파송을 요청하였다. 그 노력의 결실로 1887년 10월 20일 하워드(Meta Howard)가 여의사로서는 최초로 내한하였고, 곧 이화학당 구내에서 한국 최초의 부인병원을 시작하였다. 이를 가상하여 명성황후는 ‘보구여관(保救女館),’ 즉 “여성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기관”이라는 병원의 이름을 지어 하사하였다. 2년간 보구여관에서 환자들을 살핀 하워드는, 그러나 2년 뒤인 1889년 건강 악화로 귀국하였고,

그 뒤 하워드의 뒤를 이어 로제타 셔우드 홀(Rosetta Sherwood Hall)이 내한하여 보구여관을 돌보았다.

한편, 이화학당의 네 번째 정규학생인 김정동은 아버지가 아펜젤러 선교사의 조사가 되면서 10세 때 아펜젤러의 소개로 메리 스크랜턴을 만나

이화학당에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된다. 신앙심 깊고 영리했던 김점동은 1891년 세례를 받으며 에스더라는 세례명을 갖게 되면서 김에스더로 불리게 되었다. 특히 영어에 소질을 보인 김에스더는 메리 스크랜턴의 추천으로 보구여관에서 일하고 있던 로제타 셔우드 홀의 통역을 담당하게 되었고, 틈틈이 그에게서 의학을 공부하며 간호보조 일까지 보게 되었다. 이화학당에서 10년 간 공부하면서, 에스더는 산수, 과학, 지리, 오르간 등 서양식 신교육을 받았고 점차 그 과정에서 의사가 되고 싶은 소망을 품게 되었다. 하지만 1890년대에 한국여성이 미국으로 건너가 의학교에 유학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꿈에 불과했고, 16세가 되던 1892년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박유산과 결혼하였다. 서양에서 결혼 후 여성들이 남편 성을 따르는 것을 좇아 김에스더는 이후 박에스더로 불리게 되었다. 이후 계속 로제타 홀을 돕던 박에스더는 로제타 홀과 그의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이 평양으로 선교지를 옮길 때 남편 박유산과 함께 평양으로 따라갔다. 하지만 윌리엄 제임스 홀 박사는 1894년 전염병으로 사망하고 충격과 슬픔에 빠진 로제타 홀은 이제 갓 돌을 넘긴 아들 셔우드 홀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때 로제타는 박에스더와 그녀의 남편 박유산을 1895년 미국으로 불러 박에스더가 미국에서 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렇게 미국 유학의 기회를 얻게 된 박에스더는 우선 뉴욕 리버티의 공립학교에 등록하여 6개월 간 고교 과정을 이수하였고, 그 후 뉴욕 아동병원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버는 한편 대학입학에 필요한 물리학, 수학, 라틴어 등을 공부했다. 그리고 1896년 10월, 이제 20살이 된 박에스더는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Woman's Medical College of Baltimore)에 입학하여 정규 의학과정을 밟게 된다. 이렇게 동양 여성으로서 미국의 정규 의학 과정을 모두 밟고 1900년 6월 졸업을 2달 앞둔 어느 날, 유학시절 내내 박에스더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며 뒷바라지를 해 주던 남편 박유산이 폐질환으로 사망하고 만다. 박에스더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졸업 시험을 치러야 했고 6월 한국여성으로서 최초로 의학박사학위를 받고 10월 한국으로 홀로 돌아온다. 박에스더의 귀국 소식은 1901년 1월 창간된 「신학월보」에 다음과 같이 기사로 실렸다.

부인의학사 박소사 환국하심: 6년 전에 박여선씨 부인이 이화

학당에서 졸업한 사람인데, 내외간 부인 의학사 홀씨를 모시고 미국까지 가셨더니 공부를 잘하시고 영어를 족히 배울뿐더러, 그 부인이 의학교에서 공부하여 여의학사의 졸업장을 받고 지난 10월에 대한에 환국하였느니라. 공부가 여러 해 되었는데, 그 동안 박여선씨는 세상을 떠나시고 그 부인이 혼자 계시매 섭섭하온 마음을 어찌 다 위로하리오마는, 미국에 가서서 문견과 학식이 넉넉하시매, 우리 대한에 무식한 부녀들을 많이 건져내어 예수 그리스도 교에서 나오게 하시기를 바라오며, 또 대한에 이 같은 부인이 처음 있음을 치하하노라.<sup>105)</sup>

한국에 돌아온 박에스더는 정동 보구여관에서 1903년 3월까지 의사로서 환자들을 돌보았는데, 이때 매년 3천 4백 여 명에 달하는 환자를 진료하였다. 그리고 1903년 로제타 홀이 안식년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자, 홀 부인의 권유로



평양 기호병원으로 옮겨 홀 부인과 함께 7년 간 의사로 이름을 떨쳤다. 박에스더는 보구여관에서 간호양성소를 설립하기도 했으며, 평양으로 부임 후에는 평안남북도 및 황해도 일대의 각 촌락을 순회하면서 가난한 농촌 여성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었고, 여성성경학원도 설립해 복음전도 사업에도 헌신하였다. 하지만 박에스더는 지나친 과로와 업무로 결핵에 걸려 1911년 4월 13일 세상을 떠나고 만다. 한국에 돌아와 의사로서 헌신한 지 10년 만의 일이었다.

이후 보구여관은 1899년 동대문으로 옮겨졌고 1909년 동대문 옆에 한국 최대 규모의 부인병원 건물을 지으면서 거듭났다. 그리고 1930년경부터 동대문부인병원으로 불렸고, 해방 후부터 이화여대 부속 동대문병원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이화가 낳은 인물이자 보구여관이 낳은 인물 가운데 가장 숭고한 삶을 살았던 박에스더의 정신은 현재 이화여대 의대를

105) 「신학월보」 제1권 제1호 (1901년 1월), 14.

통해 이어져 나가고 있다.

#### 4. 이화학당의 민족운동

1886년 4명이던 이화학당의 학생 수는 이후 1887년에 12명, 1890년에는 28명, 1901년에는 76명, 1910년에는 177명으로 점차 증가하였다.<sup>106)</sup> 학생 수의 증가만큼이나 교사들의 교과운영과 학제도 변화에 변화를 거듭했고 점차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 고등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해 나갔다. 그리고 이렇게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된 어린 학생들은 자신들이 당면한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 점차 국가와 민족에 대한 책임감에 눈을 뜨게 되었고, 이화학당의 학생들은 1910년대 후반 민족운동의 최전선에 서게 되었다.

이화학당은 3·1운동에 가장 열성적으로 참여한 학교였다. 고종이 승하하자 이화 학생들은 망국의 백성으로 호곡하면서 흰 옥양목으로 된 상복을 입고 검정 땀가죽을 매고 대한문 앞에서 망곡을 하였다. 그리고 곧 3·1운동이 발발하자 한국인 선생들이 학생들을 파고다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시 이화학당 당장이던 프라이 선교사(L. E. Frey)에게 허가를 요청하였다. 그러자 프라이 선교사는 자신도 학생들과 함께 간다고 선언하고 거리로 나가 만세 행렬에 동참했다. 3월 5일 시내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다시 일어나자 이화 학생들도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 하였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프라이 선교사가 이를 막아섰다. 그러나 프라이 당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학생 약 20여 명은 결국 남대문으로 나가 시위행진에 동참했고, 많은 학생들이 체포되었다. 대부분은 곧 석방되었으나, 박인덕 선생과 신준려 선생, 그리고 학생 5명은 구속되어 각각 5개월 넘게 감옥살이를 하였다.

3·1운동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을 한 명만 꼽으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주저 없이 유관순을 선택할 것이다. 충청도 천안 출신인

---

106) 이화100년사편찬위원회, 『이화100년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4), 58-59.

유관순은 어렸을 때 남감리교 학교인 공주 영명학교에서 수학하다 이화학당으로 옮겨 학업을 계속하였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했던 유관순은 이화학당 옆에 있던 정동교회에 출석하며 신앙과 학업 생활에서 모두 모범을 보여 왔다.



3·1운동 당시 유관순은 6명의 이화 시위결사대원들과 함께 3월 1일 탑골공원 시위와 3월 5일 남대문 시위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3·1운동으로 모든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자 고향으로 내려가 4월 1일 천안 아우내 만세 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되었다. 이 날 유관순의 부모는 모두 일본 헌병에 의해 살해되었고, 오빠도 체포되었다. 유관순은 이후 서대문 형무소로 옮겨졌고, 모진 고문 속에 1920년 10월 12일, 18살이라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로 사망하고 만다. 유관순 사망 소식을 들은 이화학당의 프라이 당장과 월터 선생은 서대문 형무소에 시신 인도를 요구했고, 우여곡절 끝에 시신은 학교로 옮겨져 비단 옷감으로 수의를 입고 10월 14일 정동교회에서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이화학당은 그 후 1920년대에 실력 양성운동과 계몽운동에 참여하여 새로운 노선의 독립운동을 지속해 나간다. 그러다 1926년 6월 10일 순종의 인산을 기해 일어났던 소위 6·10 만세 운동에서 이화 학생들은 다시 한 번 선두에 선다. 순종의 장례 직전까지 이화 학생들은 흰 광목 상복을 입고 검은 땀가죽을 매고 매일 돈화문 앞에 가서 망곡의 호곡을 하였다. 그리고 6월 10일 순종의 장례행렬에서 이화학생들은 대한독립과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반대하는 투쟁의 격문을 뿌렸다. 또한 1929년 11월 광주학생시위운동이 일어난 후 12월 2일 서울에서도 이를 잇는 시위운동이 일어났는데, 이화전문학교(1925년에 이화학당에서 이화여자전문학교로 재편됨) 학생 60여 명, 이화 고등학교 학생 300여 명이 정동 일대에서 만세 운동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이화 학생 57명이 체포되고 그 중 18명이 구속되었다.

## 5.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화의 사회참여는 비단 일제강점기 시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박정희의 유신체제와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에 항거하는 민주화 운동에 다른 여느 대학과 마찬가지로 이화여대 학생들도 침묵하지 않았다. 캠퍼스 민주화를 위해 우선 유신체제 하에서 학도호국단으로 개편된 학생자율 자치기구인 학생회를 복원하기 위해 1984년 11월 2일 “학생회 부활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1985년 학생들은 다시 자신의 손으로 학생회장을 선출하였다. 이렇게 출범한 총학생회는 강압적인 신군부 세력에 맞서는 한편 민주화 운동 연대활동의 일환으로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에 가입하여 투쟁에 앞장섰다. 하지만 1985년 5월 전학련의 삼민투쟁위원회가 미국문화원을 점거 농성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전학련을 용공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탄압하였는데, 이때 이화여대 총학생회장과 중앙집행부 부장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때 대검찰청 공안부는 교지였던 『이화언론』을 학원가 불온 유인물로 규정하고 책임자들을 역시 구속함으로써 민주화를 향한 이화인들의 열망을 강하게 탄압했다. 이화학학생들은 특히 여성근로자들의 인권을 위한 시위에 활발히 참여하였는데, 1985년 3월 14일 있었던 톰보이(Tomboy) 불매운동 시위에는 이화 학생 150여 명이 참가해 그 중 20여 명이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기도 하였다. 전두환 시대 내내 이화 학생들은 캠퍼스 내에서 경찰에 의해 비인간적으로 구타당하고 진행되는 일을 슬하게 겪었지만, 민주화를 향한 열망, 특히 소수자 가운데 소수자인 여성 근로자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큰 족적을 남겼다.

## 6. 정동 이화박물관- 심슨기념관

정동길을 따라 걷다보면 정동교회 옆에 이화여고로 들어가는 너른 마당이 보인다. 그리고 그 마당에는 빨간 벽돌로 지어진 3층짜리 건물이 지나가던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데, 이것이 바로 옛 이화학당의 교사(校舍)이며 대한민국 등록문화재 제3호인 심슨기념관이다. 이화학당은 1886

년 정동에 한옥으로 첫 교사를 신축한 이후, 늘어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1897년 기존의 한옥 교사를 헐고 그 위에 서양식으로 메인홀(Main Hall)과 프라이홀(Frey Hall)을 새롭게 건축하였다. 그러나 교실과 기숙사 등이 더 필요하게 되자 1915년 사라 심슨(Sarah J. Simpson)이 위탁한 기금으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후 몇 차례 증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이 되었으며 2002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현재 정동 이화학당 부지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건물이고, 지금은 이화 125년을 보여주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박물관 내부에는 이화학당 시절을 보여주는 사진들과 관련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당시 교실 모습들도 재현해 놓았다. 또한 이화가 발전해 간 모습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 특히 이화의 교복 변천사 전시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이화학당은 후에 이화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자전문학교로 확장되었고, 이화여자전문학교는 1935년 현재의 자리인 신촌으로 이사하였다. 그리고 정동의 부지는 이화여고가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심슨기념관을 둘러보고 이화여고 안쪽으로 조금 걸어가다 보면 100년 넘게 한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우물을 만날 수 있는데, 이것은 이화학당이 자리 잡기 전부터 그 주변에 살던 부인들이 매일같이 나와서 물을 기르고 빨래를 하던 우물이었다. 그리고 이 우물은 유관순을 비롯한 이화학당 학생들이 물을 기르고 빨래를 하고 둘러앉아 소녀들의 만의 잡담을 나누던 장소가 된 곳이다. 현재는 입구를 막고 자물쇠까지 달아놓아 그 안을 들여다 볼 수조차 없게 되었지만, 소외당하고 억눌리며 살아온 여성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앞세우고, 자유와 해방을 위한 첫 발을 디뎠던 곳이라는 상징적인 장소로 아직도 자랑스럽게 남아 현재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본을 보이고 있다.

## ■ 경복궁

경복궁은 1392년 조선이 건국된 지 2년 뒤, 조선의 5대 궁궐 가운데 가장 먼저 건설된 정궁 중의 정궁이었다. 비록 임진왜란 때 불에 탄 이후 270년 간 폐허 상태로 방치되었지만, 경복궁은 서울과 조선 왕실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로 군림하여 왔다. 그



리고 고종 2년(1865년) 대규모 재건 공사가 진행되어, 이후 한국 근현대사에서 다시 무대 정면에 나서게 되는데, 이때 기독교와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된다.

기독교, 그 중에서도 개신교는 가톨릭과 달리 처음부터 비교적 운택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 가톨릭의 경우, 중국에서 활동하던 예수회 선교사들과 중국 엘리트 신자들이 가톨릭의 교리와 신앙에 대해 설명하는 책들을 중국어로 다수 번역 혹은 저술하게 되는데, 가톨릭에 대한 이러한 서학서(西學書)들이 과학지식을 담은 책들과 함께 17세기 조선에 수입되고, 이를 학문적으로 공부하던 선비들 가운데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가톨릭은 서서히 한국에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권철신, 이가환, 이벽, 이승훈, 정약전, 정약중, 정약용 등의 남인 시파와 민중들을 중심으로 가톨릭이 퍼져 나갔고, 이들은 스스로 중국에 건너가 세례를 받고 프랑스 신부를 청해 조선에 밀입국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비밀히 신앙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1800년 남인 시파의 비호자 정조가 승하하면서부터 시작된 정치적 가톨릭 박해는 대원군 때에 발생한 병인박해 때까지 70여 년간 이어지며 수만 명의 순교자를 낳게 된다.

이렇게 힘겹고도 처절하게 피를 뿌리며 한국에 들어오고 뿌리를 내린 가톨릭과 달리, 개신교는 왕실의 비호를 받으며 한국에 첫발을 내딛게 되는데, 때는 1884년이였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조선은 서구 국가들에게 문호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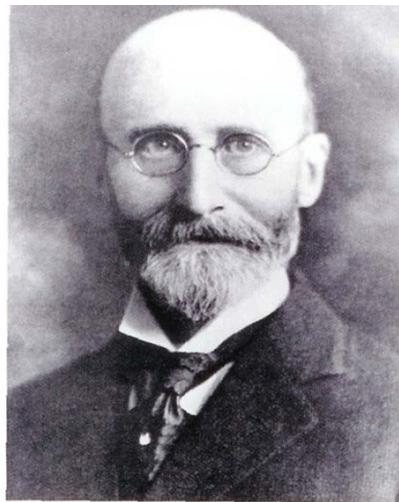
건미사절단 일행, 1883

개방하였다. 그러자 옆 나라 일본과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던 개신교 선교사들은 한국에도 선교사를 파송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1884년 일본 주재 미감리회 선교사 맥클레이(R. S. Maclay)가 한국을 방문하여 김옥균을 통해 고종에게

선교사업을 허락해 달라는 요청서를 전달하기에 이른다. 고종은 맥클레이의 요청을 받아들여 의료 및 교육 사업에 한해서 선교사업을 윤택함으로써 개신교의 선교는 시작될 수 있었다.<sup>107)</sup> 즉, 왕의 비호 아래 비교적 윤택한 상황 하에서 선교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맥클레이 선교사



알렌 선교사



애니 앨러스

고종이 허락을 한 사업은 앞서 언급한 대로 의료사업과 교육사업이었고, 이에 최초의 선교사로 장로교의 의료선교사 알렌(Horace N. Allen)이 1884년 9월 22일 내한하게 된다. 공식 신분은 주한 미국공사관 부속 의사였다. 알렌은 당시 현대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에

107)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편, 『한국 기독교의 역사 (1), 개정판』 (서울: 기독교문사, 2011), 126-134.

정주하게 된 사람이었으며, 한국에 있는 유일한 의사이기도 하였다. 2년 뒤에는 여의사로는 처음으로 애니 엘러스(Anie J. Ellers)가 내한을 하였는데, 알렌은 고종의 시의로, 엘러스는 명성왕후의 시의로 임명된다. 이후에는 미북장로회 선교사로 내한한 전 토론토의과대학 교수 애비슨(Oliver R. Avison, 훗날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1대 교장)과 릴리아스 호튼(Lillias S. Horton, 이후 언더우드 선교사와 결혼)이 고종과 명성왕후의 시의를 맡게 되면서, 선교사들은 왕실과 친밀한 관계를 쌓게 된다.

당시 고종과 명성왕후는 미국을 통해 일본을 견제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육영공원 교사로 와 있던 뉴욕유니온신학교 출신 험버트(Homer B. Hulbert)·길모어(Goerge W. Gilmore)·병커(Dalziel A. Bunker)와 그 외의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을 자주 궁으로 불러 서양의 문화와 교육에 대해 살피고 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바로 이런 와중에 명성왕후가 시해 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선교사 사회도 일대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 1. 을미사변과 선교사

1895년 10월 8일 새벽, 명성왕후 민씨(明成王后 閔氏, 1851-1895)가 일본의 폭도들에 의해 시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자신의 부인이자 정치적 동료였던 명성왕후가 시해되자 고종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 한없이 울면서 “아무도 날 도와줄 이 없는가, 왕후의 죽음을 누가 갚아 주기만 한다면, 단발(斷髮)해 신을 꼬아 주겠노라”<sup>108)</sup>고 외칠 정도였다. 당시 왕실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선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던 개신교 선교사들 또한 큰 충격과 비탄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미국의 대리공사였던 알렌이나, 명성왕후의 시의였던 애비슨, 릴리아스 호튼 언더우드의 충격은 정치적인 차원을 뛰어넘은 인간적인 비탄(悲嘆)에 가까웠다.

하지만 미국정부는 일본의 공식 변명문에 수긍의 뜻을 표명하고 나섰으니, 재한 미국선교사들의 입장은 난감할 수밖에 없었다. 실(J. H. B.

---

108) J. S. Gale, Korean Sketches (Edinburgh: Oliphant Anderson & Ferrior, 1898), 206.

Sill) 공사의 부재로 공사대리직에 있던 알렌은 1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정책을 찬동하던 입장이었으나, 이를 철회하고 명성왕후 시해의 공작이 일본 공사관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규탄하며 워싱턴에 지속적으로 편지를 썼다. 시의로서 왕과 왕비와 가장 절친했던 릴리아스 언더우드는 그녀(명성왕후)가 “순교자처럼 야만적인 흡혈귀들을 마주했으며 … 왕비로서의 헌신과 의무의 제단에 조선의 가치있고 가장 고상한 삶을 희생시켰다.”고 애도했다.<sup>109)</sup> 릴리아스 언더우드처럼 명성왕후가 “진보, 문명, 그리고 개혁의 친구”였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녀의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었다.<sup>110)</sup> 이런 견해는 당시 미국 선교사들이 대체로 공유했던 것인 만큼, 고종과도 가까운 관계였던 그의 남편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연희대학 설립자) 또한 비탄에 빠져 크게 충격을 받았으며, 고종에 대한 동정심은 더욱 깊어져갔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경우 명성왕후의 죽음으로 자신이 꿈꾸던 교육사업, 특히 대학설립의 계획이 다시금 좌절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명성왕후는 사변 직전, 일본식 교육제도 보다는 영미식 학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박영효의 주장을 받아들여, 박영효를 언더우드에게 보내어 고위층 자체들을 교육시킬 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마련해 보도록 부탁했다.<sup>111)</sup> 언더우드는 애비슨과 같이 이 일을 추진하고 뉴욕 선교본부의 동의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왕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sup>112)</sup> 언더우드와 애비슨은 곧바로 건축, 커리큘럼, 교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다. 학교 부지는 대궐의 동쪽에 있는 언덕 위, 즉 명성왕후가 언제든지 대궐(경복궁)에서 볼 수 있는 곳(현재 효자동, 누상동 방면의 배화여고 자리)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비밀리에 추진되던 이 계획은 곧 일본인들의 귀에 들어갔으며 이들은 이 학교건립 계획을 방해키 위해 박영효와 명성왕후를 이간시켜 서로를 경계하게 했다. 1895년 박영효가 일본에 망명하자 학교 설립계획은 위기에 봉착했지만 언더우드와 애비슨은 계속해서 일을 추진했다. 그

109) 릴리아스 언더우드가 Korea Repository 편집자에게 보낸 1896년 1월 2일자의 익명의 편지, Korea Repository, vol. 3 (Jan. 1896), 35.

110) L. H. Underwood, *Fifteen Years among the Top-Konts*, 146.

111) L. H. Underwood, *Fifteen Years among the Top-Konts*, 119.

112) O. R. Avison, 『舊韓末秘錄』 上卷, 267.

런데 그들이 최종계획서를 제출하기 바로 두 주일 전 명성왕후가 일본인들에 의해 살해되었으며 학교 설립계획은 완전히 좌절되었다.<sup>113)</sup>

## 2. 선교사들의 기록을 중심으로 재구성 해보는 춘생문 사건

을미사변 이후 고종은 아내를 죽인 일본인들에게 포위되어 경복궁 안에 연금(軟禁)된 처지였다. 그의 신변에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 때 고종의 청을 받은 미국 공사 실의 주선으로 장로교 선교사 에비슨, 언더우드, 게일(James S. Gale)과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험버트, 존스(H. Jones)는 거의 7주 동안 교대로 고종의 침소 근처에서 권총을 차고 야간 경비를 서기도 했다. 그러던 중, 죽음의 공포로부터 왕을 해방시키고자 고종의 친미, 친러파 근신(近臣)들과 소수의 서양 선교사들은 왕의 ‘이어(移御)’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기지만 실패하고 마는 사건이 일어나고 만다. 이 사건이 1895년 11월 28일에 일어난 이른바 ‘춘생문사건(春生門事件)’이다.

고종은 일본인들이 자신을 노리고 있지만 서양인들이 보호해 준다면 쉽지 않을 것이라 여겨 미국 공사 실에게 선교사들의 입궐을 요청했다. 고종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실이 냉철한 직업 외교관이라기보다는 성직자에 가까운 신앙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선교사들에게 고종의 뜻을 적극적으로 전해줬다.<sup>114)</sup> 실은 선교사들의 입궐을 돕기 위해 자신의 명함까지 주었다. 왕의 이 요청을 접해들은 선교사들은 을미사변 직후 일어난 동정심에서만 아니라 왕실이 그간 베풀어 준 호의에 보답하고 조선에 대한 그들의 우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남편이나 우리나라 모두 국왕에 대한 봉사가 즐거웠다. 우리는 가장 높은 사람에게서부터 가장 낮은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

113) 류대영, 『개화기 조선과 미국선교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348.

114) O. R. Avison, 『舊韓末秘錄』 上卷, 338; 류대영, 같은 책, 291.

들의 친구임을, 또 정의로운 지배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기뻐다. 특히 우리가 기뻐던 것은, 복음의 전파를 금지하는 법령에 복종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불충하다고(disloyal) 불렀던 사람들이 이제는 임금에게 가장 충성하는 사람들임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sup>115)</sup>

거의 7주 동안 선교사들은 매일 저녁 왕의 서재 겸 집무실인 집옥재(集玉齋) 근처의 건물에서 미국 군사고문 윌리엄 다이(William M. Dye) 장군과 함께 당번을 섰다. 이 때 고종은 유럽인들(서양인)이라면 누구든 알현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하지만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언더우드와 애비슨 뿐이었다. 고종은 김홍집의 친일내각에 참여하는 이재면(고종의 형)<sup>116)</sup> 등에 의해 계속 감시를 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궁내에서의 생활이 답답할 수밖에 없었다. 이재면은 고종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언더우드에게 뭔가 정보를 캐내기 위해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고종은 친일 내각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그들의 시선을 두렵게 의식했다. 따라서 고종은 귓속말과 몸짓, 혹은 언더우드의 손에 몰래 작은 메모지를 쥐어주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뜻과 계획을 전달했다.<sup>117)</sup> 또한 이런 상황에서 고종은 독살 당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껴 삶은 계란이나 강통 채로 들여와 그의 눈앞에서 직접 개봉된 농축 우유 외에 궁에서 제공하는 음식은 일체 먹지 않았다. 그러자 명성왕후와 특히 가까웠던 러시아 공사의 부인과 릴리아스 언더우드는 고종을 위해 번갈아 가면서 음식을 장만했다. 두 사람이 마련한 음식은 큰 양철통에 넣어져 단단한 미국 자물쇠로 잠긴 채 매일 고종에게 배달됐다. 음식이 담긴 양철통은 입궐하는 관리 편으로 보냈으나 열쇠는 반드시 언더우드가 매일 직접 가지고 가서 고종에게 전해주었다.<sup>118)</sup> 그리고 애비슨은 음

---

115) L. H. Underwood,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157.

116) 이재면은 고종을 제거하고 자신의 장남을 권좌에 올립하려던 대원군의 음모에 개입한 적이 있었고, 당시 김홍집 내각에 참여 중이었으므로 고종은 그의 감시를 늘 신경 쓰고 있었다.

117) L. H. Underwood,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155; 류대영, 『개화기 조선과 미국선교사』, 292.

118) L. H. Underwood,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156;

식을 검색하여 함독(含毒) 유무를 살폈다.

국왕은 공포스러운 경복궁에서 탈출하여 자신이 신뢰하는 미국과 러시아의 공사관이 밀집된 정동 지역으로 가고 싶어 했다. 고종의 이러한 탈출 의지를 가장 처음 접한 사람이 바로 언더우드였다. 고종은 실 공사의 요청으로 고종을 지속적으로 위문하고 있던 언더우드에게 자신의 은밀한 탈출의지(意志)를 기록한 ‘밀지(密旨, Tiny Note)’를 손바닥에 전했다.<sup>119)</sup> 그리고 이런 메시지는 정동에 모여있던 외국인들에게 비밀히 전해졌다. 당시 거의 모든 외국 공사들은 왕후 시해사건을 비난하고 새 내각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외국공사들은 고종과의 서신 왕래시 새 내각을 경유하기를 거부하고 장로교 목사이자 왕가 가까운 언더우드 박사에게 국왕과의 서신 왕래를 맡아 달라고 부탁했다.<sup>120)</sup>

정동에서는 명성왕후 시해에 대한 복수토역(復讐討逆)을 기치로 내걸고<sup>121)</sup> 경복궁에 갇힌 국왕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은밀히 수립하여 결국 1895년 11월 28일 자정을 기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왕을 이어시키고자 했다. 당시 이 계획에 참여했던 자들은 다음과 같다.

임최수(林最洙; 侍從), 이도철(李道徹; 參領), 이민굉(李敏宏; 正尉), 이충구(李忠求; 前委員), 안경수(安駟壽; 中樞院議官), 김재풍(金在豐; 司計局長), 이세진(李世鎭; 侍從院)

정동 미-러 공사관에 피신 중이었던 피난정객 : 이범진(李範晉), 이완용(李完用), 윤웅렬(尹雄烈), 윤치호(尹致昊), 이하영(李夏榮), 이학균(李學均), 현흥택(玄興澤), 민상호(閔商鎬), 이채연(李采淵), 남만리(南萬里), 이용한(李龍漢), 이완응(李完膺), 최영하(崔榮夏)

외국인 : 르젠드로, 다이, 닌스테드, 언더우드, 헐버트, 애비슨<sup>122)</sup>

---

Underwood of Korea, 148; Allen to SS, October 11, 13, 1895, DD; O. R. Avison, 『舊韓末秘錄』上卷, 338.

119) 민경배, 『韓國基督敎會史』(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8), 214.

120) O. R. Avison, 『舊韓末秘錄』, 上卷, 44.

121) 『高宗時代史』卷3, 1024, 高宗 32년 10월 11일; 金源模, 『開化期韓美交涉關係史』(檀國大學校, 2003), 821.

언더우드는 거사 당일 궁궐에 들어갔다가 왕의 사촌에게 거사에 대한 정보를 전해 듣고 돌아와 무척 흥분된 상태로 돌아왔다. 거의 비슷한 시간에 윤웅렬은 아들 윤치호에게 “오늘 밤 충성과 인물들이 경복궁을 침입하여 국왕을 구출, 해방시키겠다. 친일 내각 수중에 갇혀 있는 국왕을 보호하기 위해 습격하며, 외국 공사들에게 이 사실을 통고하기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즉시 윤치호는 미국과 러시아 공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외국인을 동원해 즉시 경복궁으로 입궐하여 국왕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sup>123)</sup> 연이어 언더우드도 실 공사 거사에 대한 사실을 전달했고,<sup>124)</sup> 애비슨을 만나고자 하는 고종의 뜻의 애비슨에게 전했다.<sup>125)</sup>

언더우드의 전언을 들은 애비슨은 당장 왕께서 자신을 원하시는 이유를 알아보겠다며 입궐을 시도하였다. 그러자 언더우드 또한 동행을 자청했다. 그리고 저녁 8시 경복궁의 어느 문에서 만나기로 한 후 중간에 헐버트가 합류하게 되었다.

윤치호의 보고를 받은 실 공사와 알렌은 즉시 국왕을 보호키 위한 대비책을 강구했다.<sup>126)</sup> 그들을 즉시 왕후시해를 떠올리며 민간인 신분으로서 고종을 꾸준히 보호해 왔던 언더우드에게 입궐을 요청했다. 이것은 애비슨, 헐버트 그리고 언더우드의 개인적 차원의 입궐의지와 공사관의 외교적 의지가 합치된 결과였다. 언더우드는 실 공사로부터 받은 대궐 출입증과 명함을 파수병에게 보이도록 지시받고, 애비슨과 함께 경복궁으로 달려갔다.<sup>127)</sup>

대문은 닫혔고, 밤을 대비하여 잠겼음을 알았다. 우리가 파수꾼에게 입궐을 요청하자 그는 거절했다. 일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었다. 왜냐하면 파수꾼들이 우리 두 사람(헐버트는 후에 혼자서 입궐했

122) 菊池謙讓, 『朝鮮王國』(民友社, 1896), 526; 金源模, 같은 책, 821.

123) Yun Chi-Ho's Diary, Vol. 4, 93-94, Nov. 27, 18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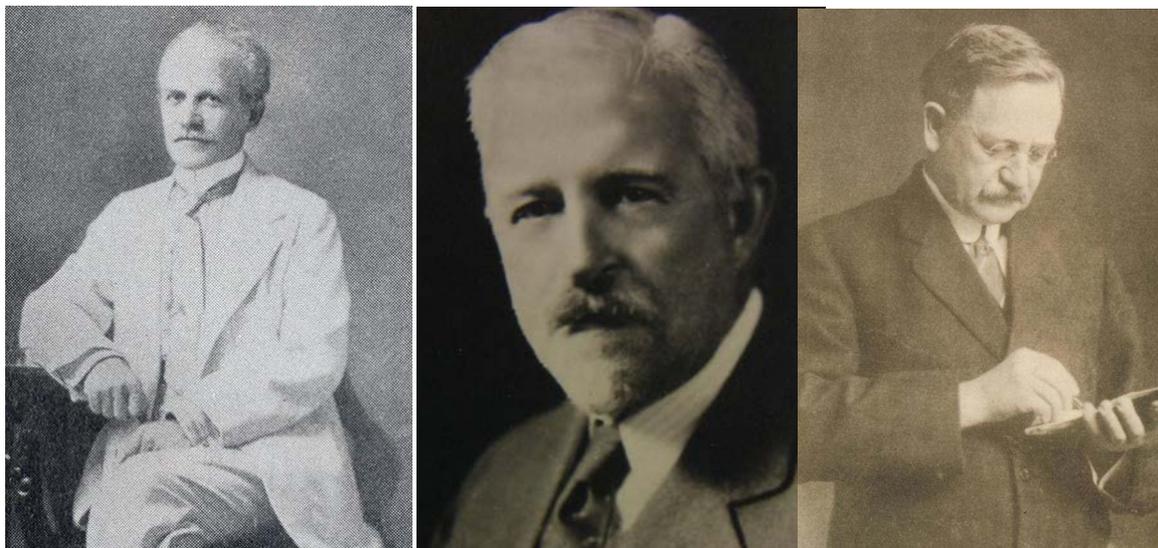
124) O. R. Avison, 『舊韓末秘錄』上卷, 46.

125) O. R. Avison, 『舊韓末秘錄』上卷, 47.

126) O. R. Avison, 『舊韓末秘錄』上卷, 47.

127) L. H. Underwood,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159-160.

다)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언더우드도 외국 공사들의 사자(使者)로서 나 자신은 왕의 전의(典醫)로서 어느 때고 입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sup>128)</sup>



언더우드와 애비슨은 권총을 휴대하고 대궐문에 도착해 파수병에게 실공사의 명함을 보이며 입궐하려 했지만 제지당하였다. 하지만 실랑이 끝에 파수꾼의 태도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 언더우드 일행은 즉시 침전(寢殿) 건청궁의 곤녕각(坤寧閣)으로 달려갔다. 국왕은 무사하였고, 도착을 알리자 즉시 반갑게 맞아 주었다. 고종은 왕의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밤새 자신을 경호해 줄 것을 그들에 전달했다.

공식 절차(약을 직접 상달하는 시간)를 끝내고 하직 인사를 드릴 때, 왕께서는 우리가 집으로 갈 건지 밤새 궁궐에 머물 것인지 물으셨다. 질문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했기에 우리는 돌아가려했지만 폐하께서 원하시면 머물 수 있다고 전했다. 왕께서는 우리를 괴롭히고 싶지 않으나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머물러 있는 것이 기쁘겠다고 말씀하셨다.<sup>129)</sup>

128) L.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149-151;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161-162.

129) O. R. Avison, 『舊韓末秘錄』上卷, 49-50.

곧이어 왕은 언더우드 일행에게 침전 근처에 있는 다이 장군과 다른 두 명의 장교숙소에 대기하라고 하명하였고, 그들은 만약의 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초조함 속에서 기다렸다.<sup>130)</sup>

장교 숙소에 있는 동안 닌스테드(F. J. H. Nienstead, 仁施德)는 만일을 대비해 무기를 휴대하고 점검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언더우드와 애비슨은 뒷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손질했으나, 황급히 합류한 힐버트는 권총이 없었다. 이에 닌스테드가 자신의 총을 힐버트에게 빌려줬다. 이들은 무기를 닦고 기름도 치고 장탄(裝彈)한 후 탄띠를 속옷에 둘러쌌다. 이 날은 추수 감사절 전야의 달 밝은 밤이었지만 몹시 추웠다. 언더우드 일행은 성급히 오느라 모두 외투를 입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모두 차가운 밤공기에 한기를 느껴 떨고 있었다. 원래 조선 궁정법도에는 무기를 휴대한 상태로는 침전에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왕후 시해사건 후 고종은 이들 미국 선교사들이 자신을 보호해 준다는 것을 믿고 휴대를 허용했다.<sup>131)</sup>

자정 쯤 한발의 소총소리가 나고 뒤이어 여러 발의 총성이 들렸다. 총소리에 놀란 다이 장군과 선교사들은 벌떡 일어나 국왕 침전으로 달려갔다. 침전 앞에는 칼을 빼어 든 장교 몇 명이 2열로 선 중대 병력과 함께 착검한 총을 교차시키면서 출입을 가로 막았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한 대형을 갖추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언더우드는 권총을 빼어 들고 아직 느슨하게 쥐고 있는 총검을 밀치면서 곤녕각을 향해 돌진했다.<sup>132)</sup>

총소리에 놀란 고종은 “외국인들은 어디 있느냐? 외국인들을 불러오라.”며 소리쳤다. 선교사들은 “여기 있습니다. 전하 저희들은 여기 와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침전 안에 들어서니, 국왕과 세자는 몸을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국왕은 선교사 일행을 보더니 안도감을 보이면서 선교사들의 손을 잡고 밤새도록 함께 있자고 말했다.<sup>133)</sup> 왕후 시해

130) L.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149-151;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161-162; 李哲源 『王宮史』, 36; 金源模, 『開化期韓美交涉關係史』, 823; O. R. Avison, 『舊韓末秘錄』上卷, 50.

131) O. R. Avison, 『舊韓末秘錄』上卷, 50-51.

132) O. R. Avison, 『舊韓末秘錄』上卷, 51.

133) L.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149-151; *Fifteen Years*

이후부터 고종은 몇몇 미국 선교사들을 거의 절대적으로 의지해오고 있었는데, 여행가 비숍의 말처럼 “이 불행한 통치권자(고종)에게는 이들이 유일한 방패”<sup>134)</sup>였다.

선교사 일행은 고종을 옆에서 지키며 곧 도착할지 모르는 이어(移御)를 위한 구조대(救助隊)를 기다렸다. 미리 약속된 병력 800여명은 삼청동을 거쳐 경복궁으로 진격하였는데, 처음에는 건춘문(建春門)을 통해 입궐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북장문과 춘생문 사이에 있는 궁궐담을 넘기로 하였다. 하지만 그 와중에 중충원 의관(議官)인 안경수(安駟壽)가 외부대신 김윤식(金允植)에게 이 사실을 알려 버렸고, 호위대장(護衛隊長) 이진호(李軫鎬)가 변심하여 군부대신 어윤중(魚允中)에게 밀고함으로써 이도철(李道徹) 등 10여명이 현장에서 체포되어 국왕 구출작전은 무위로 끝나고 만다.<sup>135)</sup>

곧이어 거사가 실패로 끝났음을 알게 된 김홍집 총리는 여러 각료들과 함께 국왕을 찾았다. 그는 고종에게 좀 더 안전한 처소로 옮길 것을 요청했다. 이에 고종은 언더우드에게 어찌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물었다. 언더우드는 “우리가 폐하께서 어떻게 하시라고 조언할 처지는 아니지만 우리 외국인들은 지금 있는 곳에 그대로 머물 것이며 폐하께서 함께 계신다면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러자 김홍집 총리대신이 고종의 어수(御手)를 잡고 모셔가려고 잡아 당겼지만 국왕은 애비슨의 손을 꼭 잡고 놓질 않았다. 그리고 군부대신 어윤중(魚允中)이 왕세자를 잡아 왕세자는 언더우드의 손을 잡고 늘어졌다. 그렇게 애비슨과 언더우드 일행이 꼼짝 않고 서있자 김홍집 일행은 고종과 왕세자로부터 선교사들 떼어 놓기 위해 실랑이를 벌였다. 하지만 고종과 왕세자는 더더욱 애비슨과 언더우드에게 매달렸고, 선교사들은 흔들림 없이 더욱 자세를 꼳꼳이 세웠다.<sup>136)</sup> 김홍집 총리는 “외국인이 무례하게도 폐하를 붙들어 폐하께서 마땅히 하셔야 하고 또 원하시는 일을 못하시게 방해하느냐?”며 훈계했다.

---

Among the Top-Knots, 161-162.

134) I. B. Bishop, *Korea and Her Neighbours*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1970), 279.

135) 『續陰晴史』(國史編纂委員會, 1971), 上, 383, 高宗 32년 10월 12일; 『官報』 213호(개국 504. 11. 15); 金源模, 『開化期韓美交涉關係史』, 821.

136) O. R. Avison, 『舊韓末秘錄』 上卷, 54-55.

이에 언더우드는 “우리가 폐하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폐하께서 우리를 잡고 계시며 또 무슨 총리대신이라는 자가 자기 주군(主君)을 붙잡고 그가 원하지 않으시는 일을 강요하게 하느냐?”고 반박하여 결국 김홍집 내각 일행이 스스로 나가게 만들었다.<sup>137)</sup> 이렇게 실내를 안정시키는 동안 침전 밖의 상황도 진정이 되었지만, 이내 당일의 거사가 수포(水泡)로 돌아갔음을 명확히 깨닫게 되는 가혹한 순간이기도 했다. 하지만 언더우드는 한밤 중(거의 새벽 1-2시)이었던 당시 또다시 국왕을 다른 곳으로 이어했다가는 또 다른 변고(암살이나 납치)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대로 침전인 곤녕각에 머물게 하였고, 선교사들은 옆방에서 수직(守直)하면서 밤새 교대로 불침번을 서기로 결정했다.

흥분과 긴장 속에서 벌어진 순간적인 우발상황으로 인해 헐버트는 궁중의 중요한 법도 한 가지를 어겼음을 뒤늦게 깨달았다.<sup>138)</sup> 그는 자정의 총소리에 놀라 그만 황급히 곤녕각에 달려간 나머지 총기와 탄띠를 겹옷에 노출해서 걸친 채 왕 앞에 나선 것이었다. 헐버트는 양해를 구하고 신속히 외투 아래로 다시 탄띠를 돌렸지만 고종이 그 장면을 목격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 장면을 목격한 애비슨은 만약 왕이 그것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당시에 오히려 다행스럽게 여기셔서 현명하게 지적하지 않으셨으리라고 회고했다.

춘생문 사건은 왕후시해 이후 발생한 일본 및 친일세력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인 저항의 움직임이었고, 이후 ‘아관파천’으로 이어져 나름의 성과를 거둔다. 그리고 개신교 선교사들은 이렇게 경복궁에서 고종을 지키며 일본에 대항했는데, 이는 훗날 헐버트가 고종의 밀사로 헤이그에 파견되고, 원한경(Horace Horton Underwood)이 3·1운동 이후 일제가 저지른 제암리 학살 사건 등을 전 세계에 알리며 규탄하는 등, 선교사들이 직접적인 한국 민족운동에 뛰어들게 되는 밑 걸음이 된다.

### 3. 춘생문 사건의 배경이 된 집옥재와 건청궁

137) O. R. Avison, 『舊韓末秘錄』上卷, 54-55.

138) 金源模는 위의 책 824에서 탄창을 밖에 걸쳤던 ‘헐버트’를 ‘애비슨’이라고 誤記하고 있다.

춘생문 사건의 배경이 되 곳은 왕의 서재 겸 집무실이었던 집옥재와 왕의 침실이 있던 건청궁이었다. 집옥재는 신무문(神武門) 동쪽에 있으며 앞면 5칸, 옆면 3칸의 단층 맞배집으로, 전체적으로 경복궁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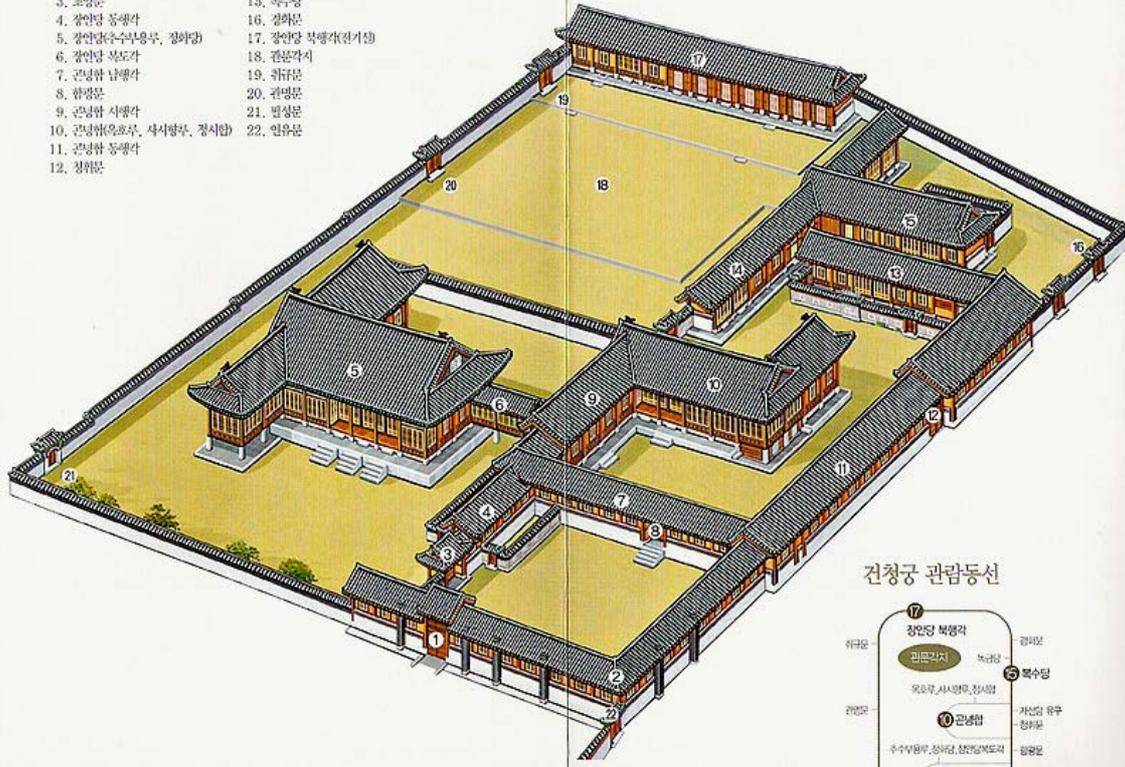


의 다른 건물에 비해 중국적인 면을 많이 지녔다는 것이 특징이다. 전통 한옥이 아닌 중국식 벽돌로 지어졌기 때문에 경복궁의 다른 건물들과 비교해 이질감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고종과 명성왕후의 거처였던 궁안의 궁, 건청궁은 1873년 고종이 경복궁 중건을 마무리하면서 국가 재정이 아닌 내탕금(왕의 사비)을 들여 궁궐 안의 가장 깊은 곳(현재 청와대 건너편)에 짓기 시작하였다. 이 해는 고종이 흥선대원군의 섭정을 종식하고 친정을 선언한 해였는데, 이 때문에 고종이 같은 해에 건청궁을 건립하여 왕과 왕실의 침소를 여기로 옮긴 것은 고종이 대원군의 그늘에서 벗어나 정치적으로 독립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풀이되기도 한다.<sup>139)</sup> 고종은 1884년부터 이곳에서 기거하면서 정무를 처리하였다. 건청궁에는 1887년 조선 최초로 전등이 설치되었는데, 이는 중국이나 일본의 궁정 설비보다 2년이나 앞선 것이었다. 이후 고종은 1896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아관파천’ 후 건청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덕수궁을 정궁으로 거처를 옮기는데, 이때부터 주인을 잃은 건청궁은 1909년 완전히 폐쇄된 후 2007년 복원되었다.

139) 두산백과사전, 건청궁 항목 참조.

### 진창궁 배치도

- |                         |                  |
|-------------------------|------------------|
| 1. 진창궁 정문               | 13. 곤녕합 북행각      |
| 2. 진창궁 남행각 동행각          | 14. 복수당 사행각(수급당) |
| 3. 초상문                  | 15. 복수당          |
| 4. 장안당 동행각              | 16. 경하문          |
| 5. 장안당(수수익우루, 정야각)      | 17. 장안당 북행각(권거실) |
| 6. 장안당 북도라              | 18. 권문각지         |
| 7. 곤녕합 남행각              | 19. 관덕문          |
| 8. 함경문                  | 20. 곤녕문          |
| 9. 곤녕합 서행각              | 21. 별칭문          |
| 10. 곤녕합(육호루, 서시행부, 정시합) | 22. 인유문          |
| 11. 곤녕합 동행각             |                  |
| 12. 청취문                 |                  |



### 진창궁 관람동선



## 참고자료. 개신교 연표

---

1884. 6. 20 일본 주재 미감리회 선교사 매클레이, 한국방문, 고종을 알  
현하고 의료 및 교육사업의 실시에 대한 윤허를 얻어냄
1884. 9 미북장로회 의료선교사 알렌, 한국 주재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로 내한
1884. 12 알렌, 갑신정변시 부상당한 보수계 거두 민영익을 서양의술로  
완치, 왕실의 신망 얻어냄
1885. 4. 5 미북장로회 선교사 언더우드와 미감리회 선교사 아펜젤러 내  
한, 본격적인 한국 개신교 선교 시작.
1885. 4. 10 최초의 근대식 병원 광혜원(이후 제중원) 설립
1885. 5 제중원 의학교 시작(연세대학교의 시작)
1885. 8. 3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 배재학당 설립
1885. 9. 10 정동병원 설립
1885. 11 영국 성공회 중국선교사 울프, 독자적으로 2명의 선교단 구성,  
선교활동 시작
1886. 5. 31 스크랜턴 부인 여성 교육기관 이화학당 설립
1886. 7. 11 연동여학당(정신여학교) 설립, 경신학교 설립
1887. 9. 27 언더우드 새문안교회 설립
1887. 10. 9 아펜젤러 정동교회 설립
1887. 10. 20 여의사 하워드 내한, 보구여관 설치
1889. 8 호주장로교회 첫 선교사 데이비스 내한, 호주장로교회 한국 선  
교 시작
1892. 12. 25 동대문교회, 동대문 진료소 설립
1893. 1. 28 선교구역 분할 협정 체결
1893. 3 동학의 기독교 배척운동 강력히 진행
1893. 10. 24. 양화진 외인묘지 조성
1894. 4 동학혁명에 이은 청일전쟁
1895. 10. 8 을미사변 발생
1895. 11. 28 춘생문 사건, 선교사 관련 시비
1896. 2. 11 아관파천
1896. 7 독립협회 창설
1896. 10 최초의 기독교학생운동체 협성회(서재필) 조직

- 1897. 2. 20 고종 덕수궁으로 환궁
- 1897. 10. 31 감리교, 엠윗청년회 조직
- 1898. 1 러시아정교회 한국선교 시작
- 1898. 10 남감리회, 서울 배화학당 설립
- 1899. 11 애비슨, 미국인 세브란스의 기부금으로 남대문 밖에 종합병원과 의학교 건설
- 1900. 2. 7 러시아정교회 성찬예배 실시
- 1900. 11. 15 강화읍 성공회 성당 축성식
- 1903. 10. 28 황성기독교청년회(YMCA) 발족
- 1903. 11. 보구여관 내 간호원 교육기관 창설; 러시아정교회 한국교회 설립
- 1903. 12 이승만, 신흥우, 이상재, 이원공, 유성준, 김정식, 홍재기, 안국선 등 옥중 개종
- 1904. 2. 8 러일전쟁 발발
- 1905. 9 세브란스 연합의학교 정식 개교; 험버트 고종황제의 청을 받고 워싱턴에 밀파
- 1905. 11. 17 을사늑약 체결
- 1906. 세브란스 병원 내에 간호원 양성소 설립; 온수리 성공회성당 건립
- 1907. 6. 헤이그 밀사 사건, 감리교 상동교회에서 협의
- 1908. 10 구세군, 한국 개전 (허가두 내한)
- 1910. 2. 15 구세군 사관학교 정식개교
- 1911. 9 105인사건 조작으로 기독교계 민족 지도자 검거 시작
- 1915. 3. 5. 연희전문학교 개교
- 1916. 12 구세군, 무료급식 실시
- 1917. 11 이광수, 기독교비판론 대두; 러시아정교회 한국선교 단절
- 1919. 3. 1 삼일만세운동 한국교회 대거 참여
- 1924. 9. 24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NCCCK) 창립
- 1925. 4. 23 이화학당 대학과가 이화여자전문학교로 개편
- 1925. 6 일제 서울 남산에 조선산궁 완공
- 1926. 5. 25 서울성공회 대성당 완공
- 1926. 10. 23. 반기독교대회 개최(공산당)
- 1926. 11. 7 구세군 조선인 사관 서양인과의 차별 대우에 항거
- 1931. 6. 14 기독교 감리회 한국에서 여자 목사 안수
- 1932. 12 조선예수교 연합공의회 “사회신조” 채택
- 1938. 7 조선기독교연합공의회 반강제 해체 후 조선기독교연합회 결성

1940. 9. 20 반전, 반참배, 비밀결사운동하던 기독교인 전국적으로 검거  
1942. 9 외국인선교사 전원 출국  
1945. 7. 10 일본기독교 조선교단 조직

참고자료. 정동지역 지도<sup>140)</sup>

---

140) 이덕주, 『개화와 선교의 요람: 정동이야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